

최정주 장편소설

원흉장전

최정주 장편소설

원흉장전

 곡성문화원

차례

1. 원량, 꿈에 관음보살을 만나다 _ 9
2. 원홍장의 탄생 _ 29
3. 어린 효녀 _ 53
4. 문전걸식을 해서라도 _ 74
5. 보살의 미소 _ 96
6. 홍장이 성덕을 만나 _ 112
7. 내 딸을 바치리다 _ 135
8. 황천 건너기 _ 160
9. 원홍장, 심황후가 되다 _ 184
10. 허수아비황제와 자애로운 황후 _ 207
11. 관음보살이시여, 인연의 땅으로 가소서 _ 229
12. 참 인연의 아름다운 재회 _ 252

1. 원량, 꿈에 관음보살을 만나다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아니, 두 송이 세 송이가 연달아 피어나고 있었다.

‘곱구나. 참으로 곱구나. 세상에 저토록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

원량이 탄성을 내지를 때마다 연꽃이 봉오리를 터뜨렸다.

푸르디푸른 심진강물이 천마산 그림자를 품고 바다를 향해 느릿느릿 흘러갔다.

원량의 가슴으로 불덩이 같은 환희심이 솟구쳐 오를 때였다.

강 가운데의 가장 큰 연꽃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와 연꽃 한 송이를 원량을 향해 내밀었다.

“누구신데 앞도 못 보는 보잘 것 없는 내게 이 귀한 연꽃을 주십니까?”

“귀한 꽃이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이 꽃처럼 웃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원량이 연꽃을 받아 가슴에 안을 때였다.

여인이 물었다.

“앞을 못 보시는 원차사께서 어찌 연꽃인 줄은 아셨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향기로 알았습니다.”

원량의 가슴에서는 여전히 환희심이 넘쳐났다.

여인이 말했다.

“그래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지요. 형체가 없는 향기를 맡고도 꽃을 그릴 수가 있지요. 내 눈에는 지금 원차사님의 가슴에 가득 찬 환희심이 보입니다.”

“기쁩니다. 너무 기뻐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현대, 부인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원차사님의 마음 안에 이미 내가 있습니다. 원차사님이 꽃이라 여기면 꽃이 되고, 바람이라 여기면 바람이 되겠지요.”

“꽃이고 바람이라구요? 부인은 형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군요.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군요.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원차사께서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여인이 연꽃같은 웃음을 남기고 서서히 멀어져 갔다.

“부인, 부인...”

원량이 부를 때였다.

누군가 가만가만 원량의 어깨를 흔들었다.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어인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원량이 열 세 해 전에 만나 살맞대고 살아온 정씨부인이었다.

“아니요. 부인을 부른 것이 아니었소. 다른 부인이었소.”

“다른 부인이었다구요? 혹시 연꽃 안에서 나온 부인이 연꽃처럼 웃으면서 연꽃 한 송이를 주시지 않던가요?”

정씨부인이 기쁨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부인이 그걸 어찌 아셨소? 이제 보니 부인이야말로 내 안에 있었구려.”

“꿈을 꾸었어요.”

“부인도 꿈을 꾸었다구요?”

원량이 아직도 가슴 가득히 채우고 있는 환희심을 누르며 물었다.

“섬진강을 연꽃이 뒤덮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이 온통 연꽃 천지였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연꽃에서 한 부인이 나와 제게 연꽃 한 송이를 주셨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제 안에서 기쁨이 넘쳤어요.”

“부인, 우리 한낱한시 한 이불 속에서 한 꿈을 꾸었구려. 부인과 나는 하늘의 상제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 분명한가 보오.”

원량이 정씨부인을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인연은 그 분께서 맺어주시는걸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서방님을 만났겠어요. 다만 한 가지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라면 한이지요.”

정씨부인이 원량의 품으로 파고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잖소? 무릇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했소.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요. 그 때를 기다립시다. 대홍암 범룡스님께서 우리 내외한테도 분명히 자식이 있다고 했잖소? 우린 아직

젊소. 때가 되면 분명 자식이 생길 것이요. 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 하구려. 어찌 같은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요.”

“혹시 태몽이 아닐까요?”

정씨부인이 작은 소리로 조심스레 물었다.

“태몽이요?”

“어쩐지 그런 것 같아요. 연꽃을 닮은 고귀한 부인이 연꽃에서 나와 연꽃을 주신 꿈이 태몽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태몽이라면 오죽이나 좋겠소만, 너무 욕심내지는 맙시다.”

“서방님 말씀이 옳아요. 저는 한낱한시도 저를 서방님께 인도해 주신 그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정씨부인의 몸이 푸르르 떨었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원량이 정씨부인을 더욱 힘주어 안으며 중얼거렸다.

문득 꿈속에서 맡았던 연꽃향기가 코끝을 스쳐갔다. 열 세 해 전의 그 여름날에도 정씨처녀의 몸에서는 연꽃향기가 풍겼다.

원량은 송정마을 원훈장의 3대독자 외아들이었다. 나이 마흔이 넘어 낳은 아들이라 하여 어렸을 때는 량이라는 이름보다 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량은 총명한 아이였다.

방안을 겨우 기어다닐 무렵이었다. 무엇 때문인지 량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댔다. 젖을 실컷 먹고 방긱방긱 웃다가도 지나가던 동네사람의 귀청을 때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어댔고, 아랫도리가 보송보송해도 문

푹지가 파르르 떨 만큼 목청껏 울었다.

량이 큰 소리로 울어대면 사랑채의 원훈장이 학동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안채로 달려 올라왔다.

“아니, 부인. 만득이 놈 울음소리 때문에 학동들을 가르칠 수가 없구려. 어떻게 좀 달래보시오.”

“아무리 달래도 우는 걸 어떡합니까? 젖을 실컷 먹었으니, 배고 고파 우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를 방금 갈아주었으니, 아랫도리가 젖어 우는 것도 아니고, 몸에 열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울어대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어디, 내가 한번 안아보리다.”

원훈장이 팔을 내밀어 량을 받아들면 그제서야 울음을 그쳤다.

“이놈아, 네가 어찌나 큰 소리로 울던지 내가 학동들을 가르칠 수가 없구나. 뭐가 못마땅해서 학동들이 글공부만 시작하면 울어대느냐? 네가 울어 내가 학동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서당의 문을 닫아야하고, 서당의 문을 닫으면 학채가 끊어져 우리 세 식구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

원훈장이 웃으면서 나무라면 량이 따라서 병긱병긱 웃었다.

원훈장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씨 부인이 고개를 가웃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서방님.”

“무엇이 말씀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득이가 사랑채에서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면 울어댄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이요?”

“틀림없어요. 만득이는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시끄러워 우는 거예요. 만득이를 제게 주시고 서방님은 사랑채로 내려가셔서 학동들에게 글을 읽혀 보세요.”

“그러리다. 혹시 글읽는 소리가 들려 만득이가 울면 사랑채로 데리고 내려오시오.”

원훈장이 만득이를 이씨 부인에게 넘겨주고 사랑채로 내려갔다.

잠시 후에 사랑채에서 학동들이 논어를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다.

그러자 만득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구나. 만득이는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 분명하구나.’

이씨 부인이 만득이를 안고 사랑채로 내려가자 이미 만득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있던 원훈장이 마루에 나와서 있었다.

“서방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만득이가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씨 부인이 울상을 지었다.

“아니요, 아닐 것이요.”

“아니라구요? 글 읽는 소리만 들리면 울음을 터뜨리는데 아니라구요?”

이씨 부인이 방안의 학동들이 듣지 못하도록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글 읽는 소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찌면 글을 배우고 싶어 우는 것일 수도 있소.”

“예?”

이씨 부인이 뒤로 넘어질 듯 놀라며 원훈장과 만득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일단은 만득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오. 내가 학동들에게 글을 읽힐 것이니, 만득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로 합시다.”

원훈장이 먼저 사랑으로 들어가 학동들에게 말했다.

“내가 논어 학이편 첫구절을 읽을 것이니, 큰소리로 따라 읽거라. 자왈(子凡)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니라.”

학동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었다.

아직까지도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을 매달고 있으면서도 만득이의 입가에서 병긋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씨 부인이 놀라 큰 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이걸 좀 보세요. 만득이가 웃고 있습니다.”

“내 그걸 줄 알았소. 만득이의 속내를 알았으니, 부인은 만득이를 벽에 기대어 앉혀놓고 올라가 보시구려.”

“서방님의 말씀에 따르기는 하겠습시다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가 글 욕심을 내다니요.”

“두고 보면 알겠지요. 어찌면 만득이는 부인의 뺨속에서부터 글을 배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소.”

“설마요.”

이씨 부인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인도 소싯적에 글 읽기를 즐겼지 않소? 내가 장인어른이신 오지

마을 이훈장님께 글공부를 다닐 때에 부인은 사서를 놓고 학동들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학문이 뛰어났었소. 자식이 어찌 부모의 살과 피와 뼈만 받아가지고 태어나겠소? 부모의 마음까지 받아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소? 만득이는 뱃속에 있는 열 달 동안 글을 즐겨 읽던 부인의 성품까지도 물려받고 태어난 것이 틀림없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씨 부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원훈장은 만득이에게 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학동들을 가르칠 때면 늘 곁에 두고 강독을 했다.

아직 하늘 천(天)자도 소리 내어 읽을 줄은 몰랐지만, 원훈장이 하늘 천자를 가리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따지(地)자를 가리키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학동들의 입을 통하여 원훈장의 외동아들 량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글을 배운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송정마을 뒷산에서 십 년째 철광산을 하고 있는 진나라 사람 곤무갑이 찾아왔다.

“곤대인 어서 오십시오. 안 그래도 이제나저제나 하고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훈장께서 기다리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뱃길에는 유난히 바람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도중도중 섬에 정박하는 날이 많아 늦어졌습니다. 원훈장께서 부탁하신 사마천선생의 사기를 비롯하여 새로 간행된 서책 몇 가지를 구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곤대인과 취하도록 마셔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잘 익은 국화주 향기가 너무 좋아 곤대인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

니다.”

“국화주 한 단지면 서책 값으로 너무 과하군요. 현대 우리 배에 아랫넛 포구에서 탄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이상한 소리라니요?”

“원훈장님의 자제분이 출생 전에 이미 학문을 익힌 신동이라고요.”

“소문은 언제나 허황되기 마련이지요. 이제 겨우 입을 열어 하늘천자를 웅알이 할 정도입니다. 국화주나 마십시오.”

만득이의 일이 남의 입살에 올려지는 것이 거북스러운 원훈장이 말머리를 돌렸다.

곤무갑이 만득이를 서쪽 바다 건너 진국으로 보내 학문을 익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꺼낸 것은 국화주 한 동이가 절반이나 비워졌을 때였다.

“원대인, 아드님을 진국으로 유학을 보내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곤무갑이 느닷없는 소리를 했다.

“우리 량이를 말입니까?”

“비록 여러 제국으로 나뉘어 있기는 해도 진국은 큰 나라입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젊은 스님들이 진국을 찾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큰 나라의 넓은 문물을 배우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곤무갑의 말에 원훈장이 고개를 내저었다.

“량은 이제 겨우 돌을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걸음마를 시작하여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에서 사랑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학동들에게 학채를 받아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는 처지에 꿈도 못 꿀 일이지요.”

원훈장이 고개를 내젓자 곤무갑이 정색을 했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 때문이라면 내가 부담해 주겠소.”

“아닙니다. 곤대인의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원훈장이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

“알겠습니다. 원훈장님의 자제가 신동이라는 말에 내가 너무 앞서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곤무갑은 더 이상 량이를 놓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 가끔 원훈장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만큼 양식을 보내올 뿐이었다.

량은 무럭무럭 잘 자라 주었다. 키가 자라는 만큼 학문의 깊이 또한 커갔다. 량의 나이 여섯 살이 넘었을 때에는 사서삼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을만큼 되었다. 그때부터 원훈장은 학동들의 글공부를 량에게 맡기고 나들이를 하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였다.

량의 나이 일곱 살이 되던 여름이었다.

학동들의 저녁 글공부를 마치고 안채로 건너오던 량이 마당 가운데서 비틀거리다가는 그대로 쓰러지면서 정신줄을 놓아 버렸다. 원훈장이 안아다가 눕혀놓고 보니, 온 몸이 불덩이었다.

원훈장이 이씨부인을 시켜 열을 내려주는 약재를 달여 먹이게 했으나, 날이 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꼬박 사흘을 앓고 난 다음날이었다.

원훈장이 사랑에서 학동들에게 아침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씨 부인이 마루 끝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서방님, 만득이가, 만득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서 올라와 보세요.”

“만득이가 눈을 떴어요?”

원훈장이 허겁지겁 안채로 달려 올라갔다.

먼저 이마를 짚어 열을 쟈 다음에 물었다.

“만득아, 고통스럽지는 않느냐?”

“견딜만합니다, 아버지. 하온데...”

량이 원훈장을 올려다 보았다. 순간 원훈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량의 두 눈은 온통 흰자위 뿐이었다. 검은빛도 없었고, 늘 반짝이던 눈동자도 보이지 않았다.

“헌데, 무엇이냐?”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득아, 아버지가 안 보이다니, 그게 먼 소리냐?”

이씨 부인이 량이를 내려다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아버지 어무니뿐만이 아니라, 천정도 안 보이고, 벽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앞을 못보는 봉사가 된 모양입니다.”

“아니다, 아니야. 네가 봉사가 되다니,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다.”

이씨 부인이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울음을 섞어 큰소리를 내질렀지만, 량의 두 눈에 검은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원훈장과 이씨 부인이 량이를 업고 섬진강 삼다리를 건너 대방(남원의 옛이름)에서 가장 크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지만, 침 한 방으로 죽을 사람을 술하게 살려냈다는 의원영감은 량이를 보자마자 고개부터 내저었다.

“열병을 앓았구만. 열병으로 눈이 먼 봉사는 화타가 와도 고칠 수가 없소. 이 아이에게는 놓아줄 침도 없고, 지어줄 약도 없소.”

그날 섬진강 삼다리를 건너오면서 이씨 부인이 말했다.

“서방님, 우리 셋이 여기서 빠져 죽읍시다. 만득이가, 하나 밖에 없는 우리 아들 만득이가 봉사가 되었는데, 살아서 무엇합니까?”

이씨 부인이 금방이라도 물에 뛰어들 듯 재촉하자 량이 말했다.

“어무니, 전 안 죽을래요.”

“안 죽어?”

“예, 죽기 싫습니다.”

“만득아, 네가 봉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꽃이 피어도 꽃을 볼 수가 없고, 천마산에 단풍이 들어도 너는 알록달록 예쁜 모습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죽는 것 보다는 사는 것이 나을 거예요. 어무니 아버지가 앞 못 보는 저를 돌보시느라 고생은 되시겠지요. 허지만 차차 나아질 거예요. 전 살래요.”

량이의 다부진 말에 원훈장이 결단을 내렸다.

“부인, 만득이의 말이 옳소. 우리 살아 봅시다.”

원훈장의 말에 이씨부인이 대꾸했다.

“만득이가 살자면 살아야지요. 만득아, 앞을 못 본다고 아무 걱정 말 거라. 이 어미가 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어주마.”

“예, 어무니. 헌데, 앞으로는 량이라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냐, 그러마.”

이씨 부인이 억지로 조금 웃음빛을 보였다.

원훈장의 산동 아들 량이가 봉사가 되었다는 소문은 사흘이 못 되어 섬진강 인근의 마을로 번져 나갔다.

“원훈장의 아들이 눈 뜬 봉사가 되었다는구먼.”

“하늘도 무심하시구먼. 기왕 신동으로 점지했으면 끝까지 신동으로 살게 했어야지. 대방자사어른께서 사위를 삼으려고 탐을 내고 있었는데, 자사사위는 물 건너갔구먼.”

“자사어른께 봉사 사위가 당키나 한 일인가?”

“어디, 자사어른 뿐인가? 대방주의 행세께나 한다는 딸을 가진 부모 들치고 량이를 욕심 안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구먼.”

“그것이 다 먼 소용인가?”

사람들이 두셋만 모이면 송정마을 원훈장네 집을 흠뻑거리며 입방아를 찧었다.

대국으로 칠 한 배를 싣고 갔던 곤무갑이 돌아온 것은 량이 앞을 못 보게 된 반 년만이였다.

“이 무슨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원대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습니까?”

“이젠 괜찮습니다. 량이가 요즘은 학동들을 가르치기도 한답니다. 제 어미의 도움이 없어도 측간출입도 잘 하고 가끔은 강가에 나가 강물 속의 고기들과 얘기를 나누다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다행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때 내가 권한대로 아드님을 진국으로 보냈으면 지독한 열병을 앓지 않아도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량이의 운명이라면 진국에 갔던들 그걸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원대인은 운명을 믿으시는군요.”

“내 마음이 편키 위해섭니다.”

“그러시겠지요. 사실은 이번 귀국길에 심대인을 만나 량이 도련님 얘기를 나누었지요. 바다 동쪽의 백제국 대방주 곡나(곡성의 옛 이름) 땅에 량이라는 신동이 있습니다, 하고 여쭙었더니, 금방 관심을 가지십니다.”

“심대인이라면?”

“한자가 심곡이신데, 절강성에서 제일가는 부자시지요. 또한 진나라 제후국인 회계국의 제후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송정마을 뒷산과 강 건너 천마산에서 채굴한 금이며 철도 모두 심대인의 것이지요. 나는 다만 그분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러시군요. 나는 금이며 철이 모두 곤대인의 몫인 줄 알았습니다.”
“심대인이 그러시더군요. 다음 귀국길에는 세상 유람삼아 량이 도련님을 모시고 오라구요. 심대인이 원래 사람욕심이 많습니다. 관운장의 어깨뼈에서 침 하나로 화살촉을 빼냈던, 해부술로 일가를 이룬 화타라는 의원도 심대인의 도움으로 그리된 것이지요. 심대인의 상단은 동서남북 나라들마다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상단이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묻는 말씀이 ‘이번 원행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였지요. 이리이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고 아뢰면 ‘수만금이 들어도 좋으니까, 그 사람을 진국으로 데리고 오너라’ 하고 사람을 모았지요.”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는요?”

원훈장이 흥미를 가지고 물었다.

“그냥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만 합니다. 장차 나라나 자신을 위해 어디에 쓰겠다는 요량도 없이 말입니다. 량이 도련님 얘기를 들으시고는 ‘장차 백제국에서 또 한 명의 공자님이 나시

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라고요? 논어를 지은?”

“그 공자가 맞기는 합니다만, 논어는 공자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공자가 했던 말을 제자들이 받아 적어 놓았다가 편찬한 책이지요. 심대인은 공자가 태어난 곡부 땅에 공자촌을 만들어 공자를 추종하는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 학문에 전념하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량이 도련님이 진국에 갔더라면 아마 곡부의 공자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심대인은 대단한 분이시군요.”

“언젠가 백제국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모셔야겠지요. 심대인이라면 량이 도련님의 눈을 고칠 의원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돌아가는 배편에 량이 도련님의 눈 먼 처지를 알리고, 의원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곤무감의 말에 원훈장이 정말입니까? 하고 반색을 했다.

그러나 철을 싣고 떠났던 배가 석달 후에 돌아오면서 의원을 싣고 오지는 못했다.

심대인의 전갈이라면서 ‘진국의 제후국을 다 뒤져보아도 열병으로 먼 눈을 고칠 의원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눈이 먼 것을 빼놓고는 량이의 일상은 눈 뜬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원훈장을 대신하여 훈장노릇도 잘 했고, 몸이 건강하여 철따라 찾아오는 고삿에도 걸리지 않았다.

나이 열다섯이 넘어섰을 때 이씨 부인이 량이의 짝을 찾기 위하여 청

실홍실 연분을 잘 맺어준다는 중매쟁이를 만나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다.

“제발 우리 량이의 짝을 좀 찾아주세요. 량이의 짝만 찾아주면 내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잊지 않으리다.”

그러나 부탁을 받은 중매쟁이들마다 고개를 외로 끄었다. 눈앞에서는 예, 예, 하며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돌아서면 콧방귀를 끼면서 혼잣말을 했다.

‘눈 먼 봉사한테 어떤 정신 나간 처자가 시집을 오겠냐구? 눈이라도 여나쁜 마지기 독 떼어 주면 내 한 몸 희생하여 가족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처자가 있을까? 서발 막대기 휘저어 보아야 걸거칠 것 하나 없는 살림살이에 어느 부모가 딸을 준다고 나서며 시집을 가겠다고 나서는 처자가 있겠느냐구?’

아들을 장가 들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 이씨 부인에게 하루는 량이 말했다.

“어무니, 제 짝은 제가 찾을 테니까 마음앓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암수로 구별되고 암과 수는 모두 짝이 있다고 했어요.”

“네 말이 옳기는 하다만 어떤 처자가 선뜻 나서겠느냐?”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짝은 제가 찾아낼 테니까요.”

량은 자신있게 말했지만, 이씨 부인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갔다.

량이 열일곱 살이 되던 오 월 초나흘 날 밤이었다. 섬진강을 가로지른 삽다리 밑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 그 꽃을 따겠다

고 납작 엎드려 가슴을 다리 난간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었지만, 닿을 듯 닿을 듯 닿지 않고 짙은 향기만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이었다. 꿈을 깨고 나서도 량의 코끝에서는 연꽃향이 땀을 뼉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량이 이씨 부인에게 말했다.

“어무니, 오늘 청계동에 다녀오겠습니다.”

“청계동에는 왜? 청계동이 신선이 살만큼 풍광이 좋다고는 하지만,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왜 소용이 없습니까?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뚫리는 걸요. 지금쯤은 청계동 골짜기에 온갖 봄꽃이 만발해 있겠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미가 따라가 주랴?”

“아닙니다. 일 년이면 몇 차례나 다녀온 길입니다.”

함께 가주겠다는 어머니의 뜻을 사양하고 량이 길을 나섰다.

이씨 부인한테는 청계동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량이의 머리 속에는 온통 삽다리 아래 강물 위에 피어있던 연꽃 한 송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느린 걸음으로 반나절이나 걸었을까?

량은 문득 코끝을 스쳐가는 연꽃 향기를 맡았다.

‘여기가 섬진강을 건너가는 삽다리구나. 일곱 살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 건너가고 건너왔던 그 삽다리구나. 오늘은 나 혼자서 건너가 볼까?’

량이 몸을 틀어 삽다리 위로 올라섰다.

두려움은 없었다.

다리 중간쯤 아래의 강물 위에 피어있던 연꽃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

우고 있었다.

조심조심 걸어 량이 삽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다시 짙은 연꽃향기가 코끝을 스쳐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연꽃 향기에 취한 량이 비틀거리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내가 이렇게 죽을 모양이구나. 연꽃은 얻지 못하고 향기에 취해 죽는구나.’

잔잔한 물살 위에 떠서 량의 몸이 아래로 흘러갔다.

“서방님, 연꽃향기를 맡지 못하셨나요?”

“맡았었소. 방금 부인의 온몸이 기쁨에 떨 때에 아주 진한 연꽃향기가 풍겼소.”

“그랬어요. 제가 열일곱 살 오월 초나흘날 밤에 맡았던 그 연꽃향기였어요. 연꽃향기에 취해 청계동을 갔다가 물에 빠진 서방님을 만났지요. 삽다리 중간 꿈에 보았던 그 지점에서 서방님이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가 강물에 빠졌지요. 물이 깊은지 낮은지, 물살이 센지 약한지도 따지지 않고 뛰어 들었지요. 서방님과 함께 한참을 흘러가다가 물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서방님이 병긋 웃으며 올려다보았지요. 한 눈에 서방님을 알아보았어요. 송정마을의 눈 먼 신동이라는 것ですよ. 서방님이 ‘참 곱소하시는데, 제 가슴이 어찌나 아리던지요. 제가 모든 것 훌훌 털고 서방님과 함께 송정마을로 온 것은 연꽃향기에 취해 서였어요. 참 곱소, 하는 그 말씀 한 마디에 흘러서 왔어요. 그건 생사가 아니었어요. 꿈이었어요. 꿈꾸듯 왔어요.’

“맞소. 그날 이후 내 삶은 꿈이었소. 사흘 후에 부인의 부모님들이 어찌어찌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지요. 내가 하늘의 상제님이 정해주신 부인의 배필이라고 당차게 부모님을 설득하던 부인을 나는 한날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소.”

량이 정씨부인을 다시 끌어당겼다. 그때까지도 정씨부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부인, 연꽃은 우리 부부에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꽃꿈이 인연이 되어 부인을 만났고, 열세 해 동안 한 번도 꾸지 않았던 연꽃 꿈을 한날 한시에 또 꾸었으니, 연꽃과 우리 부부의 인연은 어디가 끝인 줄을 모르겠소.”

“서방님, 날이 밝으면 우리 대흥암에 가요.”

“대흥암에? 거긴 범룡스님도 안 계신다고 했잖소? 진국을 유람한다고 했잖소?”

“벌써 삼 년이 넘었어요. 어찌면 돌아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시다. 마침 학채로 받은 쌀이 말가웃이나 있으니, 쌀 한 되박 들고 찾아가 보십시다.”

“암자를 깨끗이 소제도 하구요.”

다음날 부부가 목욕재계하고 대흥암을 찾아가자 주지 범룡스님이 활짝 웃으며 반겼다.

“허허, 늘 두 분이서 오시더니, 오늘은 세 분이서 오시는구려.”

“셋이라니요? 저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스님.”

원량이 합장으로 인사하며 물었다.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습니까? 관음보살님께 올릴 공양거리가

없더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관음보살님이요?”

정씨부인이 물었다.

“예, 보살님. 인연이 있어 모셔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욕은 하시고 오셨을 터이니, 가지고 온 쌀로 공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 공양을 올리시고 관음보살님을 친견하시지요.”

“예, 스님.”

정씨부인이 기쁜 마음으로 대꾸하고 공양간으로 들어가 무쇠솥에 정성으로 씻은 쌀을 얹히고 불을 지폈다.

이날따라 불꽃이 연꽃형상으로 피어올랐다.

2. 원홍장의 탄생

공양 한 그릇과 정한수 한 그릇을 제단에 올리고 원량과 나란히 서서 합장으로 삼배를 마친 정씨부인이 고개를 들고 범룡스님이 대국에서 모셔왔다는 관음보살을 올려다 보았다.

순간 정씨부인의 입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아, 관음보살님.’

정씨부인의 느닷없는 탄성에 원량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왜 그러시오? 부인. 슬픔의 탄식은 아니고, 부인이 내뱉은 한숨에는 기쁨이 넘쳐흐르고 있소. 무슨 일이요?”

“서방님, 어젯밤 꿈에 연꽃을 내려주신 부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겠는지요?”

“물론이지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줄곧 내 안에서 어른거리고 있소.”

원량이 ‘귀한 꽃이니까 드린다’면서 연꽃 한 송이를 내밀던

부인을 머릿속에 그리며 대꾸했다.

“그 분이십니다. 서방님과 제가 어젯밤 꿈에 보였던 그 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그렇구려. 오늘 대흥암에서 관음보살님을 뵈려고 그런 꿈을 꾸었던 모양이구려. 내 몸에 지금 연꽃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같은 환희심이 넘쳐흐르고 있소. 어제 밤에 맡았던 연꽃향기가 여기 관음전에서도 맴돌고 있습니다, 그려.”

“저도 그래요. 서방님. 세상이 온통 연꽃천지인 듯 기쁨으로 가득차 있어요. 연꽃 향기도 그대로예요.”

두 사람이 묘사대로 돌아오자 범룡스님이 말했다.

“두 분의 얼굴에 환희심이 가득한 걸 보니, 관음보살님을 제대로 친견하신 모양이군요.”

“그냥 삼배만 드렸습니다. 삼배를 올리고 친견을 하는데, 순간 우리 부부의 온 몸에 환희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처음 뵈는데도 늘상 뵈 오던 분처럼 낯설지가 않았습다.”

“좋은 인연입니다.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범룡스님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 지는 그런 웃음이었다.

범룡스님의 웃음이 관음보살의 웃음을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씨부인이 물었다.

“주지스님, 관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찌 말 몇 마디로 그 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만, 보살님 중의 보살님이시지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써 모두 거두어 가시고, 정성을 다

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만리 밖에서도 달려 와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지요.”

범룡스님의 말에 원량이 말했다.

“한 마디로 세상만사를 다스리는 부처님 중의 부처님이시군요.”

“부처님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도를 닦아 최후에는 부처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관음보살님은 삼라만상의 번뇌와 고통을 거두어 가실 뿐, 관음보살님을 아무리 불러도 관음보살님이 될 수는 없지요.”

“주지스님의 말씀이 어렵기는 해도 어렵듯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외람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관음보살님을 어떻게 모셔오게 되었는지요?”

“인연이었지요. 참 인연이었지요. 소송이 3년 동안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동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요.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지요. 그러다가 진나라 절강성 보타산에서 관음보살님을 만났지요.”

“진나라 절강성 보타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원량이 물었다.

“그래요. 대국의 여러 제후국을 다 돌아다녀도 소송이 찾는 참불 참보살을 만날 수 없어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한 걸음이 그려더군요. 참보살은 보타산 진제사(晉濟寺)에 있는데, 헛것을 찾아 헛 곳을 돌아다닌다며 할을 내리는데 천둥벼락이라도 맞은 듯 뇌리에서 불뚝이 튀더군요. 절강성 보타구라면 소송이 바다를 건너 처음 내린 곳이었지요.”

“하면 대국으로 건너가실 때에 곤대인의 배를 타셨습니까?”

“맞아요. 그 배를 탔었어요. 참부처를 찾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멀리 보이는 보타산은 눈으로만 한번 보고 지나쳤지요. 그런데 실상은 소송이 찾던 참보살이 보타산에 있다는 것은 삼 년간의 고행 끝에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소송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결국은 관음보살님을 찾아냈고, 인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보타구에서 혹시 심국이라는 거상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웬걸요. 나중에야 소송이 타고 간 배가 심대인의 배라는 걸 알았습니다만, 이번에 심대인과도 큰 인연을 맺고 왔습니다. 소송이 모시고 온 관음보살님도 사실은 심대인이 수천금을 들여 조성해 주셨지요.”

“그러셨군요. 심곡대인이라면 어렸을 때 저하고도 인연을 맺을 뻔 하였지요. 철광이며 금광을 책임지고 있는 곤대인이 저를 진나라로 보내려고 주선을 했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심대인이 원처사의 안부를 묻더군요. 마음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다 보며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허언을 하셨군요.”

“허언이라니요? 명색이 불도를 닦는 승려의 입으로 어찌 허언을 지껄이겠습니까? 소송이 심대인에게 말한 원처사 얘기는 원처사를 바라보는 소송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원량이 한 마디 쯤 더하려다가 입을 다물자 정씨부인이 나섰다.

“주지스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법룡스님이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관음전에 피워놓은 향도 대국에서 구해오신 것인가요?”

“왜요?”

“그동안 몇 군데 사찰이며 암자를 찾아다니기는 했지만, 연꽃향은 처음이라서요.”

“연꽃향이라고 했습니까?”

“예, 분명 저희 부부는 방금 관음전에서 연꽃향을 맡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 향은 소송이 향나무와 쭉을 버무려 만든 것입니다. 연꽃향이 날 리가 없습니다.”

법룡스님이 고개를 가웃거리는데, 원량이 말했다.

“이상합니다. 주지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앞을 못 보는지라 냄새로 사물을 판단하고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관음전에서 맡은 향은 분명 연꽃향이었습니다. 제 코가 거짓냄새를 맡을 리가 없습시다.”

“원처사님과 정보살님께서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연꽃에 한껏 취해 계시는군요. 마음 안에 연꽃을 품고 있으면 코는 세상의 모든 꽃에서 연꽃향을 맡게 되지요.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로 보이고, 도둑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둑으로 보인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연꽃을 품은 마음으로 향을 맡았으니, 연꽃향이 날 수밖에요.”

“주지 스님의 말씀이 백번 옳으세요. 주지스님, 저희 부부가 오늘 대홍암을 찾아온 것은 꿈 때문입니다.”

정씨부인이 환희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법룡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꿈이라니요? 혹시 꿈에 연꽃을 만나셨습니까?”

법륜스님이 잔뜩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대답은 원량이 했다.

“어제 오랜만에 연꽃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만이라면 그 전에도 연꽃 꿈을 꾸신 일이 있습니까?”

“열세 해전에 연꽃 꿈을 꾸었습니다. 부인과 제가 연꽃 꿈에 인도한 대로 청계동 아래 섬진강 삼다리를 찾아갔다 물에 빠진 저를 부인이 구해주었지요.”

“연꽃이 맺어준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었군요.”

법륜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씨부인이 말했다.

“그런데 어제밤 오랜만에 연꽃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서방님과 제가 같은 시각에 똑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연꽃에서 나오신 한없이 고귀하고 자비로운 모습의 한 부인이 연꽃 한 송이를 건네주는 꿈이었습니다.”

“꿈에 관음보살님께서 현신하셨군요.”

“맞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어 관음전의 관음보살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아까 부인의 말이 관음전에 모셔진 관음보살님이 저희 부부가 꿈에서 되었던 그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도 관음보살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이미 관음보살님과 늘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관음보살님을 한 번도 뵈지 못한 적은 없었지만, 늘 관음보살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분의 그런 정성 때문에 관음보살님이 현신하셔서 연꽃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두 분이 일주문을 들어오실 때

에 소송이 세 분이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륜스님이 두 사람을 향해 물었다.

“사실은 주지스님의 그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어찌 그리 말씀하셨는지요?”

정씨부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 말씀드린 것이지요. 어젯밤에 두 분은 아주 소중한 인연을 또 하나 맺으셨습니다. 정보살님의 태 안에 한 생명이 안착을 하였습니다. 관음보살님의 은덕이라 여기시고 몸가짐을 부디 경건하게 가지시지요.”

“주지스님,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량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열 달 후면 연꽃 같은 한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소송이 그 귀한 생명을 위하여 치성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법륜스님이 원량 부부를 향해 합장을 했다.

부부가 합장을 하고 세 번 허리를 조아렸다.

환희심에 젖어 사는 나날이었다.

꽃이 피면 꽃이 피어서 즐겁고, 새가 울면 새가 울어서 즐거웠다. 바람이 불어도 즐거웠고, 비가 내려도 즐거웠다.

정씨부인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만큼 원량의 즐거움 또한 쑥쑥 커 갔다. 세상은 기쁨으로 충만 되어 있었다.

섬진강가에 나가면 물속의 고기들한테 자랑을 했다.

“피라미야, 내가 열 달 후면 아버지가 된단다.”

집 앞 감나무에서 까치가 울면 까치에게 자랑을 했다.

“까치야, 너도 알고 있겠지? 아홉 달 후면 내가 아버지가 된단다.”

원량의 그 모습에 정씨부인이 호호호 웃었다.

“서방님도 참, 그기도 좋으십니까?”

“종구말구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자도 머릿속이 청명하오. 고맙소. 고맙소, 부인. 눈 뜬 봉사한테 시집을 와 준 것도 고맙고, 내 손발이 되어 주고, 내 눈이 되어주어 고맙소. 내 부인의 은혜는 죽어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으리다.”

“그런 말씀 마시어요. 우리 부부는 관음보살님이 맺어주셨다고 하잖아요. 대홍암 범룡스님께서 우리한테 연꽃을 내려주신 분이 관음보살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부인 말씀이 옳소. 부디, 몸가짐에 더욱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이를 말씀입니까? 그 전에도 그랬지만 텃 속에 아이를 심고 나서는 더욱 조심하고 있습니다. 꺾은 것은 보지 않고, 내가 남을 헐뜯는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남을 헐뜯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꽃을 만나면 내 눈을 기쁘게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새가 노래를 부르면 내 귀를 즐겁게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지요. 따지고 보면 세상천지에 고맙지 않은 것이 어딴겠어요?”

“나도 그렇소. 부인만큼 나도 세상의 모든 것이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요.”

원량이 정씨부인의 손을 덥씩 잡으며 고맙고 기쁜 마음을 털어놓았다.

“서방님, 아기가 우리 둘이 나누는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방금

발길질을 했어요.”

“아프지는 않았소?”

“아니요. 아기가 기척을 낼 때면 제 몸에는 한없는 기쁨이 흘러가는 걸요.”

“고맙소. 고맙소, 부인. 그나저나 걱정이구려.”

원량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무엇이 걱정이란 말씀이세요?”

“출산날이 다가오는데, 미역 한 가닥을 살 수가 없구려. 명색이 서방이면서 부인을 위해 미역 한 가닥도 살 수가 없구려. 부인이 해산할 때 출산을 도울 산파는 이웃 마을 노파한테 단단히 부탁을 해놓았소만, 수중에 미역을 살만한 재물이 없구려.”

문득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진 원량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다.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정씨부인이 말했다.

“서방님이 눈물을 흘리시면 아기가 슬퍼해요. 세상에는 너무 가난하여 미역국 한 그릇 못 먹는 산모도 많을 거예요. 아파하지 말아요. 저한테는 서방님만 계시면 돼요.”

정씨부인도 마음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다.

미역 한 가닥도 살 수 없는 가난이 아팠고, 그 가난을 아파하는 서방님 때문에 더 아팠다. 저절로 목소리에 울음이 담겼다.

“울지 말아요, 서방님.”

“울지 마시오, 부인.”

부부가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였다.

문밖에서 목탁소리가 들렸다.

“어느 암자의 스님께서 탁발을 나오신 모양입니다. 스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정씨부인이 원량의 품에서 벗어나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 말씀을 올리리다. 우리 처지를 아시면 스님께서도 섭섭해 하지는 않으시리다.”

그렇게 정씨부인을 위로한 원량이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말했다.

“어느 절에서 오신 스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쌀 한 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는 죄송하고 스님께는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원량이 한없이 슬픈 목소리로 말하는데, 정씨부인이 나섰다.

“서방님, 그러시지 말고 우리 부부 먹으려고 삶아놓은 고구마라도 내어 드리세요. 마침 점심공양 때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물기를 머금은 정씨부인의 말에 스님이 허허허 웃었다.

“허허허, 원처사님과 정보살님께서 이리실 줄 알고 소송이 왔습니다. 관음보살님은 열심히 부르셨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원량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스님께서서는 대홍암의 법륜 주지스님이 아니십니까? 저희 부부가 초하루 보름마다 찾아가도 안 계시더니,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 방은 비좁고 갑갑하니, 마루 끝에라도 앉으시지요.”

“소송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세상을 훨훨 떠돌다가 어제 왔습니다. 관음보살님의 몸에서 광채가 흐르길래 두 분이 다녀가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마음으로만 공양을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원량의 말에 법륜스님이 고개를 내저었다.

“쌀로 지은 밥만이 공양이 되겠습니까? 어제 밤늦게 돌아와 관음전에 촛불을 켜더니, 그 분 앞에 말라비틀어진 산딸기 몇 알이 접시 위에 놓여있더군요. 두 분이 관음보살님께 올린 공양이라는 걸 알았지요.”

“제 부인이 대홍암에 찾아갈 때면 빈손으로 갈 수 없다며 앵두가 나는 철이면 앵두를, 산딸기가 나는 철이면 산딸기를 따다가 관음보살님께 올렸습니다.”

원량이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울컥 치솟았지만 사실대로 털어 놓았다.

“그만큼 귀한 공양이 어땠겠습니까? 공양은 정성입니다. 관음보살님께서도 환희심에 젖어 맛있게 접수셨을 것입니다. 허니, 조금도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말끝에 법륜스님이 제법 큼지막한 보따리를 방문 앞으로 밀어놓았다.

“웬 미역인지요?”

한눈에 미역인 것을 알아 본 정씨부인이 물었다.

“미역이라니요? 부인.”

코끝을 스쳐가는 짹짹한 갯내음에 스님이 자반고등어라도 사 오신 것인가? 짐작하던 원량이 코를 훌쩍 거렸다.

“법륜스님께서 미역을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송구스러울 수가...안 그래도 제 부인이 해산을 코앞에 두고 미역 한 가닥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원량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몇 차례나 허리를 조아렸다.

“소승이 준비한 미역이 아닙니다.”

법륜스님의 말에 정씨부인이 물었다.

“하오면 누가 이 귀한 미역을 주셨단 말씀인지요? 어림잡아도 한 뭇은 넘을 것 같은 이 많은 미역을 누가 주셨단 말씀입니까?”

“곤대인입니다. 돌아오는 길의 바닷길이 험하여 어떤 섬에서 사흘을 머물다 왔는데, 섬사람들이 갯바위에서 자라난 미역을 뜯어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한 뭇을 샅다. 처음에는 곤대인이 미역국을 좋아하는 모양이라 여기고 무심하였지요. 배가 배정마을 포구에 정박하고 나서야 소승한테 미역을 건네주며 부탁을 합디다. 원처사네 정씨부인이 곧 출산을 할 것인데, 미역국을 끓일 형편도 안 될 것이라면서 전해주라고 합디다. 소승이 원래 진국에서 들어와 우리 백제의 금이며 철을 캐가는 곤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디다만, 미역은 고맙게 받아 왔지요.”

“이리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종종 찾아오던 곤대인이 발걸음을 끊어 철을 싣고 진국에 갔는가 짐작만 하고 있었지요. 이번에도 보타구의 심대인을 뵈었습니까?”

“뵈기는 했습니다만, 뒤틀이 안 좋았습니다.”

법륜스님이 대꾸했다.

“뒤틀이 안 좋았다니요? 대홍암에 관음보살님을 시주하신 분이 아닙니까?”

원량이 물었다.

“관음보살님을 시주하는 선한 심대인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이지 됩니까?”

“악인이요?”

“아, 글썽 심대인의 상단에서 부리는 상선에서 수시로 인신공양이 벌어졌다지 뭐겠습니까?”

“인신공양이라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까?”

정씨부인이 진저리를 치며 물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심대인의 상단이 바다를 건너 먼 나라로 장사를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다의 용왕님께 바칠 처녀를 사들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바닷길이 순탄하여 인신공양을 하지 않으면 제물로 사갔던 처녀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기도 하고, 부갓집의 첩으로 팔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대인에게 장사도 좋지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은 그만두라고 했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더군요. 진국을 떠나올 때에 백제국으로 돌아간다고 인사를 해도 얼굴도 내밀지 않더군요.”

“많이 섬섭하셨겠습니까?”

원량의 말에 법륜스님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서해바다를 건너오면서 일천 척 깊이의 바다 속에 떨구고 왔습니다. 사실 공양 중에서도 사람공양만큼 큰 공양도 없습니다. 두 분도 목숨이 위태로운 부모님을 위하여 손가락을 잘라 목에 피를 흘려 삼키게 하여 목숨을 살려냈다는 효자의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평생 고깃국 한번 못 끓여 드린 것이 한이 된 아들이 허벅지 살을 잘라 고기국을 끓여 부모님께 드렸다는 얘기도 들으셨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인신공양이 아니겠습니까?”

“주지스님께서서는 인신공양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

니시군요?”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허나 심대인의 인신공양은 오직 자신의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인신공양이었습니다. 두 분은 혹시 외아들을 병든 노모에게 바친 효자효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범룡스님이 물었다.

원량이 대답했다.

“제가 어렸을 때 훈장으로 계시던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효 가운데 가장 큰 효는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효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들려 주셨어요.”

정씨부인의 말을 원량이 이어갔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 어떤 부부에게 늦게 둔 외동아들이 있었다지요. 노모께 효성이 지극했던 부부는 아들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컸겠지요. 헌데 어느 날 노모가 천하의 명의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던 가요?”

원량의 말을 정씨부인이 받아 풀어 나갔다.

“부부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늙은 스님이 한숨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한다는 말씀이 '노모를 살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행할 수 있겠소?' 하고 묻더랍니다.”

“노모를 살릴 길이 있다는데 자식이 어찌 외면을 하겠소. 부부가 한 목소리로 알려만 주십시오.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우리 부부 몸을 익혀 잡수시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겠습시다'고 하였다지요.”

원량 부부의 얘기를 웃으며 듣고 있던 범룡스님이 나머지를 이어 갔다.

“고승이 말하였답니다. 당신 부부의 외동아들을 가마솥에 삶아 그 국 물을 사흘간만 드시게 하면 노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으리다. 병이 낫다 뿐이겠소, 백세 장수를 하실 것이요,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날 밤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도란도란 속삭이기를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늙으신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 고승이 말씀하신대로 합시다' 하고는 다음날 외동아들이 서당에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번쩍 안아다가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자 어머니가 얼른 뚜껑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책보를 옆구리에 낀 외동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서당에 잘 댕겨왔습니다' 하면서 사립을 들어서지 않습니까? 놀란 부부가 얼른 솥뚜껑을 열자 솥 안에는 어린 아이를 닮은 큼지막한 동자삼 한 뿌리가 있었다지요.”

“하늘의 삼신상제님께서 부부의 효심을 시험하였던 거지요.”

정씨부인의 말에 원량이 마무리를 지었다.

“아닐 것이요. 부부의 지극정성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던 것이 아니겠소? 그 효심을 알고 하늘이 동자삼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효야말로 인간행실의 근본이 아니겠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을 것이며, 나 잘 살자고 남을 못 살게 구는 일도 없을 것이요. 참인간의 참삶의 시작은 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원량의 말에 범룡스님이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지었다.

“오늘 두 분은 곧 태어날 새 생명에게 인간의 근본행실인 효를 가르

치고 있군요. 틀림없이 하늘을 감동시킬 효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법륜스님의 말에 원량이 물었다.

“효자가 아니고 효녀입니까?”

“관음보살님께서 점지해 주셨다고 했잖습니까? 구태여 성별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기어코 따진다면 관음보살님은 여성입니다. 또한 연꽃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내아이면 어떻고 계집아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 심성 곱게 자라만 준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량의 말에 정씨부인이 얼굴을 붉힌 채 웃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건장한 사내 하나가 지계에 무엇인가 잔뜩 지고 대문을 들어섰다.

마루 끝에 지계를 세워놓고 지고 온 물건을 마루 위에 내려놓은 사내가 말했다.

“곤대인께서 보내주신 쌀 한 가마니와 몇 가지의 마른 생선입니다.”

정씨부인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쳤다.

“곤대인께는 늘 신세를 집니다.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인께서 이번에 절강성에서 가장 맛있는 홍주를 몇 단지 가져 오셨습니다. 원대인께서 시간이 되시면 들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요. 고맙다는 인사도할 겸 수 일내로 들르겠다고 말씀 올려 주십시오.”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곤대인께서 부인의 순산을 빈다고 하셨습

니다.”

“그 더욱 고마운 말씀이군요.”

진심으로 고마운 원량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세 번 허리를 조아렸다.

곤대인의 심부름을 온 사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이었다.

법륜스님이 말했다.

“소승이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 아기의 이름을요?”

부부가 한 입으로 물었다.

“그제 밤이었습니다. 물결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관음보살님께서 현신하여‘홍장아, 홍장아, 홍장아’하고 세 번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 계집아이가 나타나 관음보살님께 삼배를 올리고 홀연히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정보살님께서 어젯밤 소승의 꿈에 현신하였던 관음보살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려.”

“부끄럽습니다, 스님. 하오면 우리 아기의 이름은 홍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은 곧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관음보살 같은 아기를 두시게 될 것입니다.”

법륜스님이 한 마디 쯤 더 하려다가 입을 꼭 다물었다.

“부인,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려. 쌀을 한 말 쯤 털어 주시느님께 시주를 하면 어떻겠소?”

“어쩌면 서방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네요.”

“아닙니다. 두 분을 위하여 곤대인이 적선한 것을 소승이 어찌 축을

내겠습니까? 소송의 먹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출산 준비나 잘 하세요. 하면 소송은 물러갑니다.”

법륵스님이 함장으로 인사하고 바람처럼 사립을 나간 다음이었다.

“부인, 내 평생에 집안에 쌀 한 가마니를 들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먹지 않아도 며칠간은 배가 불룩하겠소.”

“어찌 우리만 먹을 수 있겠어요. 저 말고도 송정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도 출산을 앞둔 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가 가난한 집이에요. 모르면 몰라도 그런 집에서도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거예요.”

“쌀과 미역을 골고루 나누어 주자는 말씀이지요? 부인.”

“그래야 제가 편한 마음으로 미역국에 쌀밥을 말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시다. 부인 말씀대로 내가 쌀과 미역을 출산을 앞둔 집에 골고루 나누어 주고 오겠소.”

“똥은 제가 지워드릴게요. 한 집에 쌀 두어 되박과 미역 한 가닥이면 될 거예요.”

정씨부인이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원량이 출산이 가까운 임산부가 있는 스무 나쁜 집을 더듬더듬 찾아다니며 두어 되박 쌀과 한 가닥의 미역을 나누어 주는 데는 꼬박 이레가 걸렸다.

그리고 그날 밤 부부가 저녁을 막 먹고 냇을 때 정씨부인에게 첫 진통이 왔다.

“서방님, 아기가 나오려는가 봐요. 출산을 돕는 산파할머니를 모셔왔

으면 좋겠어요.”

정씨부인이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끄꿍 앓았다.

“알겠소. 내 핏 다녀오리다.”

원량이 서둘러 사립을 나와 먼저 이웃집으로 갔다.

“서운엄니, 마누라가 출산을 할 모양입니다. 나는 산파할머니를 모시고 올 터이니, 서운 엄니가 들여다보아 주시겠습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아니, 제가 산파할머니를 모시고 올 터이니, 훈장님은 부인 곁을 지키시지요.”

“내가 집에 있어봐야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물은 넉넉하게 길어다 놓았으니, 가마솥에 물도 끓여 주시고, 방안에 치울 것도 많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일랑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이제 첫 진통이 시작되었으면 시간이 술잔히 걸릴 것이니, 조심조심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서운엄니.”

“이웃 간에 정이지요. 다섯 해 전이던가? 제가 서방님도 없이 유복녀 서운이를 출산을 할 때에 아줌니께서 정성으로 도와주었지요.”

서운엄니가 활짝 웃으며 먼저 서두르고 나왔다.

“참 좋은 이웃이야.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은 정리를 어찌 가볍다 하겠는가?”

원량이 증얼거리며 더듬더듬 이웃 마을의 산파노파를 찾아갔다.

“허, 방금 배정마을 대실택네 집에서 아기를 받고 막 돌아와 손을 씻었는데, 이번에는 원훈장님이 오신 것을 보니, 그 맥에서도 출산이 급한 모양이구려. 가십시오.”

산파노파가 앞장을 섰다.

그런데 산파노파의 걸음이 어지간한 사내들보다 빨랐다. 미처 따라가지 못한 원량이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할무이.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요.”

“훈장님은 천천히 오시오. 출산 방에서 사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소? 토방 아래 서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일밖에 더 있소?”

마주 고향을 지른 산파노파가 달리기라도 하는지 발소리가 이내 잦아졌다.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조급함에 걸음을 서둘렀지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허둥거리졌다. 몇 걸음을 걸으면 개똥이네 집이 나오고, 개똥이네 집의 담벼락 끝에서 왼 쪽으로 틀어 몇 걸음을 더 걸으면 쇠똥이네 집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모든 길을 훤히 꿰고 있는데도, 몸이 담벼락에 부딪치고, 발끝은 돌부리를 찼다.

더듬더듬 헤매다가 원량이 막 사립을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방금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왔구나. 관음보살님께서 점지해 주신 연꽃 같은 내 새끼가 나왔구나.”

원량의 몸이 스르르 내려앉는데 산파노파가 안방에서 나왔다.

“원훈장님, 첫 딸은 살림밋천이라고 했으니, 딸이라고 섭섭해 마시오. 달덩이 같은 공주님이요.”

“부인은, 제 부인은 괜찮습니까?”

“괜찮기는 하오만, 하혈이 심했소.”

“무슨 말씀이세요? 하혈이라니요?”

“아, 출산하면서 피 안 흘리는 여자가 있답디까? 다행히 하혈이 멈추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서운어매, 갓난아기는 잘 씻어 지어미 곁에 누어주고, 기운을 차리면 먹을 수 있게 미역국도 끓여놓고 밥도 두어 그릇 해놓고 가소. 나는 이만 가볼라네.”

“염려 말고 가지지요. 우선 방부터 치우고 미역국도 끓이고, 밥도 안 치겠소.”

서운어매의 대꾸에 원량이 말했다.

“서운 엄니, 내 손으로 첫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해 먹이고 싶소. 불이라도 내가 지필 것이니, 솔에다 안쳐만 주시오.”

“두 분의 부부금슬을 누가 말린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준비를 해줄 것이니, 불일량은 훈장님이 때세요.”

서운 엄니가 방을 깨끗이 치우고 돌아갈 때 쯤 밥은 뜸이 돌고 미역국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맛있게 끓었다.

원량이 쌀밥 한 그릇에 미역국 한 사발이 놓인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몸을 일으켜 앉아 갓난아기를 내려다보고 있던 정씨부인이 입을 열었다.

“서방님, 아기가, 우리 아기가 참 예뻐요. 피어나기 전의 연꽃봉오리 같아요.”

“그렇소? 부인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 아기의 얼굴이 환희 그려지는 구려. 애쓰셨소. 내게 이런 보물을 안겨주다니, 기쁨을 안겨주다니, 고맙고 또 고맙소. 우선 이 걸 좀 드시오. 이 녀석을 낳느라 저녁 먹은 것은 벌써 다 꺼졌겠소.”

“예, 서방님. 미역국냄새가, 하얀 쌀밥이 너무 향기로워요. 냄새를 맡

으니, 갑자기 허기가 지는군요.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씨부인이 밥상을 끌어다 놓고 말했다.

“서방님도 함께 드세요.”

“내가 출산을 했소?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드시오.”

“예, 서방님.”

정씨부인이 손가락질 하는 소리를 기쁜 마음으로 들으며 원량이 말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에게 갚지 못할 신세를 졌소. 산파할머니도 고맙고, 서운엄니한테도 고맙소.”

“서방님 말씀이 옳아요. 삼칠일이나 지나고 기운을 차리고 나면 일일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곧대인께는 서방님이 인사를 하세요.”

“그러리다. 그렇게 하리다. 진국에서 가져온 홍주가 세 단지나 있다고 하니, 홍주도 마실겸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리다.”

쌀밥 한 그릇에 미역국 한 사발을 맛있게 먹고 난 정씨부인이 말했다.

“제 생전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방님, 밥상은 마루에 내놓아 주시겠어요? 날이 밝으면 제가 치우겠습니다. 우리 아기에 게 젓을 먹여야하는데, 배가 부르니 잠이 오는군요. 한 숨 자고나서 젓을 먹여야겠습니다.”

“그러시구려. 어서 한 숨 주무시구려.”

“서방님께서도 편히 주무세요.”

정씨부인이 자리에 눕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원량이 빈 밥상을 마루에 내놓고 돌아왔는데, 벌써 잠이 들었는지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 리 길을 걸어가 산파를 데려 오고 마음을 졸인 것이 피곤했던지 원량의 입에서도 하품이 쏟아져 나왔다.

“부인, 편히 주무시오. 아가야, 잘 자거라. 새는 날 만나자.”

원량이 홍장을 사이에 두고 정씨부인의 반대편에 몸을 눕히자 잠이 쏟아져 내렸다.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눈앞에서 갑자기 빨간 동백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핏빛의 동백꽃이 무더기로 피어나고 있었다.

‘삼월도 아닌데 무슨 동백이 저리 필까?’

원량이 중얼거릴 때였다.

붉은 동백꽃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떨어진 동백꽃이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깝구나. 이 아까운 꽃을 어이할지나.’

원량이 동백꽃 한 송이를 들고 중얼거릴 때였다. 어디선가 피꼬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뚝뚝 떨어져 내린 동백꽃 때문일까? 피꼬리 울음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귀청을 때렸다.

‘피꼬리야, 너도 꽃이 지는 것이 슬픈 모양이구나. 허나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올해 꽃은 지지만 내년에 꽃은 또 핀단다.’

원량이 다시 중얼거리는데, 피꼬리가 그약스레 울어댔다.

순간 원량은 잠에서 깨어났다.

울고 있는 것은 피꼬리가 아니었다. 갓 태어난 아기 홍장이었다.

“부인, 우리 홍장이 울고 있잖소? 배가 고프 모양이구려. 젓을 먹여

달래시오. 아직 첫 젖도 안 먹었잖소? 어서 깨어나 젖을 먹이시오.”

원량이 나지막이 말했지만 반대편의 정씨부인은 기척이 없었다. 평상시에 원량이 몸만 뒤척여도 깨어 일어나 측간에 가고 싶소? 아니면 자리끼가 필요한가요? 하고 다정스레 묻던 정씨부인이 곁에서 아기 흥장이 울고 있는데도 기척이 없었다.

“부인, 부인.”

원량이 엉금엉금 기어 정씨부인 곁으로 갔다.

그 순간이었다.

손에 끈적끈적한 물기가 만져졌다. 아니, 비릿한 피비린내가 먼저 콧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순간 원량의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서둘러 손도 잡아 보고, 얼굴도 만져 보았지만 정씨부인의 몸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잡으면 따뜻했던 정씨부인의 손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부인, 부인. 어째 이러시오? 어서 눈을 떠보란 말이요.”

원량이 외치는 비명이 문풍지를 흔들고 마당으로 빠져 나갔다.

그때 멀리서 첫 닭이 울었다.

3. 어린 효녀

사십구재를 마치고도 피쁘리 같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홍장(洪莊)을 범룡스님이 온화한 눈빛으로 달랬다.

“홍장아, 그만큼 울었으면 자식으로 네가 울만큼은 실컷 울었나라. 그만 울거라. 네가 울면 저승 문에 들지 못한 네 어머니가 구천을 헤매게 된다.”

그러자 마치 범룡스님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홍장이 울음을 그치고 끄꼭 딸꾹질을 했다.

“그래, 홍장아. 너나 나나 울어서 네 어머니가 살아오신다면 내 눈물이 섬진강이 되어 흐르도록 울겠다면 다 부질없는 짓이 아니더냐? 울지 말고 살자. 서로 간에 눈물은 보이지 말자.”

원량이 홍장을 다독이며 범룡스님을 따라 요사채의 주지방으로 들어갔다.

“에쓰셨습니다, 스님. 한량없이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애통한 마음

에 스님께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지요.”

홍장을 가슴에 안은 채 원량이 두 손을 합장하여 허리를 굽혔다.

“소승, 원처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이 마주 합장을 했다.

다른 일이 아니었다.

정씨부인이 숨을 거둔 것을 알고 원량이 부인, 부인하고 뇌성벽력 같은 울음을 터뜨릴 때였다. 그 소리가 미처 사립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마루 끝에서 목탁 치는 소리가 들렸다. 원량이 부르르 마루로 기어나가 목탁 임자의 멍살을 휘어잡았다.

“이 놈아, 이 중놈아. 뭐 내 부인과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치성을 드리겠다고? 내 부인을 살려 내거라. 내 부인을 살려 내거라.”

원량이 고래고래 악을 썼다.

깊은 잠 속에 빠져있던 이웃집의 서운어미가 놀라 깨어 달려왔다.

“아이구, 보살님. 잘 오셨습니다. 원처사 좀 말려주시오. 자칫하면 죄 없는 중놈 하나 숨이 막혀 죽겠소이다.”

법륜스님이 막힌 숨을 뚫느라 껌껌거리며 사정을 했다.

“이러지 마세요, 훈장님. 스님이 무슨 죄가 있답니까? 정말 아기 엄니가 잘못 되었습니까? 어제 분명 하혈도 멈추고 혈색도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갓난 홍장이 울어대도 기척이 없길래 손을 잡아보니, 손끝이 서늘하고, 발을 잡아보니, 발끝이 서늘하고 코 밑

에 귀를 대보아도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보살님을 살피나 보십시오.”

법륜스님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원처사, 정보살님께서 관음보살 같은 웃음을 웃고 계시는구려. 정보살님은 천수를 다 하셨습니다.”

“뒤편이요? 부인의 나이 이제 겨우 서른 살입니다. 나이 서른에 죽었는데 천수를 다했다구요?”

“소승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보살님께서 점지 받은 생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타고 난 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웃음 빛이 평안하신 걸로 보아 극락왕생하실 것입니다. 우선은 장례부터 치루어야지요.”

날이 밝자마자 원훈장네 정씨부인이 딸을 낳아놓고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송정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장례를 도왔다. 경황 중에 원량이 챙기지 못한 갓난아기 홍장은 산파노파가 안아다가 젓먹이 갓난아기가 있는 부인들을 찾아가 젓을 먹여 데리고 왔다.

“아이고, 부인. 내 잘못이요 못 먹이고 못 입힌 내 잘못이요 내가 부인을 죽였소. 내가 봉사만 아니었으면, 뒷산 철광에 가서 철이라도 캐서 부인을 잘 먹였으면, 그리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요. 나도 죽을라요. 나도 데리고 가시오, 부인.”

원량이 시도 때도 없이 통곡을 터뜨리면 갓난 홍장이 피꼬리 같은 울음을 따라 울었다. 부녀의 울음에 장례를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부녀간이 부둥켜안고 울음으로 날이 새고 울음으로 날이 저물었다.
날마다 그랬다.
그렇게 사십구일이 지나갔다.

“헌데 스님, 제 부인이 죽던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원량의 말에 범룡스님이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상한 꿈이라니요?”

“철도 아닌데, 동백꽃이 무더기로 피고, 피어난 꽃들이 금방 똑똑 떨어져 내리더군요. 나중에는 붉은 동백꽃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연꽃이 아니라 붉은빛 동백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주지스님.”

원량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백이 지던 그 순간에 정보살께서는 하혈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것을 알리느라 꿈에 동백꽃으로 현신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칭한 이놈은 잠만 킁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원량이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쿡쿡 쥐어 박았다.

“자중자애하시지요. 정씨부인은 누구보다 보살 같은 삶을 살으셨습니다. 원처사님의 동백꽃 꿈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도 동백꽃잎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동백꽃이 아니라 사라쌍수나무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위하여 사라쌍수나무 아래에 누우셨는데, 철이 아닌데도 사

라쌍수나무에 꽃이 피고 이내 눈처럼 내려 부처님의 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고, 새들의 노랫소리에 맞추어 하늘에서 만다라화와 만수사화가 눈처럼 내려 부처님의 몸을 산처럼 덮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행복하게 돌아가셨군요. 참 성자셨군요.”

“정씨부인은 참 보살이셨습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지만, 꽃은 지면서 열매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홍장(洪莊)아기를 열매로 남기셨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거라.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세상의 모든 인연은 결국 허물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원처사님과 정보살님의 인연 또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찌 홍장의 어미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이 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안에 온통 그 사람뿐인데, 어찌 끊어진 인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원량이 조금은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십구일동안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남김없이 쏟으셨으니까, 이제는 홍장 아기를 생각해 서라도 정신 줄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오며가며 보았더니, 홍장 아기가 원처사가 울면 따라 울고, 원처사가 울음을 그치면 따라 그치더이다. 홍장은 효녀가 분명합니다.”

“이제 겨우 일곱이레가 지난 어린 것이 무슨 효를 안다는 말씀입니까?”

“본성이지요, 본성.”

“본성이라구요?”

“예,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어린 생명이라고 어찌 본성이 없겠습니까? 그날, 정보살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홍장아가 우는 소리에 잠을 깬다고 했었지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피꼬리 울음소리 줄만 알았었지요.”

“그날밤 홍장은 어머니의 죽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원량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을 때였다.

공양간에서 사십구제의 뒷정리를 마친 서운 어머니가 치맛자락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주지스님, 정리를 다 마쳤구만요.”

“고맙습니다. 보살님께서 소송한테 큰 공덕을 베풀었습니다.”

“하이고, 공덕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홍장 아버지, 홍장이가 입술을 빠는 것이 배가 곱은 모양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시방 내려가야 쓰겠습니다요.”

“그러십시다. 서운엄니가 내게는 관음보살님이십니다.”

“홍장 아버지도 참, 별말씀을 다 허십니다. 홍장어매가 살아있을 때 이 년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디요. 학채로 쌀말이라도 들어오면 이 년부터 챙겨 주었었지요. 남새밭에서 푸성귀 몇 잎을 따드래도 지나가는

길에 씹싸 목으라고 몇 잎씩 던여주었구만이요. 홍장은 이 년이 안고 갈 것인께 서나서나 내려오시지요.”

서운어미가 홍장을 안고 먼저 일주문을 나갔다.

법룡스님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참, 좋은 인연이야. 아름다운 인연이야. 세상 도처에 넘치는 보살이구나. 관음보살이 대홍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처처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보살은 또 있었다.

원량이 더듬더듬 마을로 돌아오는데,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 둘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아, 이번에는 내 차례란 말이여. 어제는 막례네가 홍장이한테 젖을 먹였으께, 오닐언 내 차례가 아닌가 말이여.”

“차례를 꼭 따질 것이 멋이당가? 내가 본께 섭섭이 어매는 젖이 부족 허드만. 젖 한 통얼 다 빨고도 섭섭이가 배가 털 찻는지 칭얼대드구만. 나년 막례를 먹이고 나서도 젖이 툭툭 붙어 막 흘려 나온당께. 모자란 젖을 먹이는 것 보담언 남는 젖얼 먹이는 것이 안 낫겠는가? 나한테 양 보럴 허소.”

원량이 걸음을 멈추고 두 아낙이 나누는 얘기를 듣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데, 서운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허허, 이 사람들. 그러다가 싸우겼구만. 홍장을 좀 보소. 재미가 있는지 병긱병긱 웃고 있잖혀. 오닐이 끝이 아닌께, 앞으로 일 년언 더 먹여야한께, 다투지덜 말어. 막례엄니 말이 맞아. 남는 젖을 먹이는 것이 옳아.”

서운어미가 가르마를 타 주었는데도 섭섭이네는 여전히 섭섭한 모양

이었다.

“홍장엄니가 나한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소. 미역 한 가닥 살 수 없고, 쌀 한 톨 없는 집에 산후에 묵으라고 미역이며 쌀을 가져다 주는데, 어찌나 고맙든지. 앞도 못 보시는 원훈장님이 더듬더듬 찾아와 ‘우리 부인이 콩 한 쪽도 나뉘야 한다고 그럴디다’ 허심서 마루에 내려놓고 돌아서 나가시는데, 내 가슴이 째해집니다. 홍장 엄니가 세상을 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제일 먼저 현 생각이 먼지 아요?”

섭섭 어미의 물음에 막레 어미가 씩씩 대꾸했다.

“홍장이를 내 젓 먹여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얼 했제?”

“막레 엄니가 내 생각얼 어뜨케 알어? 내 속에 들어와 본 것 멩키로 말어.”

“나도 같은 뱀얼 묵었으께. 아니, 나나 섭섭엄니 뿐만이 아니라 갓난이 키우는 엄니들이 모두 같은 생각일 걸.”

두 아낙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원량이 앞으로 썩 나섰다.

“고맙소, 섭섭엄니. 참으로 고맙소, 막레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홍장 엄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혀 주었는데. 젓 몇 번 빠리는 것이 대수겼소? 앞으로도 홍장이 클 때껴정은 우리가 젓을 먹여 키울 것인께, 쪼끔도 어려워 마시고 텔꼬 오시오.”

막레어미의 말에 서운어미가 나섰다.

“그런 걱정은 말고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싸우지나 말어.”

“흐기사, 홍장이 제 발로 걸을 때껴정은 서운 엄니가 안고 멩기면서 젓을 먹여야겠구만. 근디 참 이상허단 말이시.”

막레어미의 말에 서운어미가 되물었다.

“뭇이 이상허당가?”

“홍장이한테 젓을 물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당께.”

막레어미의 말에 섭섭이 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막레네 어매도 그런가? 나도 그런디. 어떨 때는 내 새끼한테 젓을 물리고 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진당께.”

아낙들이 도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원량은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기운을 느꼈다. 홍장을 낳아놓고 정씨부인이 숨을 거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린 홍장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심진강 건너편 천마산처럼 무겁더니, 젓을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다툼을 벌이는 아낙들의 말을 듣자 마음이 폭 놓이면서 눈 밑이 뜨뜻해졌다.

홍장은 울지도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 주었다.

기지귀를 적셔놓고 칭얼대면 서운어미가 어느새 알고 달려와 갈아주고 갔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번지고 있었다.

“원훈장님과 서운어매가 그렇고 그런 사이랍서?”

“글씨, 그렇당만. 잇그젠가는 서운어매가 새벽 먼동이 틀 때에 원훈장네 집에서 나오드랑구만.”

“참말이여?”

“아, 딸구만네 아버지가 개똥 좃으러 나갔다가 보았당구만.”

“흐기사, 서운어매가 홍장이 어미노릇꺼정 다 허고 있잖은개벼. 오다 가다 정도 들었을 것이고, 남녀간에 정이 들면 사단이 나는 것은 금방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가 마을을 벗어나 심진강 물결을 따라 아랫녘

으로 퍼져가던 어느날이었다.

한 동안 뜬하던 철광산 곤대인이 홍주 한 단지를 안고 찾아왔다.

“오랜만입니다, 곤대인.”

“진국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죄니, 낮빛이 한결 편안해 지셨습니다.”

“편안합니다. 법룡스님도 함께 오셨습니까?”

“아니요. 법룡스님은 진국에 놀러 앉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심대인이 보타산 골짜기에 절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 주지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심대인이 어수선한 진국의 평안과 상단에서 바닷길에 제물로 바친 처자들을 위한 절을 짓고 있었는데, 마침 절이 완성되어 주지를 찾던 심곡대인이 법룡스님께 사정사정 매달리셨지요. 앞으로는 처녀를 바다에 바치는 인신공양 대신에 절에 모신 부처님께 빌겠더군요.”

“잘 된 일이군요. 하면 대홍암은 문을 닫겠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법룡스님 말씀이 인연 있는 자가 찾아와 지킬 것이라고 하더군요.”

둘이 홍주를 마시며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 서운어미가 찾아왔다.

“배정포구에 나갔다가 섬진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아 늙은 어무이를 봉양하고 있는 양씨 총각이 한 그럭 주길래 받아다가 조렸구만요. 아까 보니까 곤대인께서 술 단지를 들고 들어가시길래 인주로 잡수시라고 가져왔구만요.”

“고맙소, 서운어미. 어부 노릇하는 양씨총각이라면 도깨비가 보를 막아주어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그 총각인가요?”

“예, 바로 그 총각이구만요. 총각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도깨비가 보를 막아주었다고 글등만요. 오늘도 양총각이 배정포구에서 물고기를 한 함지박 놓고 팔고 있더구만요. 지나던 사람이 참말로 도깨비가 보를 막아주었느냐고 물으니까 그냥 빙긋 웃든디요. 저는 홍장이 기저귀나 갈아줄랑구만요.”

서운어미가 방으로 들어간 다음이었다.

곤무갑이 말했다.

“원대인, 제가 백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긴 것이 도깨비였습니다.”

“곤대인도 도깨비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럼요. 들어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에 갔다가 막 걸리 몇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딱 마주친 도깨비와 밤 내내 씨름을 하다가 날이 밝아서 보니까 다 닳은 몽당빻자루더란 말을 하고, 어떤 총각은 제가 연모하는 처녀를 탐내는 도깨비가 밤에 몰래 훔쳐 갈까봐 밤을 새워 창박을 지켰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도깨비가 보를 막아주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총각 얘기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맞소. 바로 그 도깨비요.”

원량이 서운어미한테 들은 양총각과 도깨비 얘기를 신명나게 털어 놓았다.

섬진강 건너 작은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양씨 성을 가진 총각이 살았다. 양총각은 날마다 섬진강에 나가 통발로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머니한테 조려드리기도 했고, 남은 물고기를 팔아 양식을 사다

가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나이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가 없었다.

어느 날 양총각이 물고기를 잡으러 섬진강에 나가 통발을 놓으려고 보니, 강을 가로지른 보는 절반이 넘게 무너져 있었고, 통발을 놓고 기다려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물고기 지짐을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어머니께 조려 드릴 물고기도 못 잡았구나. 어머니께서 실망이 크실 텐데 큰일이구나. 그 나저나 누가 보를 텃을까? 요근래 비가 온 것도 아니니 홍수에 보가 쓸린 것도 아닐 텐데. 혹시 도깨비놈들의 장난인가?’

날이 어둑해질 무렵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잔뜩 실망한 양총각이 강에서 나오려는데, 물속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지? 중얼거리며 양총각이 파란 구슬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니, 오늘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헐 수 없이 김치에 저녁을 드셔야겠구만어요.”

“한 끼 쯤 고기반찬이 없다고 큰일이야 나겠느냐? 마음 쓰지 말거라.”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양총각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 막 잠이 들려는데 마당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나와 보니, 마당 가득히 도깨비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다.

“어르신, 제발 우리 대장님의 구슬을 돌려주십시오.”

“너희 대장의 구슬이라니?”

“어르신께서 강에 빠져있는 구슬을 가져오신 것을 알고 왔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도깨비 가운데 하나가 애원을 하자 나머지 도깨비들이 울면서 합창으로 사정을 했다.

“오라, 너희 놈들이 보를 텃겠다? 너희 대장의 구슬은 아예 찾을 생각을 말거라.”

양총각의 말에 도깨비들이 일제히 마당에 엎드려 구슬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어르신께서 시키신 일은 무엇이든 다 할 테니, 제발 구슬을 돌려주십시오.”

“좋다. 정 구슬을 찾고 싶으면 네 놈들이 튼 보를 원래대로 막아놓거라.”

양총각의 말에 도깨비들이 흐흐 웃으며 ‘그 일이라면 누워서 떡먹기 보다 쉽지요’ 하면서 섬진강으로 몰려나갔다.

도깨비는 장난기가 심하여 가끔은 사람을 질겁하게도 만들지만 본성은 착했다. 또한 한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지키는 것이 도깨비였다.

도깨비들이 보를 막겠다고 몰려나간 다음이었다. 양총각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도깨비들이지만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했다.

‘웁지. 보를 막고 나오면 먹을 수 있게 메밀죽이라도 끓여다가 나누어 주어야겠구나.’

양총각이 메밀죽을 한 솥 끓여 가지고 섬진강가로 가니, 어느새 보를

다 막은 도깨비들이 강가로 나오고 있었다.

“어이, 도깨비 친구들, 보를 막느라 고생들 했구만. 내가 메밀죽을 끓여왔으니, 와서 한 그릇씩 먹게나. 내가 그릇을 미쳐 챙겨오지 못했으니, 제각기 그릇들은 가지고 오게.”

양총각의 고향에 도깨비들이 제각기 똑딱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몰려들었다.

도깨비들은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양총각이 국자에 눈대중으로 금을 그은 다음에 공평하게 메밀죽을 나누어 주었다.

죽 술이 비었을 때였다.

양총각이 맛있게 죽을 먹는 도깨비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무그늘 속에서 나온 도깨비 한 놈이 ‘나도 죽 주시요’하며 바가지를 내밀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죽이 다 떨어졌구나. 내일 내가 너한테만 죽을 끓여 줄 것이니, 내일 밤이 으슥하면 내 집으로 오거라.”

“싫소. 나도 죽 주시오.”

“네 눈으로 보다시피 죽이 없지 않느냐? 내일 저녁에 두 그릇을 끓여 주마.”

“내일 저녁에는 싫소. 죽이 없으면 좋소, 내가 막은 보는 내 손으로 터버릴라요.”

죽을 못 먹은 도깨비가 핏 돌아서더니, 강물로 들어가 제가 막은 곳을 터버렸다.

‘허허, 그놈 참.’

양총각이 하늘을 향해 허허 웃다가 도깨비 구슬을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이었다.

양총각이 대나무통발을 들고 섬진강으로 나가 어제밤에 도깨비들이 막아놓은 보를 한 눈으로 쓱 훑어보고는 메밀죽 못 먹은 도깨비가 터버린 곳에 통발을 설치해 놓았다. 그런 다음 강물 속으로 들어가 툼방툼방 통발 쪽으로 물고기를 몰았다.

두어 시간 후에 통발을 꺼내어 보니, 통발 안에 메기며 뱀장어며 동사리며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그득했다. 철이 들면서부터 십여 년을 섬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번 통발을 거두어 한 함지박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처음이었다.

‘허허, 메밀죽 못 먹은 도깨비가 오히려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었구나.’

양총각이 다음에 죽 못 먹은 도깨비를 만나면 메밀죽이 아니라 쌀죽을 끓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효자 양총각을 위하여 도깨비가 보를 막아주었다는 소문이 돌고난 다음부터 양총각이 배정포구에 고기를 팔러 나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 고기장사를 나오기도 했다.

“원대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깨비가 보를 막아주었다는 소문이 사실이군요.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힐 리는 없지 않습니까?”

곤대인이 물었다.

“글쎄요. 도깨비가 우리 백제 사람들과 워낙 친하기는 해도 난 도깨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심심할만하

면 누가 도깨비를 만났더라, 하는 소문이 눈 먼 나한테까지 찾아오지요.”

두 사람이 홍주 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얘기를 들었던지, 홍장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오던 서운어미가 말참견을 했다.

“죽 못 먹은 도깨비가 터버린 물살에 통발을 놓으면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사람들이 벌써 도깨비살이라고 이름까지 붙여 주었는디요?”

“그래요? 허면 아무나 통발만 놓으면 물고기가 잘 잡힌답니까?”

“아니구만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도 물고기를 잡겠다고 도깨비살에 통발을 놓았는데, 밤 내내 기다려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 가드랍니다.”

“저 참, 신기하군요. 아무래도 도깨비도 효자를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양총각이 효자는 효자지요. 그전에는 잡은 물고기를 노모한테만 지쳐드리고 나머지는 배정포구에서 팔았는데, 도깨비살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부터는 노인이 계시는 이웃집에는 한 그럭씩 맛이나 보라면서 나누어주기도 한답디다. 사실은 두 분이서 잡수시는 물고기 조림도 양총각이 홍장 아버지한테 지쳐드리라면서 나누어준 것입니다. 허면 맛있게들 드시지요. 저는 이따가 홍장이 깨면 기저귀나 갈아주러 올랑구만요.”

서운어미가 돌아간 다음이었다.

원량이 곧대인에게 물었다.

“진국에는 도깨비 얘기가 없습니까?”

“도깨비는 없고, 효녀 묘선아가씨 얘기가 있습니다.”

“묘선아가씨요?”

원량이 언젠가 그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 내며 되물었다.

“백년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만, 진국이 세워지기 전의 어떤 왕 때인 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왕한테는 여쁜 세 공주가 있었답니다. 욕심이 많았던 왕은 공주들이 혼기가 되기도 전부터 공주들을 하나같이 고관대작이나 부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주들을 앞에 앉혀놓고 나중에 자라던 너희들은 고관대작이나 부자에게 시집을 가야한다고 말했지요. 첫째와 둘째 공주는 다소곳이 ‘아버지마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셋째 공주가 ‘소녀는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깊은 산 속의 암자에 들어가 승려가 되겠습니다’ 했더랍니다. 화가 잔뜩 난 왕이 셋째공주를 왕궁에서 내쫓아 버렸다지요. 왕궁에 남은 두 공주가 혼기에 이르렀을 때 왕이 그만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버렸답니다. 신하들을 사방팔방으로 풀어 명의를 찾았지만, 불려온 의원들마다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지요. 꼼짝없이 죽게 된 왕이 이제나 저제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 ‘살아있는 사람의 두 눈알과 팔 하나를 잘라 하룻밤을 푹 고아 사흘만 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하고 사라졌답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 왕이 두 딸을 불러 ‘내가 살려면 살아있는 사람의 두 눈알과 팔 하나를 잘라 고아 먹어야 한데, 너희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를 살려다오’하고 사정을 했지만, 큰 공주는 ‘저는 고관대작한테 시집이나 갈래요’ 하며 거절했고, 둘째 공주는 ‘저는 천하의 부자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하고 거절을 하였지요. 어려서부터 금이야 옥이야 키운 두 공주가 거절

을 하자 절망에 빠진 왕이 날마다 울면서 지내는데, 하루는 고승 하나가 찾아와 말했다.

곤무갑의 얘기를 빙그레 웃으며 듣고 있던 원량이 끼어 들었다.

“보타산 정상의 작은 암자에 자비로운 보살이 있는데, 혹시 그 보살님이라면 자신의 눈알을 빼어주고 팔목을 잘라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했는지요?”

“아니, 원대인. 묘선공주 얘기를 알고 계셨습니까?”

“오래전에 범룡스님께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계속해 보시지요. 묘선보살의 얘기라면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들려가지고 보타산 정상으로 보냈습니다. 신하가 금은보화를 바치고 삼배 후에 고개를 들자 묘선보살이 어느새 자신의 두 눈알과 팔 하나를 잘라가지고 비단보자기에 싸서 넘겨주더라고요.”

“묘선보살의 눈알과 팔목을 고아 먹은 왕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아났지요.”

“병이 나은 왕이 묘선보살한테 감사인사를 올리겠다고 보타산 정산에 올라가자 대중들이 구름같이 몰려 있는데, 대중들을 내려다 보며 두 눈과 팔 한 쪽이 없는 묘선보살이 불법을 펼치는데, 왕이 보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이 뚜렷이 남아 있는 세째공주더라지 뭐니까?”

“그제서야 왕이 보타산 계곡물이 불어날 만큼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려 묘선보살을 감싸는 순간 묘선보살은 간데없고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의 관음보살님이 서 계셨는지요.”

“왕이 두 손을 합장하고 삼배를 드리면서 관음보살님이시여, 관음보살님이 살신성인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앞으로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관음보살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보타산에 가면 아직도 관음보살이 된 묘선보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중들은 그때 왕궁으로 왕을 찾아왔던 고승이 바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하여 변장하고 나타난 묘선보살이라고도 하지요.”

말끝에 곤대인이 홍주 잔을 원량의 손에 건네주었다.

“효자 효녀 얘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원량이 홍주잔을 받아들며 대꾸했다.

곤대인이 서운어미 얘기를 꺼낸 것은 홍주단지가 절반이나 비었을 때였다.

“아까 다녀 가신 서운어머니 말입니다. 원대인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참보살이십니다.”

“그야 이를 말입니까? 서운어머니는 내 눈이고 손발이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원량이 고개를 끄덕이자 곤대인이 은근히 물었다.

“아예 두 분이 살림을 합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서운어머니는 다만 정을 나누는 이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을 그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철광에 일을 나온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오늘 아랫녘에서 우리 배를 타고 온 아낙들도 두 분 얘기를

나눔이다. 서운어머니가 밤늦게 원대인을 찾아와 새벽에 나간다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떳떳하게 한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어머냐고요.”

그런 말을 남기고 곧대인이 돌아간 다음이었다.

홍장의 기저귀를 갈아 줄 때가 되었다면서 찾아 온 서운어미를 앞에 앉히고 원량이 말했다.

“서운엄니, 이제 그만 오시지요. 내 손으로 홍장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있고, 내 손으로 안고 다니면서 젖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 뺨인가요?”

“나야 상관없지만, 서운엄니한테는 못할 짓이지요.”

“홍장아버지가 상관없다면 이 년도 괜찮구만요. 소문이 무서웠다면 이 집에 비감도 안했을 것이구만요. 얼마 전에는 마을 촌장님이 찾아오셔서 이 년한테 홍장아버지와 살림을 합치는 것이 어머냐고 하시드구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홍장이 일곱 살이 될 때까지만 훈장님 댁에 드나들겠다고 말씀드렸구만요. 홍장이 지 손으로 그그 아버지 밥상이라도 채려디릴 때까지만 그러겠다고 했구만요. 허니, 심려하지 마시지요. 홍장아버지나 이 년이 판 뺨얼 묵고 있는 것이 아닌디, 몇 뺨시 어린 홍장을 고생얼 시킨다요.”

서운어미가 섭섭하다는 투로 말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서운엄니.”

원량이 뜨거워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할 것 없구만요. 이 년 뺨엔 섬진강물처럼 깨끗헌께, 홍장 아

부지도 그런 뺨인 것얼 알고 있음께, 남이사 머리허건 뺨얹이는 안 헐 것이구만요.”

“고맙소, 고맙소.”

원량이 서운어미의 손이라도 잡고 싶은 걸 꼭 참았다.

홍장은 무력무력 잘 자라 주었다. 돌이 되기도 전에 말문이 트이고 걸음걸이를 시작하더니, 어느 사인가 원량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어 주었다. 홍장에게 기저귀가 필요 없게 되자 서운어미의 발걸음도 하루에 두 번으로 줄어들었다.

아침저녁으로 두 번 들러 밥을 안쳐주고 반찬을 만들어다 주었다.

“홍장아, 네가 크더라도 서운엄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운엄니는 너한테 엄니나 마찬가지로 분이시니라.”

원량이 말하면 홍장이 대답했다.

“아버지, 제게는 어무니가 두 분이십니다. 낱아주신 어무니와 길러주신 어무니가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젖을 먹여주신 분이 모두 어무니이십니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살거라.”

“예, 아버지.”

홍장이 씩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4. 문전걸식을 해서라도

“아가, 홍장아. 하늘빛이 어떠냐?”

원량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파래요, 아버지. 구름 한 점 없어요.”

홍장이 대답했다.

“큰일이구나. 벌써 석 달 열흘이나 비가 오지 않으니, 논에 나락은 물론 밭곡식도 다 타겠구나.”

원량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한숨소리에 홍장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참 지독한 가뭄이었다.

석달 장마에 해 안 뜨는 날 없고, 칠년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는 말도 빈 말이었다. 석 달 열흘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벼가 파랗게 자라야 할 논은 거북이 등처럼 짝짝 갈라져 있었으며, 섬진강에서 동으로 물을 길어다 겨우겨우 살려 놓았던 무나 배추 참깨같은 먹거리들은

점점 시들어 갔다.

아무리 물을 길어다 주어야 무 한 개, 배추 한 포기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물주기를 포기하자 이들이 못 되어 말라 비틀어 졌다.

섬진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배정포구에 정박해 있던 칠광산의 배도 강바닥 자갈 위에 기우똥기 올려진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남해 바다에서 소금이며 건어물을 싣고 들어오던 소금배가 석 달이나 오지 않았다. 자반고등어나 마른 멸치 같은 건어물은 밥상 위에 올리지 않아도 숨을 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한 되박씩 팔아먹던 소금이 떨어지자 집집마다 난리가 났다.

“소금배가 들어오면 갯을텐께, 소금 한 줌만 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면서 소금 항아리를 열던 사람들이 가뭄이 두 달을 넘어서자 ‘우리 식구 목고 죽을래도 목고 죽을 소금도 없소’ 하고 고개를 내저었다.

어느 날 서운 어머니가 찾아와 말했다.

“앞으로는 제가 훈장님 댁에 올 수가 없겠구만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서운엄니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원량이 물었다.

“빈손으로 찾아오기도 멋히고, 홍장이 기저귀 갈아줄 일도 없고, 밥 한 그럭, 김치 한 보시기 가져다 드릴 것도 없이 몸만 왔다갔다하다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까?”

서운어미가 마루장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시럽고, 고맙소. 서운엄니가 아니었으면 눈 뜬 봉사 혼자서 흥

장이를 어찌 키웠겠소. 다섯 해 동안 아줌니는 홍장의 어머니였소. 내가 죽을 때까지 갇아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것이요.”

“괘씸시런 말씀얼 다하시오. 이 년이 어뜨케든 버터볼라고 했는디, 서운이년 땀시 버틸 수가 없게 되었구만요.”

“서운이가 왜요?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제는 글씨 굵고 있는 제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바가지를 들고 사립을 나서지 맙니까?”

“동냥질을 나갔다는 말입니까?”

“글씨, 그랬당께요. 사지육신 멀쩡헌 에미가 딸을 어찌 동냥치를 만들겠는가요?”

“그야 그렇지요. 부모 된 몸으로 자식에게 어찌 험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원량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서운어머니가 뜻밖의 소리를 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친정이 있는 낙안포에나 가 있을랑구만요.”

“낙안포요?”

“시엄니 봉양을 제대로 못하는 올케가 싫어서 열 해가 넘게 비깅도 안 했는디, 서운이를 굶기는 것 보담언 눈칫밥이라도 먹이는 것이 낫겠다 싶드구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걱정일랑 말고 잘 다녀오시지요.”

기슴 한 쪽이 텅 빈 듯 아렸지만 원량이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참말로 미안시럽소. 가뭄이 끝나 묵고 살만하면 돌아올게요. 그때꺼 정언 어뜨케든 죽지 말고 살아 계시시오. 홍장아, 눈 밝은 니가 아부님 얼 잘 뵈셔야한다.”

서운어미가 다섯 살짜리 홍장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당부했다.

“예, 아줌니.”

홍장의 대꾸에 원량이 말했다.

“홍장아, 먼 길 가시는 서운어머니께 큰 절로 인사를 드리거라. 너한테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분이시니라.”

“예, 아부지.”

홍장이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머리에 모으고 큰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아줌니. 먼 길 잘 다녀오시지요.”

“하이고, 이 일얼 어째야 쓸꼬이. 앞 못 보는 훈장님과 어린 홍장을 두고 내가 어찌 갈꼬이.”

서운어미가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닦고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원량의 집을 나갔다.

서운어미의 축 치진 어깨를 바라보던 홍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부지, 쌀 도가지에 쌀이 한 톨도 안 남았습니다.”

“알고 있니라. 이따가 내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겠구나. 쌀 되박이라도 빌려와야 너히고 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구나.”

“저도 함께 가요, 아부지.”

“아니다. 널랑은 집에 있거라. 배가 고프구나. 된장독에 된장은 남아 있지야?”

“예, 바닥에 찌꺼기..”

“그것이라도 한 숟가락 물에 풀어 오니라. 마시고 나가 봐야겠다.”

홍장이 장독대의 된장독에서 된장을 한 숟가락 퍼내어 물에 풀어 가져다 손에 쥐어주자 원량이 그걸 맛있게 마시고 말했다.

“니 엄니가 담가놓고 간 된장 맛은 다섯 해가 지나도 변함이 없구나. 흥장아, 너도 한 그릇 타 마시거라. 된장이 콩으로 담근 것이라서 근기가 있니라. 아버지는 나갔다 오마.”

흥장에게 당부를 한 원량이 몸을 일으켜 집을 나왔다. 아직 한 여름도 아닌데, 땀방울이 내려쬐는지 골목을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흐참, 날씨 한번 고약하구나. 무턱대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 양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날더러 눈 뜬 봉사에다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옹지? 큰감나무집 김막돌이 서당에 보낸 아들놈의 학채를 3년 동안이나 안 냈겠다? 밀린 학채라도 내놓으라고 해야겠구나.’

원량이 기억을 더듬어 더듬더듬 큰감나무집을 찾아갔다.

“여기가 김막돌이네 집이 맞소?”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원량이 사립 밖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김막돌이네가 맞기는 험디, 뉘시지요?”

아낙의 물음에 원량이 반색을 하며 사립 안으로 썩 들어섰다.

“허, 내가 눈 뜬 봉사라도 길을 잘못 들지는 않았습디다, 그려. 나 원흥장인디, 밀린 학채를 받으러 왔습디다.”

원량의 말에 김막돌의 아내가 허둥거렸다.

“하이고, 이 일얼 어쩐디야? 안 그래도 흥장님께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디, 우리도 곡석이라고는 바게미 묵은 보리쌀 한 톨도 없어 찬물에 간장 두어 숟가락 풀어 묵고 연명헌지 오닐이 닻새짜구만요.”

“그렇소? 나는 된장 물을 마시고 나왔는데, 이 댁에서는 간장 물을 마

셨습디다, 그려.”

원량이 더 할 말도 없어 돌아서려는데, 김막돌의 아내가 말했다.

“날씨도 덥고 목도 마르실텐디, 간장물이라도 한 그럭 잡수고 가실라요?”

“아니요. 됐습디다. 날씨도 더운데 잔물을 마셔봐야 목만 더 마르지요.”

원량이 몸을 돌려 김막돌의 집을 나왔다.

‘이번에는 어느 집으로 갈까?’

원량이 잠시 궁리했다.

그러나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다. 송정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서까지 학동들이 찾아올 때는 학채를 받은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었다. 서당에 학동들이 많을 때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채를 받지 않고도 가르쳤다. 김막돌의 아들 같은 경우가 그랬다.

“제 아들놈이 서당에 맹기는 동무들을 어찌나 부러워허는지, 애비된 몸으로 차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데리고 왔구만요. 가실에 풍년이 들면 갚을 것이고, 그럴 형편도 안 되면 땀나무라도 혀드릴텐께, 지 새끼한테 글공부좀 갈쳐주시씨요.”

“그러시오. 학채 걱정일랑 말고 아들놈을 내게 보내시오. 내가 다른 아이들과 차별없이 가르쳐 주리다.”

김막돌네같은 경우가 다섯 집은 더 있었다.

그렇다고 그런 집을 찾아가 외상으로 글배운값 내놓으시오, 할 수는 없었다. 풍년이 들어 먹고 살만할 때에도 학채를 못 내던 가난한 집이었다. 작년의 지독한 흉년에다 올해 역시 밭에서 무 한 뿌리, 배추 한 잎

거들 수 없을만큼 가뭄이 들어 어려운 형편에 보리쌀 한 되박인들 내놓을 처지가 못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허허, 큰일이구나. 어린 홍장에게 매키니를 된장물만 먹일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째사 쓴다냐?”

원량이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한 시각 남짓 걸었을 때였다.

“홍장아버지, 마실 나오셨는기라우?”

여인의 목소리가 반갑게 물었다.

“뉘십니까? 내가 앞을 볼 수가 없어 목소리로 사람을 구별하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구려.”

원량이 대꾸했다.

“이 년은 삼거리에 사는 만수엄니 오지택이구만요. 홍장을 낳던 해에 홍장엄니가 쌀과 미역을 주어서 행복간을 잘 했었구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헐디, 삼거리에 사신다면서 오지마을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지마을이 제 친정동넨디, 친정에 왔던 김에 송부자택에서 대수리를 잡아다 달라고 해서 잡아가꼬 오는 길인디, 대수리 좀 디리끄라우?”

“아닙니다. 애쓰게 잡으신 것을 어찌 축을 내겠습니까?”

“가뭄에 강물이 줄어 대수리도 없는디, 오닐언 큰 뱀 묵고 깊은 곳으로 들어갔더니, 더위를 피해 숨은 대수리들이 새까맣게 깔려있드구만요. 한소쿠리를 잡는데 한 나절도 안 걸렸구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물허고 잘 놀았구만요. 섬진강 대수리를 저만큼 잘 잡는 사람도 없을 것이구만요. 한 바가지 디릴텐께, 된장을 풀어 삶아 가지고 알은 까서 잡수시고, 국물은 훌훌 마시면 한 끼 요기는 될 것이구만요.”

오지택이 다슬기를 한 바가지 푹 퍼서 원량의 손에 쥐어 주었다.

“고맙소. 복받으시오, 오지택 아릅니.”

다슬기 한 바가지를 들고 기분이 좋아 돌아오는데, 원량의 뇌리로 내일은 오지마을의 송부자집에나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천석은 눈을 삼백 두락이나 가진, 인근에서 제일가는 부자이면서도 자린고비 노랭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먹고 살만한 송부자라면 설마 나를 모른다고는 않겠지?’

다음날이었다.

홍장에게는 어제 먹다 남은 다슬기를 까먹으라고 일러놓고 원량이 오지마을의 송천석을 찾아갔다. 막 마당에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악을 쓰는 울음이었다.

원량이 아이 울음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그러자 아이를 달래느라 실랑이를 했는지 송천석이 벌겍게 닳아 오른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다.

“원훈장이 내 집에는 무슨 일이다요?”

송천석이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물었다.

말투에서 송천석의 기분을 짐작한 원량이 대답했다.

“홍년에 가뭄이 들어 먹고 살 수가 없어 적선을 바라고 왔습니다. 쌀 한 말이라도 주신다면 우리 부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겠습니까.”

“뭘요? 나한테 쌀 맡겨놓았소? 아새끼꺼정 밤낮으로 울어대는 통에 신경질 나서 죽겠는 판에 별 동냥치가 와서 속을 급네. 당신한테 줄 쌀

은 없으니, 어서 썩 꺼지시오.”

“허, 주인장 입담도 참 걸죽하구려.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아박하구려. 기제사때마다 축이며 지방을 받아간 것이 몇 번이며 아래채를 수리한다면서 손 없는 날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언제고 쌀 한 말 얻자는데, 이리도 매정하게 구시오?”

원량의 말에 송천석이 맨발로 부르르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나가란 말이요, 나가 하면서 등짝을 밀었다. 졸지에 당한 일이라 원량이 여지없이 마당에 널브러져 버렸다.

머릿속에서 별뚱별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때였다.

“아부지, 아부지.”

홍장이 울부짖으며 달려 들어왔다.

송천석이 소리를 질렀다.

“내 집에는 동냥치한테 줄 곡식은 한 톨도 없으니, 니 애비를 댈꼬 어서 썩 내 집에서 나가그라.”

송천석의 고함소리를 들었는지, 송천석의 마누라가 아직도 그악스레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마루로 나왔다.

“울지마라. 울지마라, 복남아. 네가 울면 이 어미의 가슴이 찢어진단다.”

제 어미가 달렸으나 아이는 더욱 그악스레 울어댔다.

원량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홍장이 우는 아이를 가만히 올려다 보았다.

‘너 왜 우니? 울지 마, 아가야.’

홍장이 속으로 중얼거리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홍장을 내려다보며 생글거렸다.

“가요, 아버지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집에는 오시지 말아요. 동냥질을 해도 제가 할테니까,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원량의 팔목을 잡고 송천석의 대문을 나오면서 홍장이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막 골목을 벗어나려는데 송천석의 집에서 다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헌디 홍장아, 네가 어찌 송부자네 집엘 왔느냐?”

“아버지 뒤를 가만가만 따라왔지요. 혹시 아버지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실까 걱정이 되어 아버지 몰래 따라왔지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걸음마를 시작하고 부터요.”

홍장이 싱글거렸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라면 네 해가 넘었는데, 아버지는 까맣게 몰랐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그라. 스무 해 가까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다닌 길이니라. 몇 걸음을 걸어가면 누구네 집이 나오고,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왼 쪽으로 틀어 몇 걸음을 더 가면 누구네 집이 나오고, 내 머리 속에 환히 박혀 있니라. 길을 잃어 허둥거릴 염려도 없고, 개울창에 빠질 일도 없으니, 애비 걱정은 말거라.”

“히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안 심심하고 좋은디요. 어? 아버지,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냐? 노랑나비를 보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비나 왔으면

좋겠구나.”

원량의 말에 홍장이 소리를 질렀다.

“노랑나비아, 비 좀 내리게 해주렴. 비가 와야 꽃이 피고, 꽃이 피어야 네가 앉아 쉴 그늘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홍장의 물음에 원량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인석아, 꽃이 나비를 좋아하니까, 나비도 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꽃은 나비뿐만이 아니라 홍장이 너도 좋아할 것이다.”

“홍장이 꽃을 좋아하는 줄을 꽃도 알고 있을까요?”

“아무렴. 꽃이 어찌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아버지 이마에서 피가 멈추었어요. 썩을 썩어 붙이지 않아도 되겠어요.”

“살짝 굼혔을 뿐이니까.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둘이 도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립을 들어선 홍장이 원량의 손을 잡아끌며 멈추어 서서 말했다.

“아버지, 마루에 할무이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얼굴을 찡그리며 노려보고 계세요. 무서워요, 아버지.”

홍장이 속삭이는데, 노파의 빈정거리는 소리가 원량의 귀청을 파고 들었다.

“꿀 좋네, 꿀 좋아. 썩을 년, 지 에미 다섯 살 때허고 똑같이 생겼구나. 피속임언 못한다드니, 판에 박은 듯이 똑같구나.”

쉿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것이 홍장의 외할머니가 분명했다.

열아홉 해 전에 청계동 아래 심진강 삼다리에서 연꽃의 인연으로 만난 정씨처녀가 하늘의 상제님께서 맺어준 인연이라면서 송정마을로 따라와 함방을 한지 사흘 만에 찾아온 처녀의 어머니는 상제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딸에게 매정한 말을 퍼부었다.

“순녀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너는 내게 죽은 딸이다. 내 집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말거라. 나도 송정마을 쪽으로는 눈도 안 돌리고 살 것이니라. 내가 죽었다고 해도 울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거라.”

“기왕에 오셨으니,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지지요, 어머니.”

딸이 눈물로 권했지만 딸의 어머니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서서 총총걸음으로 사립을 나갔다. 그 이후 딸과 어머니는 서로 왕래가 없었다.

정씨부인은 삼십 리 밖의 친정 얘기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한 일이 없었다. 정씨부인이 홍장을 낳고 숨을 거두었을 때 원량이 하루를 망설이다가 출상 전날에야 서운어미를 시켜 딸의 죽음을 알렸지만, 친정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렇게 영영 끊어질 인연인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이 죽은 지 오 년이 지나서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홍장의 외할머니가 찾아온 것이었다.

사위로 인정을 하건 안하건 장모는 장모였다.

원량이 마당에 넓죽 엎드리며 큰 절로 인사를 올렸다.

“장모님, 못한 사위가 인사 올립니다. 절 받으시지요.”

“절은 무신 절인가? 절 받을 처지가 아니니, 절은 그만두고 이쪽으로 좀 앉게.”

장모가 씨늘한 말투로 사양했지만 원량이 기어코 큰절을 올리고 마루에 가앉았다.

“순녀는 홍장을 낳아놓고 그날 밤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랑일세, 자랑이여. 생때 곁은 녀의 딸을 데려다가 나이 서른에 황천객을 맹글아 놓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입을 놀리는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위의 말에 장모가 목소리를 낮추어 은근히 말했다.

“홍장이한테 자네는 계속 동냥질을 시킬 것인가? 다섯 살짜리 딸이 문전걸식으로 얻어온 동냥밥으로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살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홍장한테 동냥질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허면 자네가 동냥질을 해다가 홍장을 먹였는가? 송정마을 원봉사의 어린 딸이 동냥질로 봉사아버지를 먹여 살린다더라, 허는 소문이 마을 마을 골목골목을 돌아댁기고 있는데, 삼십 리 밖의 우리 마을까지 들어왔는데, 정녕 자네는 모른단 말인가?”

“장모님,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홍장아, 네가 정녕 그리했느냐? 외할무니의 말씀대로 네가 밥을 얻으러 다녔느냐? 서운엄니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느냐?”

원량이 목소리에 노기를 섞어 묻자 홍장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 아버지,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아버지...”

“지난 일을 따져서 멱혀졌는가?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내 손녀가 동냥질허는 꼴을 더는 못 보네. 오죽 했으면 죽은 홍장어미가 꿈에 나를 찾아왔겠는가?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쏟고 자빠졌드구

면. 홍장은 내가 텔꼬 갈라네. 자네사 동냥질로 묵고 살건 땅얼 파서 흙얼 묵고 살건 알아서 허소. 홍장아, 가자.”

장모가 홍장을 덩싹 안아 올렸다.

“할무이, 전 안 갈 거예요. 아버지하고 살 거예요. 아버지, 못 보내겠다고 해주세요. 전 가기 싫어요.”

홍장이 발버둥을 쳤지만, 외할머니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홍장아, 외할무니를 따라 가거라. 네가 애비 곁에 있으면 또 동냥질을 나갈 것이 아니더냐? 아버지도 내 딸에게 동냥질을 시키기는 싫구나. 죽는 것보다 더 싫구나. 외할무니 집에 가면 밥은 안 굶고 살 수 있다. 학동들이 다시 글을 배우러 오고, 학채라도 받게 되면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장모님, 홍장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절 내려주세요.”

홍장이 울부짖었지만, 장모가 잘 살라는 말도 안 남기고 사립을 나갔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부짖는 홍장의 울음소리가 한동안 골목에 울려 퍼졌다.

‘홍장아, 울지 말어. 느그 엄니처럼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잠시의 헤어짐을 애달아 하지 말거라.’

원량이 자신을 달래며 방으로 들어와 몸을 눕혔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원량이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된장을 한 수저를 풀어 마시고 있는데, 마당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시오? 원훈장님, 계시오?”

그것은 분명 어제 오지마을 송부자네 집에서 들었던 아이를 달래던 부인의 목소리였다.

원량이 마당으로 나와 말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오지마을 송부자집 아줌나가 아니시오?”

“맞구만요. 눈이 먼 사람은 귀가 잘 들린다고 허드니, 그 말이 참말인 개비요이.”

송천석의 마누라가 호들갑을 떨었다.

“헌데, 무슨 일로?”

원량이 묻자 송천석의 마누라가 대꾸했다.

“어제 우리 집 양반이 원훈장님께 모질게 대헌 것도 사죄를 디릴겸, 그동안 축이며 지방을 부탁했던 것이나 아래채 질 때 뱅이글을 받은 보값음으로 쌀얼 한 가마니 가져왔구만요. 여보게, 쌀가마니를 안방에 들여 놓게.”

송천석의 마누라가 머슴에게 쌀가마니를 지워가지고 온 모양이라고 원량이 짐작을 하는데, 방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에 이어, 안주인님, 이놈은 먼저 핑 갈랑구만요, 하는 걸죽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량이 송천석의 마누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려. 밀린 글값이라는 말도 허언이고, 신세를 진 보값음이라는 말도 허언일 터인데,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원량이 묻자 송천석의 마누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홍장이 안 보이는구만요. 아침 동냥을 나간 모양이지요?”

“아줌니, 내 딸이 동냥을 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지마을에도 몇 번 왔었구만요. 사람들이 송정마을 원봉사네 외동 딸이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알았구만요.”

그제서야 장모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원량의 가슴이 송곳으로 찢린 듯 썩썩 아렸다.

“이놈이 어린 딸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군요. 나는 인정 많은 분들의 은혜로 먹고 사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원량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기어내려 왔다.

“사람들이 홍장을 하늘이 내린 효녀라고 칭찬허드구만요. 지독한 흥년에 가뭄까지 들어 인심이 나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홍장이 찾아오면 두 말 않고 밥을 한 그럭씩 주었다고 허등만요. 홍장이 곧 오겠지라우? 밥을 못 얻었다고 한정없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라우?”

송천석의 마누라가 조급증을 내비치며 안달을 했다.

“당분간 홍장은 집에 없습니다.”

“예? 왜요?”

“어제 외할무니가 오셔서 데리고 갔습니다.”

원량의 말에 송천석의 마누라가 하이고, 큰일났네, 하고 낙담을 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홍장을 무슨 일로 애타게 찾으십니까?”

“원훈장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제가 나이 쉰이 다 되어 늙둥이를 보았는디, 금이야 옥이야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는디, 한 열흘 쯤 전 부턴가요? 한번 울음을 울기 시작하더니, 밤이나 낮이나 잠 잘 때를 빼놓고는 울기만 한답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무

슨 병이라도 들었는가 싶어 근동의 용허다는 의원을 다 데려다가 보여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아이가 우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헨디, 어제 그 난리 통에 홍장이 들어오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생긋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경황 중에 몰랐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원량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가 홍장 때문에 울음을 그친 것인지, 그때만 잠시잠깐 울음을 그친 것인지, 홍장을 데려가 대면을 시킬라고 제가 왔구만요.”

“허허, 한 발 늦었습니다. 설마 홍장 때문에 울음을 그쳤겠습니까? 어쩌면 마당에 처박힌 내 모습이 우스워 웃었을지도 모르지요.”

“혹시 그래서 웃었는가 싶어 머슴 한 놈을 나무라는 시늉을 하면서 마당에 처박았지만,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구만요.”

“아무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유난히 울음이 많은 아이도 있겠지요. 의원이 병이 아니라면 좀 더 울다가 그치겠지요.”

원량이 말을 맺자 송천석의 마누라가 한참을 마당에 서서 무슨 말인가 더 할듯하다가 돌아서 나갔다.

‘허허, 세상을 오래 안 살아도 별 일이 다 생기는구나. 자린고비 송부자네 쌀을 한 가마니나 받고.’

방으로 들어온 원량이 더듬어 쌀가마니를 찾아 안고 중얼거렸다.

‘쌀아, 너를 보니, 죽은 내 부인을 꿈에 본 듯 반갑구나. 그나저나 너를 나한테 보내면서 자린고비 송부자의 속은 또 얼마나 쓰렸을꼬?’

쌀가마니를 도닥거리던 원량이 쌀을 한 바가지 퍼 담아 가지고 방을 나왔다. 송정마을에서도 끼니 때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은 집이 많

다고 했다.

한 달 쯤 전이던가, 홍장이 느닷없이 물었다.

“아부지, 밥 때가 되어도 굴뚝에서 연기가 안 올라오면 그 집은 양식이 없는 것이지요?”

“어린 네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을에 굴뚝에서 연기가 안 오르는 집이 점점 늘어간다고요.”

“큰일이구나. 흉년에 가뭄에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 학동들도 뚝 끊어져 버렸구나. 오늘 아침에는 어떻느냐? 집집마다 연기가 오르느냐?”

“아니요. 어제는 다섯 집이 안 올랐는데, 오늘은 일곱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와요.”

“누구네 집 굴뚝이 연기가 안 오르느냐?”

원량이 묻자 홍장이 누구누구네 집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가난하지만 하나같이 마음이 고운 사람들의 집이었다. 젓먹이 홍장한테 서로 다 투여 젓을 먹여주었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부자라면 그 사람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게 만들어 줄 것인데.’

원량이 한숨을 내쉬자 홍장이 물었다.

“아부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 배가 고프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췌뿌리도 케 먹고, 송기도 벗겨 먹고, 들에 나가면 지천인 썩도 뜯어다가 삶아 먹고,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안 굶어 죽고 살만큼의 먹을거리는 있단다.”

“아부지, 산딸기도 먹는 것이지? 개구리도 먹는 것이지? 아줌니들이 그러는데 섬진강에 이제 대수리도 없대.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대수리도 없고 불고기도 없대.”

“홍장아, 산딸기 따 먹겠다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지 말거라. 덩불 속에는 뱀이 산단다. 대수리를 잡겠다고 강물에 들어가지 말거라. 강물이 맑아 속이 훤히 보여도 강에는 어른 키보다 깊은 소도 많단다. 알겠느냐?”

“예, 아부지.”

홍장이 다소곳이 대답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원량이 쌀 담은 바가지를 들고 집을 나왔다. 홍장이 말한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은 집에 가져다 줄 참이었다.

‘웃덕에서부터 시작하려면 판돌이네 집부터 가야겠구나. 판돌이가 홍장이하고 동갑인데, 밥을 못 먹어 빼빼 말랐겠구나’

원량이 중얼거리며 더듬더듬 판돌이네 집에 찾아가 쌀바가지를 내밀자 판돌어미가 깜짝놀라 반겼다.

“아니, 홍장 아부지. 먼 쌀을 한바가지나 가져 오신대요?”

“홍장이한테 판돌이 젓을 나누어 먹여주신 값이요.”

“별말씀일 다하시오. 송정마을 집집마다 쌀독이 빈지가 한참이라는디, 이 귀한 쌀이 도대체 오디서 났소? 진국으로 돌아간 곤대인이 돌아왔다는 소문도 없었고, 철광산이 다시 문열 열었다는 소문도 없었는데, 쌀을 보니 반갑기던 허요만, 이 쌀알 받아 묵어도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쌀이요. 오지마을 송부자집

에서 아침나절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글신세를 진 보값음이라면서 쌀을 한 가마나 가져왔습디다.”

원량의 말에 판돌어미가 자지라질 듯 놀란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었다.

“참 별 일이요이. 오지마을 송부자가 노랭이 자린고비라는 것을 꼭나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글신세를 졌다지만 쌀알 한 가마나 가져다주다니요? 사람이 죽을라면 안 허던 짓얼 현다든디, 송부자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소문도 못 들었는데, 먼 일이다요?”

사실은 홍장이 때문이라는 말을 할까하다가 원량이 그냥 돌아서서 판돌이네 집을 나왔다. 원량이 송정마을 열세 가구의 집에 쌀 한 바가지씩 돌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여 배불리 먹고는 자리에 눕자 환희심이 온 몸에서 솟구쳐 올랐다.

“여보, 부인. 어찌 되었거나 못 난 내가 부인이 저세상으로 간 이후 처음으로 사람노릇을 했소. 부인도 기쁘지요?”

정씨부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원량의 가슴이 젖어갈 때였다.

마당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홍장의 발소리였다.

원량이 벌떡 몸을 일으켜 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다.

“홍장아, 네가 어떤 일이냐? 혼자 왔느냐? 누가 데려다 주었느냐?”

“아부지가 걱정이 되어 저 혼자 왔습니다. 외할무니가 잠이 든 새에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하늘에 달이 밝아서 돌부리를 차지도 않고 잘 걸어 왔습니다.”

홍장이 방으로 들어와 아부지, 하고 부르며 안겼다.

원량이 홍장의 등을 가만가만 두드리며 나무랐다.

“이놈아, 거그서 여그가 어디라고 밤길을 나서? 청계동골짜기에서 밤이면 호랑이도 나오고, 늑대가 때로 몰려나온다며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길인데, 겁도 없이 나서?”

“아부지가 보고 싶은디, 어떻게 해요? 맛있는 밥을 보고도 아버지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밝은 대낮에는 외할머니가 보고 있어 나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눈썹 만큼도 안 보고 싶었다. 밥만 잘 먹고 잠만 푹푹 잘 잤다, 이놈아.”

“히히, 쌀도 없는데 밥을 어떻게 해먹어요?”

홍장이 히히 웃었다.

“이놈아, 쌀이 없기는 왜 없어? 방 옷목에 쌀가마가 안 보이느냐?”

“어? 정말 쌀가마니가 있네.”

“오지마을 송부자택에서 한 가마니 가져왔드라. 네가 지난번에 말한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 집을 골라 한 바가지씩 돌렸니라. 저 쌀이면 우리 부녀 몇 달은 버틸 것이니라.”

“아이, 좋아라. 틀림없이 그 아이가 보내준 쌀일 거예요.”

홍장의 말에 원량이 물었다.

“그 아이라면 지붕이 날아가라 울던 그 아이 말이나?”

“제가 그랬거든요. 울지 마라, 아가야, 하면서 웃어주었거든요.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생긋 웃었어요.”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먼 길을 타박타박 걸어 오니

라고 애썼다. 남은 얘기는 내일하고 잠이나 자자.”

원량이 홍장을 안아 눕히고 몸을 누였다.

다시 머리 속 가득히 정씨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젠가 관음전의 관음보살님이 홍장어머니 정보살님을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범룡스님한테 원량이 물은 적이 있었다.

“스님, 홍장엄니가 관음보살님을 닮았다고 하십니까만, 저는 홍장엄니의 얼굴도 모르고, 관음보살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허허, 연꽃을 건네주던 관음보살님을 뵈었다고 했잖습니까? 꿈에 뵈었던 관음보살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얼굴이 바로 관음보살님이시고, 정보살님의 얼굴이십니다.”

그날 이후 원량이 정씨부인을 그리워하면 반만 핀 연꽃 같은 관음보살이 머릿속을 가득히 채웠다.

이날도 밤이 깊도록 원량은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관음보살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텃밭에서 애호박 두 개를 땀다면서 판돌어미가 가져온 호박에 된장을 풀어 끓인 된장국에 흰쌀밥을 앞에 놓고 부녀가 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홍장의 외할머니와 송천석의 마누라가 들어 닥쳤다.

아니, 그약스레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먼저 담을 넘어왔다.

5. 보살의 미소

‘혀, 저 아주머니가 오늘은 아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구나.’

원량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리는데 송천석의 마누라와 장모가 들이 다했다.

송천석의 늦둥이 아이 복남이는 여전히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장모와 송천석의 마누라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홍장아.”

부르르 달려 온 외할머니가 홍장의 등을 아프지 않을만큼 두드려 땀다.

“니 애비가 걱정되어 정 가야겠으면 헬미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야할 것이 아니냐?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꺼졌는가, 호랑이한테 물려갔는가, 귀신이 잡아갔는가, 이 헬미가 얼마나 걱정헌 줄 아느냐?”

“잘못했어요, 할무니. 저는 외갓집에는 안 갈래요. 아버지랑 함께 간다면 몰라도 저 혼자서는 안 갈래요.”

홍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알겠다, 알겠어. 니가 무사헌 것얼 봤으면 되었다. 다시는 너를 내 집에 가자고 안 혀마.”

원량이 아무말도 못하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악을 쓰며 울어대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것이었다.

“홍장아, 아기가 울음을 그쳤구나.”

원량의 말에 홍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웃어 주었거든요.”

“네가 웃어주었다고?”

“예, 아버지. 속으로 울지 마, 아가야, 하면서 아기만 볼 수 있게 웃어 주었거든요.”

홍장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송천석의 마누라가 반색을 했다.

“원훈장님, 제 짐작이 맞았구만요. 우리 아들 복남이가 홍장을 보고 울음을 그친 것이 분명합니다. 홍장을 제게 주세요. 대가는 얼마든지 치루지라.”

“홍장을 달라니요? 대가를 치루겠다는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원량이 불쑥 소리를 질렀다.

“이 년이 무례를 저질렀다면 용서해 주시제라우. 한 열흘간을 잠자고 젓 빨 때만 빼고는 즐창 울어대던 복남이가 홍장이 앞에서 생글거리는 모습을 보니, 제 정신이 회복되 돌아간 모양이구만요. 여차피 원훈장님댁은 문전걸식으로 끼니를 때워야할 처지가 아닙니까? 홍장을 우리 복남이와 놀게만 해주시제라우. 허면 원훈장님댁의 삼시세끼는 물론

철철이 의복도 지어 드릴 것이고, 집을 새로 지어달라면 지어드리겠습니다.”

송천석의 마누라가 안간힘을 다하여 매달렸다.

원량이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홍장의 나이 이제 겨우 일곱 살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홍장을 애보기로 달리는 소리인데, 이 어린 것을 애보기로 주고 내가 어찌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겠소.”

원량이 고개까지 내젓자 원량의 장모가 불쑥 끼어들었다.

“자네가 참 깡깡한 사람이시. 동냥질을 맏기는 것 보담언 부자집 애보기가 훨씬 낫겠구만. 이 아이가 다 클 때께정언 두 사람 밥 굶을 일언 없지 않겠는가? 홍장아, 너는 어찌 생각허느냐? 동냥질이 낫겠느냐? 애보기가 낫겠느냐?”

느닷없는 물음에 홍장이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저도 복남이가 좋아요, 할무니.”

“하이고, 홍장아. 고맙다 고마워.”

송천석의 마누라가 홍장의 손을 덥씩 잡고 흔들었다.

원량이 물었다.

“홍장아, 너 정말 복남이가 좋으냐? 이 애비가 밥을 굶을까 걱정이 되어 하는 소리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웃으니까, 따라서 웃는 복남이가 좋습니다.”

“원훈장님, 홍장이 허는 소리를 들으셨지라? 홍장이도 복남이가 좋는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시키지 않을 것이구만요. 똥기저귀 가는 일이며 목간을 시키는 일은 하녀가 할 것입니다. 일곱 살짜리 홍장한테 어

찌 아기를 업히겠습니까? 홍장은 그냥 복남이 곁에서 함께 놀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홍장아, 우리 복남이와 함께 내 집으로 가겠느냐?”

송천석의 마누라가 홍장에게 물었다.

딸이 무슨 대답을 할까, 원량이 기다리는데, 잠시 궁리를 마친 홍장이 입을 열었다.

“밤에는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 있지요?”

“밤에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예, 그러면 복남이를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복남이가 울면 어쩐다냐?”

송천석의 마누라가 망설이는 기색이자 외할머니가 나섰다.

“아침씨도 참 깡깡히기 그지없소이. 밤으로 집에 안 보내주면 홍장이 안가겠다고 하지 않소? 일단은 함께 갔다가 밤에 홍장이 지 애비한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울면 그때가서 다시 궁리를 하면 안 되겠소? 홍장의 고집이 최고집이요. 아, 혼자서 캄캄한 밤길 삼십리를 걸어 지 애비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모르겠소? 원서방, 나년 갈랑께, 잘 타협해서 결정허소.”

“장모님, 모처럼 집에 쌀이 있습니다. 쌀밥을 지어드릴 터이니, 잡숫고 가지지요.”

처음으로 원서방이라고 불러 준 장모가 고마운 원량이 진심을 담아 권했다.

“자네 집에서 묵는 밥이 내 목구멍을 넘어 가겠는가? 일 없네.”

장모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사립을 나간 다음에 송천석의 마누라가 원량에게 물었다.

“원훈장님, 홍장이를 밤에는 집으로 보내준다면 제 말대로 허실랍니까?”

“홍장이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지요.”

원량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때였다.

어린 복남이가 까르르 웃었다.

울음소리만큼이나 큰 웃음소리였다.

“하이고, 내 새끼가 이리 크게 웃는 것은 또 처음이요. 고맙소, 고맙구만이라.”

송천석의 마누라가 고개까지 꾸벅이며 고맙다면서 기뻐하는데, 아침에 애호박 하나를 가져다 주었던 판돌 어미가 판돌이를 앞세우고 사립을 들어섰다.

“아이고, 홍장이가 참말로 왔구면. 딸막이네 엄니가 홍장이 나가 온 것같드라고 허길래 긴가민가 왔더니, 참말로 왔구면. 야나, 이것 목그라. 뒤뜰 돌너들경 밭에 갔더니, 산딸기가 지천으로 익어 있길래 한 바가지 따왔니라.”

“고맙소, 판돌엄니.”

“원훈장님도 참, 이까짓 산딸기 한 주먹이 멋이 고맙다요? 고맙기년지가 고맙지요. 어제 저녁에 쌀밥 한 그럭얼 판돌이한테 먹이는데,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원훈장님, 고맙구만요, 원훈장님 고맙구만요, 밥 한 손가락 떠넣을 때마다 열 번 스무 번 인사함서 묵었구만요.”

판돌어미가 목이라도 메이는지 나중에는 울먹이기까지 하였다.

“판돌엄니, 고맙다는 치하말씀은 나한테 말고 여기 아짐씨한테 하시지요.”

“이 아짐씨가 누구신지요?”

“어제 내게 쌀 한가마니를 보내주었던 송부자댁 아줌니요.”

“그래라우? 아심찬허고 또 아심찬허요. 광에서 인심난다고, 부자가 있응께 가난헌 사람도 안 굶어 죽고 살제라우. 고맙고 또 고맙소. 복반으실 것이요.”

“그까짓 쌀 한가마가 먼 대수라고, 사람을 무참하게 멩그신기라우. 원훈장님, 허면 홍장은 시방 지가 데려갈랍니다. 혹시 밤이 늦어 홍장을 보내게 되면 머슴을 팔려 보낼 것인께, 쪼깨 늦어진다고 걱정허지 마시씨요이.”

“아부지, 밤에 오겠습니다.”

홍장의 말에 원량이 목이 메어 당부했다.

“홍장아, 아버지는 걱정허지 말그라. 너와 헤어지기 싫어 복남이가 울거들랑 복남이 곁에서 잠을 자도 된다. 며칠을 나가 못 오면 이 애비가 가면 되잖느냐?”

“예, 아부지. 땡겨오겠습니다.”

홍장이 밝은 목소리를 남기고 떠났지만, 원량의 마음은 편치를 았았다. 못 난 부모를 만나 어린 딸이 고생을 하는구나, 싫어 눈시울이 뜨듯 해졌다.

송정마을 원봉사가 어린 딸을 오지마을 송부자네 집에 애보기로 보냈다는 소문은 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마을을 두어 바퀴 돌고 원량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평소에는 비감도 았던 마을에서 말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녀 어

미가 무슨 큰일이나 난듯이 사립을 들어섰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홍장을 기다리느라 마루 끝에 앉아있던 원량이 귀에 선 발소리에 고개를 들고 물었다.

“뉘시오? 내가 한 번도 안 들어 본 발소리같은데요.”

“나 찌그 아랫녘에 사는 분녀엄니요. 홍장을 오지마을 송부자네 집에 애보기로 보냈답서요?”

“그리 되었소.”

“마음이 짠허겄소. 홍장 엄니가 그리 일찍 죽지만 았했어도 홍장을 애보기로 보내는 일언 없을 판인디.”

분녀엄니가 한숨까지 내쉬었다.

“헌디, 아줌니가 내 집엔 무슨 일이십니까?”

원량이 아낙의 속셈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물었다.

“송부자헌테 쌀얼 한 가마나나 받았답서요? 판돌이네랑 막쇠네랑 또 누구라고 허드라, 쌀얼 한 바가지씩 나눠 줬답서요? 나헌테도 한 바가지만 주씨요. 홍장 엄니허고 나허고 친동기간처럼 정 주고 살았던 걸 생각허면 내가 요짐도 자다가 눈물을 흘리요.”

분녀엄니가 너스레를 늘어놓았다.

원량이 오다가다 귀동냥으로 들은 소리에 의하면 정씨부인과 친동기간처럼 살기는커녕 봉사서방 거천허느라 고생께나 하겠다면서 빈정대기 일쑤였던 아낙이었다. 그런 아낙이 원훈장네 집에 쌀가마나가 있더러, 하는 소문을 듣고 먹잘 것이나 없는가, 하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당신헌테 줄 쌀은 없소, 하고 내칠 수도 없는 원량이 물

었다.

“바가지는 가져왔습니까?”

“혹시 이 년헌테도 쌀을 나눠주까 싶어, 바가지를 가져왔소만, 주실라요?”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그냥 보낼 수야 없지요. 주시오, 바가지.”

원량이 쌀 한 바가지를 담아주자 분녀엄니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돌아서 나갔다.

밤이 한참 깊었는데도 홍장이 돌아오지 않아, 송부자네 집에서 잠을 자야하는 모양이구나, 짐작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사내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뉘시오?”

“예, 오지리 송부자댁 머슴이구만요. 홍장을 업고 왔습니다요.”

“그래요? 고맙소.”

머슴이 홍장을 마루에 내려놓고 돌아서며 말했다.

“홍장아, 내일 아침에 내가 업으로 올텐께 기다리그라이.”

“예, 아재.”

홍장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으로 들어가며 원량이 딸에게 말했다.

“머슴에게 업혀 너를 집어까지 데려다 준 것은 고맙지만, 많이 늦었구나.”

“복남이가 잠이 안 들어서 늦었습니다, 아버지.”

“울지는 않았느냐?”

“안 울었습니다. 복남이는 제가 웃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줌을 싸

놓고 울려고 하다가도 제가 웃으면 배시시 웃습니다.”

“심성은 착한 아이같구나. 하루내 북남이한테 시달리느라 애썼다. 어서 자자꾸나.”

원량이 흥장을 높히고 잠시 앉아 있는데, 흥장이 이내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원량은 또 정씨부인이 그리웠다.

‘부인, 내가 시방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소. 애비로써 애비 노릇을 못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소.’

혼자 중얼거리다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 밑이 뜨뜻해졌다. 다음날이었다.

송부자네 머슴이 와서 흥장을 업고 막 사립을 나간 다음이었다.

몇 사람이 사립을 들어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허허, 저 사람들이 원봉사가 이 집 저 집 쌀을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모양이구나’

원량이 발소리로 한 사람, 두 사람 세면서 멀뚱히 앉아있는데, 누군가 귀에 선 목소리가 말했다.

“원훈장님,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이입니까? 우리한테도 쌀을 나누어 주시요. 이례를 밥 한 톨 못 묵었더니, 눈앞이 빙빙 돌고 있소.”

“허허, 그럼시다. 바가지 주시오.”

원량이 방으로 들어가 쌀가마니를 방문 앞에 끌어다 놓고 여기 있소, 여기 있소, 하면서 내미는 바가지마다 쌀을 담아 건네 주었다. 다섯 번째 바가지에 쌀을 담아 건네주고 이제 끝났구나, 짐작하고 물러서는데,

바가지 하나가 불쑥 손끝을 찼다.

“다섯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가지는 어찌 여섯 개입니까?”

원량의 말에 바가지가 얼른 물러갔다.

“거봐, 귀신얼 쇠이제, 원훈장님언 못 쇠인다고 내가 말했잖혀? 판복이 엄니는 소문도 못들었는가? 원훈장님이 봉사가 되기 전에는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었구먼, 어무이 뱃속에서부터 글을 읽었다고 했든가?”

발소리 다섯 개가 서둘러 물러갔다.

너도 나도 바가지를 들고 찾아오는 통에 송천석이 보낸 쌀 한 가마니는 채 열흘이 못되어 텅 비어 버렸다.

흥장을 데리러 왔던 머슴이 마당에 내팽개쳐진 빈 가마니를 보고 돌아가 송천석에게 고했다.

“주인 어르신, 원훈장님 댁에 쌀이 떨어졌ندی요.”

“뎨 소리냐? 쌀 한 가마니가 채 보름도 못 되어 거덜이 나다니?”

송천석의 얼굴이 순간 별칭게 닳아 올랐다.

“마을 사람들한테 들어본께, 원훈장님이 첩에는 끼니때 굴뚝에 연기가 안 오르는 집에 쌀을 손수 나누어 주었는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드는 통에 그리 되었당구만요.”

“허, 그 양반 오지랴도 넓구나. 내 쌀을 가지고 마음대로 인심을 써? 내가 다시는 쌀을 내주나 보그라.”

송천석과 머슴이 나누는 얘기를 들으며 흥장이 마당 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데, 방 안에서 북남이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송천석의 마누라가 우는 아기를 안고 마루로 나왔다.

“마누라, 원훈장이 글씨, 지난번에 보내준 쌀 한 가마니를 벌써 다 퍼 뿌렸는지 머요?”

홍장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에 서 있었고, 송천석이 숨을 쉰썩거리며 큰 소리를 쳤다.

“원훈장님이 정이 많아서 그런 것을 어쩍니까? 아무 말씀 마시고 쌀 한 가마니 보내 주시제라우. 홍장아, 아버지 걱정이 되어 그러느냐? 아무 걱정 말고 복남이한테 눈길 한번 주그라. 니가 외면을 헌께 복남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구나.”

복남어미의 말에 홍장이 고개를 들고 속으로만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복남이의 입에서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송천석이 복남이의 웃음소리에 풀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 놈의 웃음 좀 보겠다고 목심걸은 내 쌀이 몇 가마나 나갈꼬?”

송천석이 머슴한테 쌀 한 가마니를 지워 원랑에게 보낸 사흘 후였다. 이웃마을에 불일이 있어 나들이를 하는데, 평소에는 저 노랭이, 하면서 침을 뱉 뱉고 외면을 하던 사람들이 ‘송부자 어른신 나오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송천석이 ㅎㅎ, 하는 헛기침으로 인사를 반자 한 사내가 말했다.

“송부자 어른신 덕에 안 굶고 사는구만요.”

“무신 소린가? 내 덕에 안 굶고 살다니?”

“송정마을 원훈장님 말씀이 송부자 어른께서 내려주신 쌀이랍서 두어 되박씩 나누어 주시등구마이라우.”

“두어 되박씩이나?”

“아심찬허다고, 참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더런께, 고마워헐라면 오지

리 송부자 어른께 고마워하라고 허시등구만이라. 꼼짝없이 죽을 목심 살려주셔서 고맙구만이라. 이따 가실에 나무라도 몇 짐 허다덜리랑구 만요.”

만나는 사람마다 굵신굵신 절을 했다.

피 같은 쌀이 아깝기는 했지만, 평소에는 외면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굵신굵신 절을 하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한정 없이 내 쌀얼 내어줄 수는 없제. 원훈장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속이나 알아볼까?’

송천석이 물어 물어 원랑의 집을 찾아갔다.

마루에 앉아있던 원랑이 귀에 익은 발소리에 물었다.

“복남이 아버지가 내 집에는 어인 일이시오?”

“허, 앞도 못 보시는 분이 난 줄은 어찌 아셨는기라?”

“발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소.”

“원훈장님이 신동이였다는 소문이 거짓은 아니었구만이라. 헌디, 지가 훈장님께 따질 일이 있어 왔구만이라.”

송천석이 열려있는 문으로 방안을 흘끔 바라보았다. 한 눈에 보기도 쌀가마니는 텅 비어있는 듯 싶었다.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입니까? 따질 것이 있으면 따져보시구려.”

송천석이 찾아온 이유를 눈치 챈 원랑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뭇땡시 녀의 쌀을 가지고 맘대로 인심을 팍팍 쓴다요? 시방 본께 잇 그제 저다 준 쌀가마니도 비었구만요.”

송천석의 불통거리는 소리에 원랑이 속으로 허허 웃었다.

“복남이 아버지,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려. 내 방안의 쌀이 어찌 덕의

쌀이란 말입니까?”

“지가 내 준 쌀인께, 지 쌀이지라.”

송천석이 기가 죽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이보시오, 복남이 아버지. 내 집에 온 쌀이 원래 내 쌀이 아니었듯이, 댁네 집에서 나온 쌀도 댁의 쌀이 아니요. 입자 없는 쌀을 나누어 먹었기로서니, 그 일이 잘못이요? 정 아깝거던 앞으로는 쌀을 보내지 마시오.”

“쌀을 안 보내겠다는 말썽이 아니라, 허핑더핑 나누어주시지 말라고 디리는 말썽입니다.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려 섬진강 물이 불어 낙안포에서 배가 오면 쌀 일백 가마를 실어보내기로 했는디, 훈장님 덕에 잘 못허면 쌀 백가마를 못 맞추겠기에 디리는 말이구만요.”

송천석의 말에 원량이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복남이 아버지, 요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고맙다고 절을 하지요?”

“지 평생 한 번도 안 받아 본 절을 요짐에는 정신없이 받는구만이라.”

“어떻던가요?”

“얼떨떨허드구만이라. 지가 절을 받아도 되는가 싶기도 허고라우.”

“그랬을 것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자린고비 노랭이라고 뒤쪽지에 욱이나 얻어 먹었겠지요.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복남이 아버지가 쌀을 안 보내오면 몰라도 쌀을 보내오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줄 것이요.”

“하이고, 그러면 안 돼라우. 흥장이가 안 오면 복남이가 또 울어떨 것인디, 나이 손이 넘어 삼신상제님의 음덕으로 겨우겨우 얻은 복남이 우

는 꼴은 지가 못 보는디, 쌀을 안 보내면 흥장이를 우리 집에 안 보낼 것인디, 이 일얼 어쩐다요?”

“복남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으면 할 수 없이 나한테 쌀을 내놓아야겠군요. 나는 또 오지마을 송부자한테 고맙다고 절을 하라고 이르면서 쌀을 나누어줄 것이고요.”

“안 된당께요. 내 피 같은 쌀인디, 안 돼라우.”

송천석이 울먹였다.

“복남이 아버지, 쌀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푸시오. 아마 복남이한테 물어봐도 착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할 것이요.”

“착헌 아버지요?”

“그렇소. 쌀 한 톨에 별벌 떠는 아버지보다 끼니때가 되어도 굴뚝에 연기를 피워 올릴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아버지를 원할 것이요. 실상은 댁이 나한테 보내준 쌀은 댁이 보낸 것이 아니라, 복남이가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요.”

“면 자다가 봉창 뜯는 말썽이대요?”

송천석이 큰 소리로 물었다.

아직 돌도 안 지난, 겨우 었어졌다 뒤집어 졌다하는 것만 할 수 있는 복남이가 쌀을 보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복남이는 노랭이 아버지가 싫었겠지요. 말을 못해 제 생각을 겹으로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는 다 알고 있을 것이요. 오죽했으면 어린 아이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말도 있겠소?”

“훈장님의 어려운 말썽엔 도통 모르겠고라, 한 가지 이상헌 것은 있

소.”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붕이 뚫어져라 올려대던 우리 복남이가 흥장이만 만나면 울음을 그치고 생글생글 웃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당께요.”

“인연이겠지요, 인연. 둘의 마음이 통했다고나 할까요? 어린 복남이는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흥장의 웃음을 보았던 것이지요. 나이 선이 넘었다고 했지요? 부인은 선이 가깝고?”

“우리 부부한테는 삼신할매가 자식을 점지해 주지 않을랑갑다고 포기를 하고 살았구만요. 자석이 없는 대신에 재산이나 모으자고 악착같이 살았구만요. 그러다가 다 늦게 자석이 태어나자 자석에게 물려줄 욕심으로 더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구만요. 천석은 다 못 되고 칠팔백석지기 부자는 됩니다만, 늦둥이 자석놈이 어찌나 올려대는 통에 맴고생께나 했구만요.”

송천석이 목소리에 물기를 담아 하소연을 했다.

“겨우 복남이의 울음을 그치게 했더니, 이번에는 원훈장이라는 놈이 피같은 쌀을 막 퍼주어서 속이 상한다, 이것이지요?”

“흐따, 귀신이에요이.”

송천석이 말 끝에 웃음을 매달았다.

“복남아부지. 복남이를 웃게 만든 흥장의 웃음을 생각해 보시오. 어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흥장의 웃음이 복남이를 웃게 만들었고, 복남이의 웃음이 제 아버지의 끝없는 욕심을 누그러뜨린 것이 아니겠소? 광방문을 활짝 열으시오. 최소한 인근 오십 리 안의 사람들이 굶어죽지는 않게 해보시오.”

원량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흐참, 혹 떼러 왔다가 혹을 몇 개나 달고 가는지 모르겠소. 저 갈라요. 쌀은 또 보내디릴텐께, 밥언 굶지 마시씨요이.”

송천석이 불통거리며 돌아갔다.

그날 오후였다.

골목길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 원량이 사립을 나와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난리라도 난 것처럼 뛰어 가십니까?”

“오래 안 살아도 참 별 일이요예. 오지마을 송부자가 쌀얼 나누어 준다고 안 험니까? 쌀 받으로 가요. 훈장님도 가십시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퍼 주시나라고 집에 쌀도 안 남았을텐디.”

“나는 되었으니, 잘 받아다 맛있게 잡수시오.”

원량이 고개를 끄덕일 때였다.

바람기운에서 축축한 물기가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코끝에서는 물 냄새도 났다.

6. 홍장이 성덕을 만나

“누나, 복남이가 보고 싶어 하면 어떻게 누나가 와?”

복남이가 물었다.

“복남이가 누나 보고 싶어 하면 누나도 복남이가 보고 싶으니까 오지. 오늘은 왜 누나가 보고 싶었니?”

홍장이 웃으며 복남이를 안아 주었다.

“응, 이것.”

복남이가 노랗게 잘 익은 살구 세 알을 내밀었다.

“너 혹시 살구를 따겠다고 살구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니겠지?”

“아니야. 누나한테 준다고 했더니, 춘복이 아저씨가 따주었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누나 먹어.”

홍장이 살구 한 알을 들어 씨를 발라내고 복남을 향해 내밀었다.

“복남이 너 먹어.”

“난 어제도 다섯 개나 먹었는걸. 이걸 누나가 먹어.”

“누나도 먹을 것이니까, 복남이도 먹어. 안 그러면 누나도 안 먹을거야.”

“히히, 그러면 똑같이 하나씩 목자.”

복남이가 살구 한 알을 씨를 발라내고 홍장의 입에 넣어 주었다. 홍장이 씨를 발라 낸 살구를 복남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아이, 셔라. 그래도 살구는 맛있어. 하나는 누나가 목어.”

복남이가 한 개 남은 살구의 씨를 발라 내밀었다.

“누나는 복남이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복남이는 누나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둘이 살구 하나를 놓고 서로 먹으라고 권하는데, 마루 위에서 호호호 웃음소리가 들렸다.

“애들도 참, 살구 하나가 멋이라고 서로 먹으라고 고집을 부리느냐? 춘복이더러 하나 더 따 달래면 되지.”

송천석의 마누라가 흐뭇한 낯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더는 싫어. 시어서 그만 먹고 싶어. 이건 아까운게 누나랑 나누어 목자.”

복남이가 살구를 반으로 쪼개 홍장의 입에 넣어 주었다.

“누나는 안 시어?”

“복남이가 주는 것은 안 시어. 아, 맛있다.”

홍장이 짹짹 소리가 나도록 씹은 살구를 삼키자 복남이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나머지 절반의 살구를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어 삼켰다.

그모습을 웃으며 바라보다가 홍장이 말했다.

“복남아, 오늘부터 글공부를 할 것인데, 싫은 것은 아니지?”

“글공부가 멋인다?”

“글자를 익히고 쓰는 것이란다. 너, 네 이름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느냐?”

“내 이름은 송복남인데, 쓸 줄은 몰라.”

“글자를 배우면 네 이름도 쓸 수 있고, 네 아버지 어무니 이름도 쓸 수 있다. 사내 나이 일곱이면 글을 배울 때가 되었다.”

홍장의 얘기를 들었는지 복남이의 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아니, 홍장아. 네가 글을 아느냐?”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천자문은 외워서 쓸 수도 있고요. 소학이랑 명심보감은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성만 보살인 줄 알았더니, 글공부까지 했다니, 참으로 장허구나. 복남아, 누나한테 글공부를 허겼느냐?”

“누나가 갈쳐준다면 좋아. 어무이, 나 글공부할래. 내가 글공부를 하면 누나를 날마다 볼 수 있는거지?”

복남이가 박수를 짹짹치며 필쩍필쩍 뛰었다.

“그럼, 글공부도 하고 복남이 얼굴도 보고, 누나도 좋구나.”

“홍장아, 복남이 글공부 값은 따로 주마. 안 그래도 원훈장님께 의논을 디릴라고 했니라. 나이가 일곱 살이면 책을 손에 쥘 때도 되었는데, 어뜨케 허는 것이 좋겠냐고 의논을 디릴라던 참이었니라.”

복남 어머니의 말에 홍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천자문은 저한테 배워도 될 거예요. 이따 소학이랑 명심보감은 제 아버지한테 배우면 될거고요.”

그날부터 바로 복남이의 천자문 공부가 시작되었다.

늦둥이라고 응석반이로 자란 것과는 달리 복남이는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를 부리지 않고 잘 따라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제 아버지한테 종이와 붓, 벼루와 먹을 사달라고 졸라 글공부를 마치고 홍장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저 혼자 그날 배운 글자를 열 번 스무 번씩 써서 꼭 익혀놓는 것이었다.

“훈장님, 이것이 검을현 자가 맞제요?”

글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복남의 말투도 달라졌다. 누나 대신에 훈장님이라고 불렀고, 말 끝에 ‘요’자를 붙였다.

“훈장님이라고?”

홍장이 되묻자 복남이가 대답했다.

“글을 가르치는 사람을 훈장님이라고 부르다면서 나한테도 누나를 훈장님이라 부르라고 했어요.”

“누가?”

“아버지가요. 훈장님은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한다고 했어요.”

“복남아, 그냥 누나라고 불러.”

“안 돼라우. 누나를 훈장님이라고 안 부르면 아버지한테 혼난당께요.”

“그러면 글공부할 때만 훈장님이라고 부르렴.”

“아이, 좋아라. 복남이도 훈장님은 무서워서 싫어.”

복남이의 천자문 공부를 시작한지 보름 남짓 지났을 때였다.

송천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앉아 있다가 글공부가 끝나자 흥

장에게 말했다.

“홍장아, 송천석이라는 내 이름자를 이 종이에다 써주었느냐?”

홍장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제가 알고 있는 글자로는 써드릴 수가 있는데, 복남이아부지 이름은 어떤 글자를 써야할지 몰라 써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그것이 먼 말이나? 그냥 송천석하고 세 글자만 써주면 안 되냐?”

“송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천자도 하늘을 가리키는 천자가 있고, 샴을 가리키는 천자도 있고요, 어느 송자 어느 천자 어느 석자를 써야 할지 몰라서 못 써드리겠는데요.”

“허허, 글자라는 것이 참 요상시럽기도 허구나. 멋이 그리 복잡허다냐? 그래도 사람으로 살면서 지 이름자 정도는 알아야쓰께, 훈장님께 말썸디려 내 이름 석 자만 받아다 다테요.”

“예, 복남이 아부지.”

홍장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송천석(宋天石)이라는 이름 석 자를 적어다 주자 송천석이 ‘이것이 내 이름이라는 말이제?’ 하며 좋아했다.

며칠 후였다.

송천석이 글공부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얼굴을 내밀었다.

“홍장아, 내가 너 허고 의논 할 일이 있구나. 너 말이다. 니 아부지면 키로 여러 명을 모아놓고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왜요?”

홍장이 물었다.

“사실언 말이다. 오지마을 아이들이 복남이가 너한테 글을 배우는 것 열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는구나. 부모들이 복남이 옆에 한 자리 짊 수

없느냐고 나한테 묻든구나.”

송천석이 홍장을 정말 혼장처럼 어렵게 대하면서 조심스러워 했다. 송천석의 그런 모습에 속으로 웃으면서 홍장이 시원스레 대꾸했다.

“좋아요. 헨디. 글공부를 하려면 서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걱정허지 말그라. 내가 서책도 구해주고, 종이며 붓이며 서당에서 필요한 것은 넉넉허게 구해다 주마.”

그래서 느닷없이 송천석의 사랑방이 열다섯 명의 학동을 둔 서당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홍장을 칭찬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다.

“홍장이 말이며, 나이가 들수록 영락없는 지 엄니드구면.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달짝 웃는 그 웃음이며, 늘 평안한 낮빛이 지 엄니를 빼다 박았당께.”

“홍장엄니가 참으로 심성이 고운 여자였제. 남이 배가 고프다면 자기 입속에 들어가던 것도 꺼내어 주었으께.”

“지어미는 지아비를 닮고, 지아비는 지어미를 닮는다고, 부부가 똑 같았제.”

“홍장이 왜 그리 심성이 고운가 헨더니, 지 아부지허고 엄니를 닮아서 그런 갑구만. 따지고 보면 송부자가 마음보를 고쳐묵은 것이 다 누구 때문인가? 홍장이 때문이 아닌가?”

“홍장이아말로 보살이구면, 보살.”

“홍장보살? 관음보살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홍장보살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디.”

“어린 보살이며, 어린 보살.”

“흐긴, 보살 중의 참보살이제. 인근 오십 리 안 사람들이 안 굶어죽고 살아난 것이 다 누구 때문인디? 홍장보살, 아니, 어린 보살님 때문이 아닌가.”

그 무렵은 서운어미가 송정마을로 돌아와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호박전을 부쳤다고 몇 잎가지고 오더니, 홍장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왜요? 아줌니.”

“글고 본께, 니 얼굴이 대홍암의 관음전에 계시는 관음보살님을 닮기는 닮았구나. 아니, 영락없는 관음보살님 얼굴이구나.”

서운어미가 감탄을 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원량이 물었다.

“아침씨, 정말 우리 홍장이 관음보살님을 닮았소?”

“그렇당께요? 이 년이 몇 뽕시 거짓말얼 한다요? 그 전에는 홍장엄니만 관음보살님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디, 동네 사람들이 하도 홍장보살, 홍장보살, 허길래 오늘 자세히 본께, 영락없는 관음보살이구만요.”

“아침씨 말씀을 듣고 보니, 범룡스님이 그리워지는군요. 그 먼 나라에서 잘 지내시는지 갑자기 그리워지는군요.”

“보타산 보타사가 큰 절이람서요? 글고 본께 곤대인은 영영 안 돌아올 모양이제요? 진나라로 건너간지 벌써 다섯 해가 돼가느만요.”

“송정마을 뒷산의 철을 캐 먹을만큼 캐 먹은 모양이지요. 아니면 오지 못할 판 사정이 있던지요. 아침씨, 내일은 대홍암에나 가보고 싶습니다. 쌀 두어 되박에, 양초 다섯 자루만 구해주시렵니까?”

“허면 이 년이 피시고 갈랑구만요. 홍장은 훈장 노릇을 해야한

께...”

“저도 갈래요, 아줌니. 글공부만 시키고 바로 올게요.”

“허면 그러려므나.”

서운어미가 시원스레 대꾸했다.

다음날이었다.

홍장이 천자문 가르치기를 끝내고 ‘오늘은 그만 가봐야겠다’고 서두르자 복남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누나, 섬진강에 나가서 잉어를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고 그냥 갈거야?”

“미안해, 복남아. 오늘은 누나가 대홍암에 관음보살님을 뵈러 가야해. 잉어는 내일 보러가자.”

“싫어. 나도 누나 따라 갈테야.”

복남이가 떼를 썼다.

“복남아, 대홍암은 시오리나 되는 먼 곳에 있어. 가다보면 깔쿠막이 나오는데, 어른들도 올라가기 힘든 곳이란디.”

홍장이 달랬으나, 복남이가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집을 부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홍장이 난감해하자 복남이 어머니가 나섰다.

“홍장아, 복남이가 저리 고집을 피우니, 데리고 다녀오는 것이 어떠냐? 내가 시방겨정 절에 시주라는 것얼 해본 적이 없단디, 쌀이나 한 말 가져다가 부치님 전에 바치기도 하고, 복남이에게 관음보살님도 보여 주는 것이 좋을 듯습구나. 춘복이 내외를 팔려 보내마.”

“복남이 엄니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지고 보면 홍장에게 대홍암은 초행길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태어난 지 사십구 일 만에 어머니의 사십구재를 지내느라 서운어미의 등에 업혀 와 눈가가 짓무르도록 운 것이 전부였다. 물론 홍장의 기억 속에는 없는 일이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아버지도 서운어미도 대홍암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요즘 들어서야 홍장은 청계산의 한 골짜기에 대홍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그 암자에는 관음보살이 되셔져 있다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었다.

보름 쯤 전이었다.

홍장이 마을 공동우물 곁을 지나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어떠어? 입가에 살짝 보일 듯 말 듯 웃음기를 보이며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대홍암 관음보살님이제?”

“그렇게 사람털이 홍장보살, 홍장보살, 안 허능가?”

“참 신통허기는 혀. 울던 애기들이 홍장이 안아주며 얼르면 울음을 뚝 그친다고 허등만. 홍장이 심성 고운 것을 어린 애기도 알아보는 것이겠제.”

“아, 송부자네 늦둥이만 봐도 알 수 있잖허? 어미 아버도 못 말리던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이 홍장 아닌개벼.”

그날 이후 홍장은 자신이 빼다박은 듯이 닳았다는 대홍암의 관음보살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오르막을 미처 오르기도 전에 복남이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주저앉아

버렸다.

평지에서는 머슴 춘복이 마누라가 ‘도련님, 이 년 등에 업히시제라’ 하고 등을 내밀면 ‘싫어. 싫어’하며 고개를 내젓더니, 막상 오르막이 눈앞에 펼쳐지자 겁이 덜컥 난 모양이었다. 하긴 일곱살짜리 어린 아이가 십 리를 제 다리로 걸어온 것도 대견하기는 했다.

“복남아, 누나가 업어줄게. 누나 등에 업히거라.”

홍장이 주저앉아 등을 내밀자 복남이가 고개를 내저었다.

“이 깔कु막은 복남이 네가 혼자 올라가기에는 무리야.”

“싫어. 내가 업히면 누나가 힘들잖아.”

복남이의 속내를 눈치 챈 춘복이 마누라가 얼른 등을 내밀었다.

“도련님, 이 년이 업어 뒀시겠습니까요.”

복남이 해해 웃으며 날름 업혔다.

서운어미가 홍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홍장아, 너는 괜찮허냐?”

“저는 괜찮습니다. 아줌나가 힘이 드시겠습니다. 쌀이 한 말이면 물 한 동이보다 무거운 것인데, 제가 좀 이고 갈까요?”

“아니다, 아니여. 이렇게 무겁게 이고가야 시주를 바친 공덕이 돌아온단다. 글고 시주로 바칠 쌀은 하나도 안 무겁당께.”

서운어미의 말에 춘복이가 흐흐 웃으며 토를 달고 나왔다.

“아침씨도 참, 거짓말도 잘 허신구만요. 남자인 나도 무건디, 안 무겁다고라?”

“그 쪽은 나보담 정성이 부족헌 모양이요. 홍장아, 열 두 헥가 열세 헥 전에 내가 너를 업고 이 깔कु막을 올라갔었니라. 그때는 너무 서러워서

등에 업은 니가 무거운 줄도 몰랐구나.”

“그때 아침씨가 고생이 컸지요. 핏덩이 흥장이는 업고, 앞 못 보는 내 지팡이는 끌고, 이 고개를 오르느라 생고생을 했지요.”

원량이 말했다.

“서러워서 울었지요, 힘이 들지는 안했구만요.”

“나도 그날 이후 다시는 대홍암을 찾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범룡스님이 계속 기거를 하셨고, 서로 간에 왕래가 있었다면 소풍삼아 몇 번 왔을지도요.”

그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반시각 남짓 오르막을 올라가자 대홍암이 나왔다.

‘내가 여길 열세 해만에 온다고?’

서운어미의 말이 태어난 지 사십구 일 만에 어머니의 사십구재를 지내러 왔었다니까, 열 세해만에 오는 것이 틀림없었다.

홍장의 나이 어느덧 열 네 살이었다.

대홍암 백팔계단을 올라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관음전에서 목탁소리와 함께 염불소리가 들렸다.

순간 홍장의 가슴으로 뜨거운 뭉치 같은 것이 치솟는데, 휴, 한숨을 내쉬면서 소맷자락으로 땀을 닦고 난 서운어미가 말했다.

“훈장님, 깔쿠막도 힘이 든디, 백팔계단은 더 힘이 들만요이.”

“그럴 것이요. 돌계단 하나하나에 인간의 백여덟 가지 번뇌가 쌓여 있으니, 고될 수밖에 없지요. 염불 내용으로 보아 구천을 헤매는 길 잃은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천도재를 지내는 모양입니다. 곧 끝날 것 같으니, 요사채 마루에 앉아 땀이나 식히면서 기다려 봅시다.”

“그러시제라우.”

한참을 앉아 있어도 염불은 그치지 않았다.

복남이가 시타구니를 부여잡고 동동거렸다.

“복남이가 소피가 마렵구나? 아줌니가 해우소에 데려다 주마.”

“해우소요?”

홍장이 물었다.

대답은 원량이 했다.

“똥오줌 못 싸는 근심도 인간의 근심 가운데 큰 근심이니라. 시원하게 한비탕 싸고 나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절간에서는 측간이나 통세라고 안 허고 해우소라고 부르니라.”

“흐, 똥오줌 싸는 곳에도 그런 어려운 뜻이 있었소이. 가자, 복남아. 아줌니가 해우소에 데려다 줄게.”

“싫어요. 누나와 갈래요.”

복남이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그라. 훈장아, 해우소는 관음전을 지나 쪼깨만 가면 나온다. 복남아, 똥간이 겁나게 깊은께 조심히그라이. 헨디,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작은 것이면 똥간 옆의 거름자리에다 싸면 된다이.”

다행히 복남이의 볼 일이 작은 것이라서 거름 간에 볼일을 마치고 관음전 앞을 지나는데, 열어놓은 문으로 관음보살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영락없는 관음보살이드랑께’ 하던 마을 아낙의 목소리가 홍장의 귀청을 때렸다.

홍장이 복남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르면서 관음전 앞으로 다가갔다.

관음전에서는 어머니와 딸인 듯싶은 어린 여자 아이가 손을 가슴

에 모으고 계속 절을 하고 있었고, 스님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있었다.

홍장의 손이 저절로 가슴에 모아졌다.

홍장이 관음보살을 향해 절을 하자 복남이가 따라했다.

둘이 열 번 스무 번 절을 하고 있는데, 염불소리가 그쳤다.

“보살님, 재를 마쳤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불단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자 모녀도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켰다.

“처자는 어디서 오신 뉘신가?”

관음전 밖에 서 있는 홍장에게 스님이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물었다.

“예, 송정마을에 사는 원홍장이라 합니다.”

홍장이 합장으로 인사하며 대답하자 스님이 놀란 눈빛을 지었다.

“송정마을이라면 예서 멀지도 않은데, 오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렸구나. 처자는 모친이 보고 싶지도 않았는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얼마 전에 탁발을 나가 들은 소리가 있구나. 관음보살을 닮은 어떤 보살이 딸 하나를 낳아놓고 극락왕생했는데, 그 보살의 딸이 나이 열세 살이 되어 오지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아낙들의 말이 딸이 어미를 쫓 빼다 박은 듯이 닮았는데, 얼굴이 대홍암의 관음보살과 판박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보니 그 말이 빈 말은 아니었구나.”

스님의 말에 복남이가 홍장과 관음보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소리를

질렀다.

“누나, 똑같이. 저기 앉아있는 여자와 누나의 얼굴이 똑같이.”

홍장이 열린 복남이를 말했다.

“복남아, 저기 저 분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관음보살님이시란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히히, 그래도 누나하고 똑같이.”

복남이 신기한 듯 홍장과 관음보살을 번갈아 쳐다보며 싱글싱글 웃었다.

“어린 아이의 눈, 어린 아이의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홍장처자를 한 번 만나고 싶었구나. 사람들의 소문대로 홍장보살이 정말 관음보살을 닮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단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이따 내 방에서 차나 한 잔 하자꾸나.”

스님이 돌아간 다음이었다.

해우소에 간다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서운어미가 무슨 일인가하고 관음전으로 찾아왔다.

“여기서 머혀느냐? 나년 복남이가 똥간에 빠진 줄 알았구나.”

“히히, 아줌나도 작은 것얼 쫓는디, 똥간에 왜 빠져요?”

복남이가 히히 웃을 때였다.

모녀가 마지막 삼배를 드리고 돌아섰다.

“아니, 배실댁.”

서운어미가 소리를 질렀다.

“서운어무이. 여그서 만나네요? 어쩐 일이래요?”

배실댁이 서둘러 다가와 서운어미의 두 손을 움켜 잡았다.

“나야 관음보살님을 뵈러 왔지만, 배실댁은 먼 일이여? 원훈장님 말씀이 염불소리를 들어본께, 천도재를 지내는 갑다고 하시드니, 누구 천도재를 지내러 온 것이여?”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만. 사십구재겸 천도재를 지내러 왔구먼.”

“가심에 병이 들어 늘 골골하시드니, 기연시 돌아가셨는갑만. 내가 낙안포에서 돌아온 지 다섯 해가 넘었으께, 다섯 해는 더 살으셨구만. 고생이 많았구만.”

“고생은 성덕이 아가 다 했제. 나야, 식구들 먹여 살린다는 핑계로 바다로 산으로 밖으로만 나돌았으께.”

“딸내미가 이름이 성덕인가? 이름이 참 복시럽게 들리네. 그때 복중에 품고 있던 아가 안갑만. 헌디, 낙안 근방에 절도 있고 암자도 있는데, 여그꺼정 왔당가?”

“대홍암 관음보살님이 불쌍헌 사람들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해서 사흘을 걸어 왔구먼. 성덕이 아버지 극락왕생도 빌고, 우리 성덕이 아프지 말고 잘 크다가 좋은 신랑 만나게 혀돌라고 빌러왔당께.”

제 어미의 말에 성덕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짓을 했다.

“싫어. 나 시집 안 간당께.”

“흐흐, 니가 시집이 먼지나 알고 혀는 소리냐? 질만 가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디.”

서운어미가 흐흐 웃었다.

아까부터 홍장은 성덕이라는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맑은 아이였다.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으며 두툼한 귓부리에서는 빛이 흐르는 듯 눈

이 부신 아이였다.

홍장이 무어라고 말이라도 걸어보려는 참인데, 성덕이가 불단 위에서 밤 한 톨을 가지고 오더니, 불쑥 내밀었다.

“나를 주는 것이니?”

홍장이 웃으며 물었다.

“홍장 언니, 잡수세요.”

“내 이름이 홍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니?”

“아까 스님께 홍장이라고 혀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덕이 밤 한 톨을 홍장의 손에 쥐어주고는 부끄러운 듯 요사채 쪽으로 도망을 갔다.

“별 일이네. 우리 성덕이가 숫기가 없어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 붙이네. 홍장처자가 좋은 갑네.”

성덕의 어머니가 흐 웃었다.

재에 올렸던 음식이며 과일들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였다.

원량이 스님에게 물었다.

“주지스님은 범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법열이라 합니다. 범룡스님의 사제가 되는 셈이지요.”

“하면 진국의 보타산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예, 보타산 보타사에 있다 왔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원처사님은 불심이 누구보다 깊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열스님이 원량을 향해 합장을 했다.

“홍장 어무니가 저 세상으로 떠난 다음에는 대홍암 쪽에는 눈길도 안 돌리고 살았습니다. 내자를 그리 일찍 데리고 간 것이 부처님인 듯도

싫고, 관음보살님인 듯도 싶어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한 동안은 대홍암에 발길을 하지 않을 것이니, 먼저 찾아가지는 말거라, 자기 발로 찾아올 때까지는 모른 체 하거라, 하시더군요.”

“그런다고 어찌 마음에서까지 털어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한낱한 시도 대홍암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홍암이라는 암자가 아니라 관음보살님이셨겠지요. 아까 마루에 앉아계시는 원차사님을 처음 뵈고 관음보살님을 꼭 붙들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허허,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차사님께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언제나 오실까 기다렸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따님이신 홍장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 딸에게 왜요?”

“사람들이 홍장보살이라 부르더군요.”

“보살은요, 무슨. 홍장의 나이 이제 겨우 열 넷입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막 태어나 처음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보살행이고, 홍장이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밤 한 톨은 성덕이가 홍장에게 베푸는 보살행이 아니겠습니까?”

“밤 한 톨도 보살행이라고요?”

“그럼요. 성덕이는 홍장에게 밤 한 톨을 주는 환희심을 가졌을 것이고, 홍장은 성덕의 좋은 마음에 환희심을 가졌을 것이 아닙니까? 타인에게 환희심을 준다는 것만큼 큰 보살행도 없지요. 안 그렇느냐? 성덕

아.”

법열스님이 말머리를 갑자기 다섯 살짜리 성덕에게 돌렸다.

성덕이 대답은 못하고 빙그레 웃기만 했다.

“말은 안 하지만 성덕이의 얼굴에 환희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환희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열스님의 말에 성덕이 겨우 대꾸했다.

“홍장 언니를 보자 저절로 웃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헤어졌던 친언니를 만난 것처럼 기뻐요.”

“그래서 밤 한 톨이라도 주고 싶어지더냐?”

성덕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홍장이 말했다.

“이상합니다, 스님. 성덕이를 처음 보는 순간 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한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날마다 한 집에서 살고 한방에서 잠을 자는 친동기간처럼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꼭 껴안아주고 싶을 만큼 정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홍장의 말에 법열스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좋은 인연이구나. 참 좋은 인연이로구나.”

원량이 물었다.

“좋은 인연이라면 오늘의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래의 인연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만남이 서로 간에 즐거웠으니까, 오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고, 오늘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전생에도 좋은 인연이었겠지요.”

“전생에도요? 하면 홍장과 성덕이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다는 말씀입

니까?”

“암요. 좋은 인연이었지요. 홍장과 성덕은 전생에 늘 함께 붙어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오누가 되었건 자매가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함께 살았을 것이며, 나비였다면 암수가 되어 함께 날았을 것이고, 꽃이건 나무건 가까이에서 짝으로 붙어살았을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도 좋았고, 오늘의 인연도 좋으니, 미래의 인연 또한 좋을 것입니다. 둘은 서로에게 빛나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법열의 말에 홍장이 물었다.

“하오나 스님, 성덕이와 저는 이제 곧 헤어집니다. 전생에는 몰라도 현생에는 헤어져 살아야합니다.”

“홍장처자는 오늘 헤어지면 성덕이를 영영 잊을텐가?”

“아닙니다. 제게 밤 한 톨로 환희심을 안겨 준 성덕이를 어찌 잊겠습니까?”

홍장의 말에 법열스님이 고개를 성덕에게 돌렸다.

“성덕이 너는 어찌냐? 오늘 헤어지면 홍장 언니를 잊겠느냐?”

성덕이 고개를 가로로 내저었다.

“서로가 잊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홍장은 가슴 안에 성덕이를 품고 살고, 성덕이는 가슴 안에 홍장이를 품고 산다면 늘 함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니겠느냐?”

말을 마친 법열스님이 몸을 일으켜 벽장 속에서 어른 주먹만한 목탁을 두 개 꺼내 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법열스님이 물었다.

“목탁입니다.”

홍장과 성덕이 한 입으로 대답했다.

“무슨 형상으로 보이느냐?”

법열스님이 다시 물었다.

홍장과 성덕이 대답을 못하자 법열이 목탁을 딱딱 두 번 두드리고 말했다.

“물고기니라. 너희들, 종루에 종과 함께 매달려있는 목어를 보았겠지? 목어는 너무 커서 들고 다니면서 칠 수는 없다. 목어를 줄여 들고 다니면서도 칠 수 있게 만든 것이 목탁이다. 보거라. 목탁의 양쪽에 동그란 구멍이 있지? 이것이 물고기의 눈이다. 구멍과 구멍 사이 갈라진 틈이 보이지? 입이다. 하면 손잡이는 물고기의 무엇이 되겠느냐?”

홍장이 대답했다.

“꼬리입니다.”

“어찌 꼬리라고 하느냐?”

“눈과 입 몸통을 지나면 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다. 꼬리니라. 목탁이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연유가 있다. 듣고 싶으냐?”

“듣고 싶습니다, 스님.”

성덕이 또렷한 목소리로 청했다.

“한 고승에게 세 명의 제자가 있었느니라. 두 제자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한 제자는 너무 게을러 아침 도량석에도 참석하지 않을 뿐더러 전날 속세에 나가 술이라도 마신 날은 새벽예불도 건너뛰는 날이 많았다는구나. 그렇게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속세로도 망을 쳤다는구나. 오랜 세월이 흘러 스승과 제자 둘이 탁발을 나가 넓

고 깊은 강을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 풍량이 심했다는구나. 스승이 뱃머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염불을 외우자 강물이 잔잔해졌는데, 두 제자가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배를 의지하여 따라오고 있더라. 물고기의 등에는 큼지막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지? 등에서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가 너무 불쌍하여 두 제자가 눈물을 흘리자, 스승이 두 제자에게 '저 놈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십 수 해 전에 내 슬하를 떠난 그 놈이나라. 등에 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갓지 못한 업보가 있기 때문이나라. 말을 마친 스승이 물고기가 된 제자를 위하여 수록천 도재를 지내주자 사람으로 변하여 물에 오른 게으른 제자가 등의 나무를 잘라 제 모습 그대로의 물고기를 조각하여 스승께 바치면서 '스승님, 이 게으르고 난잡한 놈을 종루에 걸어두시고 하루에 두 번씩만 두드려 패 주십시오' 하였다는구나."

"하면 스님, 목탁을 치는 것은 물고기가 된 제자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기 위한 것입니까?"

원량이 물었다.

"그것보다는 목탁을 치는 스스로를 나무라기 위해서지요. 목탁은 세상을 깨우치기 위하여 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며, 미물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기도 하지요. 홍장아, 너는 눈을 감고 있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물고기는 항시 눈을 뜨고 있다. 목탁의 두 눈은 수행하는 자는 항시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홍장아, 너는 목탁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목탁소리가 맑은 것처럼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홍장의 대답에 법열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었다.

"목탁소리가 왜 맑은지 아느냐?"

홍장이 미처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히자 법열이 말했다.

"속이 비었기 때문이나라. 통소가 여러 가지 오묘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대나무의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나라. 허나 목탁의 속을 비운 것은 꼭 맑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수행하는 자는 마음을 비우고 목탁을 치고, 목탁소리를 듣는 중생은 마음을 비우고 그 소리를 들어야한다는 뜻을 담고 있나라. 세상의 온갖 소음에도 목탁은 언제나 맑은 소리를 내느니라. 내가 홍장과 성덕 둘에게 이 목탁을 하나씩 나누어주겠다. 늘 가까이 두고 백 여덟 번씩 하루에 세 번씩만 치거라."

법열스님이 홍장과 성덕에게 목탁을 건네 주었다.

홍장이 합장으로 절하고 목탁을 받자 성덕이 따라 합장하고 목탁을 받아 들었다.

원량이 물었다.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인가요? 스님."

"물론이지요. 살구나무 목탁에 대추나무로 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탁을 치면 소리가 도솔천까지 가겠군요."

"원처사께서 잘 아시는군요."

"법룡스님께서 살구나무를 구하러 송정마을에 여러 차례 오셨습나다. 대추나무 가지도 한 아름 잘라 가셨구요. 그때 제가 절간의 스님께 서 웬 나무욕심이 그리 많으십니까? 하고 여쭙었더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허, 그러셨군요. 스승님께서 기름기가 번들번들한 낡은 목탁 하나를 유난히 아끼시길래 무슨 연유인가 했더니, 송정마을의 살구나무와 대추나무로 만든 것이기에 그러셨군요. 원처사님, 소승이 무슨 까닭으로 두 아이에게 목탁을 내어준 지 아십니까?”

“스님의 깊은 속내를 속인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두 아이가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니요?”

“아까 두 아이가 마루에 오르기 전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두 아이가 다 마루에 올라 돌아앉아 무릎을 꿇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더군요. 어른들은 신발을 벗어놓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두 아이는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더라 말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정신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발 한 켤레에도 그런 오묘한 뜻이 숨어 있었군요.”

원량이 고개를 끄덕였다.

“홍장아, 성덕아. 너희들은 오랜 시간을 서로 그리워만 할뿐 만나기는 어려운 것이니라. 간절하게 보고 싶을 때면 목탁을 치면서 그리워하거라, 하면 꼭 만나게 될 것이니라.”

홍장과 성덕이 서로 눈을 마주친 다음에 법열스님께 합창으로 인사하며 대답했다.

“예, 스님.”

법열이 마주 합장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좋은 인연이구나. 아름다운 인연이구나. 너희 두 사람의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빛이 가득할 날이 오겠구나’

7. 내 딸을 바치리다

“허, 햇살이 내 오른쪽 볼따귀를 간질이는 것을 보니, 해가 한 뼘쯤은 남았구나. 홍장이 돌아오려면 두 시각은 더 남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빨리 보고 싶을까?”

갑자기 안달이 난 원량이 몸을 일으켰다.

막 토방에서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부엌에 있던 서운어미가 얼굴을 내밀고 물었다.

“홍장님, 아직 해가 질라면 한참인데, 필새 홍장 마중을 나가신기라?”

“바람이나 좀 쐬려구요.”

“허면 그러시지라. 저녁에는 지난번에 송부자 집에서 가져다 놓은 자반고등어릴 구워 놓을텐께, 잡수씨요이. 조심해서 다녀오씨요.”

서운어미의 인사를 받으며 원량이 사립을 나섰다.

홍장이 하늘이 내린 효녀에다 자린고비 노랭이 송부자의 마음까지 돌린 보살이라고 칭송이 자자한 터에 혼자 길을 걷는다고 누가 해꼬지

를 할리는 없지만 그래도 원량은 딸이 조금만 늦어져도 걱정이 되었다.

날마다 홍장이 돌아올 시간쯤 마루 끝에 앉아 내리쬐는 햇살로 때를 가늠하다가 해가 기울었다 싶으면 마중을 나갔다. 어떤 날은 조금증이 앞서 일찍 집을 나서 오지마을 송천석의 사립 밖에 서 있다가 함께 돌아오기도 했다.

어쩌다 집주인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송천석이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훈장이르신, 오셨으면 안으로 들지 않으시고라? 들어가십시오. 마침 밥이 다 된 모양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저한테 좋은 말씀얼 들려주시다가 제 사랑채에서 따님과 함께 주무십시오.”

“아닙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드시지라우.”

“아니요, 아닙니다.”

원량이 완강하게 거절할 때쯤이면 홍장이 나왔다.

“아버지, 학동들한테 소학 한 구절을 더 갈치다가 해가 지는 것을 깜박했구만요. 가지제라.”

홍장이 원량의 손을 잡으면 송천석이 허참허참, 하며 섭섭해 했다.

“아버지,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맨날 나오세요? 그러다 넘어지면 어쩌려구요?”

“넘어지긴 인석아, 내가 한두 번 다닌 길이더냐? 니가 보고 싶어서 조금증이 나는 걸 어쩌냐? 안달이 나는 걸 어찌 참는단 말이나?”

“호호, 아버지도 참. 혼자 계시기에 심심한께 나오셨지라?”

“홍장아, 아버지는 니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것이 참 좋구나. 욕심 같

아서도 아침에도 너를 이렇게 배웅하고 싶구나.”

그것은 원량의 진심이었다.

서운어미라도 자주 찾아주었으면 싶었지만, 하루에 세 번 끼니를 챙겨줄 때만 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서운 어미와 원량의 관계를 무심하게 바라보는 데도 그랬다.

며칠 전에는 원량이 날마다 홍장의 마중을 나오는 것을 알고 있던 송천석이 말했다.

“원훈장님, 지가 송구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복남이 아버지가 나한테 송구스런 일이 무엇입니까?”

“아, 지가 홍장 훈장님얼 날마다 부리고 있잖습니까? 앓을 못 보시는 분이 마중얼 나오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쩍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오.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술하게 넘어졌습시다만, 봉사된 지 일 년이 지나고부터는 한 번도 넘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야 그렇습시다만, 제가 보기에 염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훈장님,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제가 오지마을에 집을 한 채 지어디릴텐께, 거처를 옮기시면 어떻겠습니까?”

“허허, 말씀은 고맙습시다만, 나한테 집 지어줄 재물을 적선하는데 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적선은 부지런히 하고 있구만요.

지가 광방문을 언 후로는 해마다 몇 마지기씩 사던 논밭도 못 사고 있구만요.”

송천석이 몸 둘 바를 모르며 미안해하는 통에 나중에는 원량이 송정마을과 오지마을의 중간쯤에서 기다리다가 홍장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날보다 일찍 집을 나선 원량은 이날도 중간에서 기다리다가 홍장의 손을 잡고 돌아올 요량이었다.

원량이 송정마을을 빠져나와 오지마을 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였다.

문득 어제밤에 꾸었던 꿈의 한 대목이 뇌리를 스쳐갔다.

새벽에 잠에서 깨었을 때는 안개 속이던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방님, 서방님.”

날마다 만났던 섬진강 갈기도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강 갈기도 한강 가운데서 정씨부인이 손짓을 하고 있었다.

“부인, 부인. 어찌 이제야 오시는 것이요 내가 부인을 얼마나 그리워한 줄 아시오? 꿈에라도 자주 좀 오시지 않구요?”

원량이 망설임도 없이 강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침병침병 걸어 다가가자 정씨부인이 손을 내밀었다.

“그 연꽃을 제게 주세요.”

“무슨 연꽃 말이요? 내게는 지금 연꽃이 없소.”

“서방님께서 열다섯 해 동안 고이고이 간직하신 그 연꽃을 돌려주세요.”

“허허, 무슨 소린 줄을 도무지 모르겠소.”

그러다가 퍼뜩 잠에서 깨었는데, 기분이 영 째뻐했다.

꿈 때문이었는지 ‘아부지, 혼장노릇 잘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홍장이 나간 다음부터 졸곧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다.

하루내 기분을 엇잡게 만들었던 꿈이 선명하게 떠오르자 원량의 걸음이 흔들렸다.

‘무엇 때문에 부인은 열다섯 해만에 꿈에 나타나 연꽃을 돌려달라고 했을까?’

곰곰이 돌이켜 보니, 정씨부인이 꿈에 나타난 것도 처음이었다. 빗소리가 들리는 깊은 밤이랄지,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추운 겨울밤에 따듯했던 정씨부인의 손길이 그리워 ‘부인 꿈에라도 찾아와 주시오. 꿈에라도 내 손 한번 잡아주시오’ 하고 간절히 원해도 나타나지 않던 정씨부인이 느닷없이 찾아와 연꽃을 돌려달라고 조르지 않았던가.

‘부인, 내게 연꽃이 있으면 어찌 내어드리지 않겠소? 부인이 달라면 내 목숨이라도 주리다. 허니, 자주자주 들려 주시오.’

원량이 증얼거리며 몇 걸음 더 걸었을 때였다.

“처사님,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걸음만 더 옮기면 개울창에 빠지오.”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걸음을 멈춘 원량이 증얼거렸다.

‘별써 오지천인가? 수십 번도 더 건넌을 삽다리를 앞에 두고 내가 개울창에 빠질뻔하다니. 언제 여기까지 왔지? 꿈 생각을 하느라 내 걸음이 빨라졌던가?’

원량이 고개를 가웃하는데, 가까이 다가온 남자가 말했다.

“보아하니, 앞을 못 보시는 맹인 같으신데, 무슨 걸음이 그리도 빠르

시오? 자칫 개울창에 처박힐뻔하지 않았소? 어른 키의 두 배가 넘는 개울창의 돌바다에 떨어졌다면 목숨인들 온전할 수 있었겠소?”

“뉘신지요? 앞 못 보는 이 원봉사를 구해주신 고마운 분이 뉘신지요?”

“나는 저 아랫녘 흥복산 흥복사에 화주승으로 있는 성공이라는 스님이요.”

“아이고, 성공대사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해야 할지요?”

원량이 합장을 하며 성심을 다해 물었다.

“절간의 스님에게 보답하는 길이 뭐겠소? 시주를 많이 하는 일이지요.”

성공스님의 말에 원량이 고개를 내저었다.

“대사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몸은 가난한 봉사일 뿐이요. 집에는 겨우 겨우 끼니를 이어갈 양식이 두어 말 있을 뿐이요. 그 쌀을 시주하겠으니, 내 집으로 가십시다.”

원량이 흥장을 마중 나왔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고 서둘렀다.

“아닙니다. 처사님께서서는 소송에게 아주 큰 시주를 하셔야 합니다. 흥복사가 낡아서 크게 중창을 하려고 백일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마지막 밤인 어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꿈인 듯 생시인 듯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성공아,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너는 큰 시주를 만날 것이니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맹인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큰 시주를 받거라. 네 대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더이다. 부랴부랴 절을 나서서 하루내 걸어도 맹인을 만나지 못했었지요. 해는 뉘엿뉘

엿 넘어가는데, 맹인을 만나지 못하여 부처님께서서 허언을 하셨구나, 낙담하던 참에 처사님을 만났습니다. 허니, 처사님이야말로 흥복사를 일으켜 세울 대시주가 분명합니다.”

“허허, 대사님. 논밭은 한 패기도 없고, 내 재산이라고 해봐야 쓰러져 가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대시주라니요? 원하신다면 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넓은 집 한 채로 어찌 대불사를 하겠습니까? 처사님께는 분명 소중 한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물을 내어 주시오.”

“보물이라면 내 딸 흥장이 밖에 없는데, 딸이이라도 데려다가 불사에 쓰시려면 쓰십시오.”

원량의 입에서 무심코 흥장을 시주로 바치겠다는 말이 나왔다.

“나무관세음보살. 참으로 고맙습니다, 처사님. 하면 내일 아침에 소송이 처사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내 짐작이 맞다면 처사님은 송정마을의 원훈장님이겠군요. 따님은 원훈장인데, 오지마을에서 훈장노릇을 하고 있지요?”

“산 속 절간에만 계시는 대사님께서서 어찌 나를 아시며, 내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십니까?”

“깊은 산속 절간에도 소문은 찾아오며, 깊은 산 속 절간의 승려에게도 귀는 있답니다. 아무튼 처사님께서서는 분명 따님을 시주로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스님의 대불사에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계시로 시주를 받기는 하겠습

니다만, 사람을 시주로 받은 일이 없어서 어떻게 쓸지는 소승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지요.”

성공대사가 합장을 했다.

“아침 공양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원량이 마주 합장을 하고 돌아섰다.

바람기운으로 날이 어두워진 것을 안 원량이 내가 미쳤구나. 홍장을 시주로 바치겠다고 덜컥 약조를 해버리다니. 내가 늙기도 전에 노망이 들었구나. 중얼거리며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치며 허둥지둥 걸어가 있는데, 한 아낙이 붙었다.

“아니, 원홍장님. 날도 캄캄해졌는데,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예, 우리 홍장이 마중을 나갑니다.”

“아, 홍장보살은 오지마을에서 훈장노릇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지마을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고, 훈장님. 오지마을을 한참이나 지나오셨구만이라.”

아낙이 호들갑을 떨었다.

“허, 내가 딴 생각을 하느라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려. 고맙소. 참말로 고맙소.”

원량이 되돌아서 서서 오던 길을 걸어갔다.

내가 제 정신이 아니구나. 어찌자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원량이 중얼거리면서 오지마을을 지나쳐 한 시각 남짓 걸었을 때였다.

“아부지, 어디까지 가신거예요? 오던 길에도 못 만나고, 집에도 안 계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구요? 시장하시지요?”

홍장이 성큼 다가서며 팔짱을 끼었다.

그때였다.

원량의 코끝으로 연꽃향이 스쳐갔다.

‘꿈 때문인가? 이 아이 몸에서 연꽃향이 풍기는 구나.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쩐다지? 내일 아침이면 성공대사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정말 홍장이를 시주로 내놓으라고 하면 어쩐다지?’

원량의 근심이 천마산만큼이나 커지고 있는데, 김새를 켜 것일까?

홍장이 붙었다.

“아부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걱정도 없다.”

딸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원량은 허둥거리고 있었다.

서운어미가 차려놓고 간 밥상 앞에서도 원량은 속내를 숨길 수가 없었다.

밥을 먹기 전에 홍장이 원량의 손을 끌어다 ‘아부지, 이것은 밥이고, 이것은 국입니다. 이것은 무우짬지고, 이것은 미나리 무침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대로 반찬을 골라서 잘 먹던 원량의 젓가락질이 헛돌고 있었다.

그것을 홍장이 모를 리가 없었다.

저녁상을 치우고 난 다음에 홍장이 원량 앞에 바짝 당겨 앉았다.

“아부지, 먼 일이 있지요? 돌부리에 발가락이라도 다치셨어요? 아니면 철없는 아이들이 놀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다, 그런 일은 없다. 비록 봉사라고는 해도 홍장보살의 아비인 나를 누가 놀린다는 말이나?”

“아니예요. 분명 말 못할 근심이 있으세요. 아장아장 걸음마 때부터 아버지를 보았지만, 오늘같은 낮빛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홍장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자 원량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털어놓았다.

“꿈 때문이나라.”

“꿈이요?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열다섯 해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네 어머니가 어젯밤에 찾아왔다.”

원량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저를 시주로 바치겠다고 하셨어요?”

“설마 그 맹종이 사람을 시주로 바치겠다고 할 줄은 몰랐구나. 허나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어찌 금쪽같은 너를 시주로 바치겠느냐? 내일 아침 맹종이 오면 아버지가 얘기를 잘 하마. 너를 시주로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마.”

“아니예요, 아버지. 저를 시주로 바치세요. 성공대사님께서 분명히 부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셨다면서요?”

“허나 너를 시주로 보내고 내가 어찌 살겠느냐?”

“저를 시주로 보내지 않아도 아버지는 사실 수가 없으세요. 대사님과 의 약조를 저버리고 어찌 온전하게 마음 편히 사실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괴로워하시겠지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어찌 보겠어요.”

“미안하구나, 홍장아. 천금보다 귀한 너를 두고 내가 어찌 그런 망발을 했는지, 참으로 너 볼 날이 없구나.”

“아버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해요.”

홍장이 아버지를 달래어 잠자리로 모셨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천마산 너머에서 붉은 햇살이 부챗살처럼 퍼지고 있는데, 마당에서 목탁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막 아침밥상을 차리던 홍장이 얼굴을 내밀고 물었다.

“홍복사의 성공대사님이신가요?”

“허허, 홍장치자구나? 내가 시주로 받기로 한 홍장치자구나. 나미야 무타불 관세음보살.”

성공대사가 합장을 했다.

홍장이 마주 합장을 하는데,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원량이 북북 기어 마루로 나왔다.

“대사님, 성공대사님. 어제는 내가 입이 비뚤어져 말이 헛 나왔던 모양이요. 난 내 딸 홍장이를 시주로 내놓을 수가 없소. 허니, 아침 공양이 나 드시고 가지지요.”

원량의 말에 성공대사가 합장으로 대꾸했다.

“원처사, 이미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송정마을의 원홍장을 시주로 받아 대불사를 이루겠노라고 부처님께 삼천배로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대사님의 사정이고, 나는 홍장을 시주로 줄 수가 없소. 천하의 어떤 미친 애비가 딸을 시주로 바친답니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라면 사람을 시주로 받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량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간 모양이었다.

서운어미가 무슨 일인가하고 찾아왔다.

“홍장 아버지, 먼 일이당가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훈장님이신디, 더구나 스님께 화를 내시다니요?”

“아, 글썸, 이 미친 맹종이 홍장을 시주로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지 뭐요. 서운엄니, 이 맹종을 내 집에서 내쫓아 주시오.”

원량이 얼굴까지 붉히며 성공대사를 향해 샷대질을 하자 서운 어머니가 나섰었다.

“스님, 어느 절에서 오신 스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평생에 사람을 시주로 받았다는 말은 듣지럴 못 했구만이요. 홍장을 시주로 받아다가 어따 쓰신다요?”

“그건 소송도 모르는 일이요. 소송은 다만 부처님의 계시에 따랐을 뿐이요. 원처사님, 홍장처자를 소송이 데려 가겠소. 흥복사의 대불사가 마무리 되면 곱게 보내드릴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설마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해가 될 일을 하시겠습니까? 홍장아, 나랑 함께 가겠느냐?”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몰래 짐을 싸놓았던 홍장이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그 모습에 서운 어머니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홍장아. 너 정말 이 스님을 따라가려느냐?”

“아쭌니, 저는 이미 부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제 몸은 이제 제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대사님께서 불사만 끝나면 저를 돌려보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 세월이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도 꼭 아버지께 돌아오겠습니다. 아쭌니, 그 동안에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만,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가는 길에 복남

이네 집에 들러 얘기를 잘 해놓겠습니다.”

“니 아버지 걱정은 말그라만, 참말로 가려느냐?”

서운어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갔다가 오겠습니다. 아쭌니는 제 어무니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으니, 어찌 어무니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언제 다시 뵈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꼭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계세요.”

홍장이 아버지의 손을 한 번 꼭 잡았다가 놓으며 눈물도 흘리지 않고 돌아섰다.

“가시지요, 대사님.”

홍장이 앞장을 섰다.

“홍장아, 홍장아. 너 없으면 내가 못 산다. 대사님, 성공 대사님. 집에 남은 쌀 한 말과 내 집을 시주할 것이니, 홍장은 놓아주시오. 아니, 홍장이 대신에 내 몸을 시주로 받아가시오.”

원량이 마당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땅을 치며 하소연 하는 소리가 뒤를 따라왔지만, 홍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 우물 앞을 지나갈 때였다.

“홍장아, 절에 불공디러러 가냐?”

한 아낙이 물었다.

홍장이 빙그레 웃기만 하자 원량의 아랫집에 사는 아낙이 씩씩 말했다.

“불공은 무신, 시주로 바쳐져 끌려가는갑만.”

“시주라니? 사람을 시주로 받기도 험당가?”

다른 아낙이 물었다.

“내가 그걸 어찌 알아? 아까 나오서 들은께, 원훈장님이 고래고래 괘
얼 지르시렁구면.”

“홍장아, 참말이여? 니가 시주로 바쳐졌다는 것이 참말이냐고?”

홍장이 대답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우물결을 지나갔다.

송정마을을 빠져나와 오지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성공대사가 돌
아보았다.

“홍장아, 중도 사람은 사람인 모양이구나. 아침 공양을 걸렀더니, 배
가 고프구나.”

“조금만 더 가면 제가 훈장노릇을 했던 송부자댁이 나옵니다. 마침
서당을 그만두어야겠다는 말도 해야 하니, 그 집으로 가지지요.”

“자린고비 노랭이를 니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집이냐?”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복남이 아버지의 본성이 원래 착하
셨지요.”

홍장의 말에 성공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홍복사에 오는 보살님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너로 하여 홍복
사의 대불사를 완성하겠구나.”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시각 남짓 더 걸어가자 오지마을이 나타
났다.

송천석의 집은 멀리서도 또렷이 보일만큼 크고 넓은 기와집이었다.

그 집을 훑음 바라본 성공대사가 중얼거렸다.

“집이 크고 살림이 부자일수록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
하니라. 헌데 너는 송부자를 마음까지 부자로 만들어 주었구나. 가자,

저 정도의 집이라면 마음 편히 한 끼 공양을 들 수 있겠구나.”

홍장이 성공대사와 함께 들어서는데도 송천석을 비롯한 식구들 가운
데 아무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송천석이 사랑방을 내어주고 그의 마누라가 하녀와 함께 밥상을 내
왔다.

“허허, 느닷없이 찾아와서 식구들이 먹을 밥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이다.”

성공대사의 말에 송천석의 마누라가 함장으로 대꾸했다.

“아닙니다. 끼니마다 몇 그릇씩 여분의 밥을 해놓기 땀이 스님께서
드셔도 밥을 굶을 식구는 없구만요.”

“큰 보시입니다. 한 그릇의 밥이 열 그릇 백 그릇의 밥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남한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리 믿으며 살고 있구만이라. 헌데, 훈장님. 스님과 함께 오신 것도
이상헌디, 그 보따리는 더 이상허구만. 꼭 먼 길 떠나는 사람같잖혀.”

복남이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홍장과 보따리를 번갈아 바라
보았다.

“안 그래도 대사님의 아침 공양이 끝나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
다. 제가 사정이 있어 대사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훈장님이 스님을 따라가면 우리 복남이 글공부는 어찌허고?”

“조금 있다 복남이 아버님과 복남이를 오라하십시오. 그때 말씀드리
겠습니다.”

“도대체 먼 속인가럴 모르겠네.”

복남이 어머니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공대사가 물린 밥상을 들고 나갔다.

홍장이 스님을 따라가기로 했다는 말을 이미 들었는지, 송천석과 복남이가 잔뜩 굳은 낯빛으로 들어왔다.

“훈장님, 스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먼 말이여?”

송천석이 불쑥 묻자 대답은 성공대사가 했다.

“원처사님이 홍장처자를 흥복사 대불사의 시주로 바쳐 데려가는 길입니다.”

“뭘요? 사람을 어찌 시주로 받는다는 말입니까? 내 이날 이때껏 백년 묵은 여시가 사람얼 흘려 목심얼 가져간다는 말엔 들었어도, 절간의 스님이 사람을 흘려 시주로 받아간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구만요.”

송천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소승도 사람을 시주로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성공대사의 말에 송천석이 적극적으로 나왔다.

“스님, 지가 근동에서는 밥술깨나 묵고 사는 사람입니다. 흥복사의 대불사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지가 대겼구만요. 지가 딸터이니, 훈장님을 놓고 가시지요.”

“소승도 그랬으면 좋겠소만, 이긴 부처님과 의 약조입니다. 소승마음대로 홍장처자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대사가 완강하게 고개를 내젓자 복남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누나,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헤어져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그동안 글공부 열심히 하거라. 복남이 아부님. 서당은 어떻게든 유지해 주세요. 학동들이 천자

문은 다 익혔으니, 소화이며 명심보감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훈장님을 모시면 더욱 좋겠지요. 복남이 어무님께서는 지금처럼 한 끼에 두세 그릇의 밥을 더하신다면 공덕의 복이 다 복남이에게 돌아오겠지요.”

홍장의 단단한 결심을 눈치 챈 복남이는 눈물만 글썽이며 앉아 있고, 송천석이 다시 한 번 매달렸다.

“스님, 정 안 되겠는가? 불사에 드는 경비는 지가 다 댈당께라. 우리 논밭 전부 다라도 팔아서 댈텐께, 훈장님은 두고 가시랑께라.”

송천석이 성공대사의 손을 꼭 붙잡고 사정했다.

“송처사의 진심을 소승이 어찌 모르겠소만, 소승의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사가 끝나면 홍장보살을 보내드릴 터이니, 기다리시오. 가자, 홍장아.”

말끝에 성공대사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홍장이 목례로 인사하고 몸을 일으켰다.

“흥복사로 가십니까? 대사님.”

송천석의 집 대문을 나서며 홍장이 물었다.

“나도 모르겠구나. 어디로 가야할지 도통 감이 잡히지를 않는구나.”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홍장이 물었다.

“부처님의 계시대로 너를 만나기 위하여 길을 나섰고, 막상 원처사를 만나 너를 시주로 받고 보니,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겠구나. 그냥 밭갈이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성공대사가 편안한 낯빛으로 말했다.

두어 시각이나 걸었을까?
 섬진강을 가로지른 보가 나왔다.
 성공대사가 보를 잠시 바라보다가 물었다.
 “홍장아, 저 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처음 나왔습니다.”
 “도깨비살이나라.”
 “효자 양충각의 효도에 감동한 도깨비들이 막아주었다는 보인가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지금은 혼인을 하여 아들딸을 다섯이나 낳아 잘 살고 있지만, 효자 양충각의 도깨비 얘기는 근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양충각이 보내준 물고기 지짐을 몇 번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충각의 보를 막아준 것이 도깨비라고 믿겠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부린 조화시니라.”
 “부처님께서요?”
 홍장이 물었다.
 “그렇단다. 세상 모든 일이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니라. 저 보를 막아 준 도깨비들은 형상은 도깨비였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부처님이 계셨단다. 날마다 강에 나와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를 봉양한 양충각의 마음 안에도 부처님이 계셨니라. 홍장아, 지금은 진나라의 보타산 보타사에 계시는 범룡대사를 네가 뵈 적이 있었더냐?”
 “제가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홍암에 계시는 범열 스님이 그분의 제자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대사님께서서는 범룡스님을 뵈 적이 있으십니까?”

“홍복사에 오기 전에 보타사에서 석 달을 함께 지냈니라. 어느 날 아침 공양을 마치자 문득 말씀하시더구나. 날더러 백제국으로 돌아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중놈 하나 살지 않는 홍복사를 일으켜 세우거라, 하고 말이니라. 소송이 어찌 홍복사 같은 큰 절을 일으켜 세우겠느냐? 하고 여쭙었더니, 네가 효녀를 만난다면, 그 효녀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하시더구나. 돌아와서 보니까 전각마다 지붕의 구멍으로는 비가 새고, 법당의 부처님은 도금이 벗어져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계시더구나.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묘책은 떠오르지 않고, 범룡대사님은 날더러 효녀를 만나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더라만, 효녀를 어찌 찾는단 말이더냐? 홍복사에 중놈이 하나 왔다고 하니까, 신도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더구나. 그러다가 네 소문을 들었다.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십 년이 넘게 지극으로 모시는 효녀에다 학문이 뛰어나 인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니라. 허나 세상에 효자 효녀라고 소문이 난 자식들은 부지기수니라. 백일기도의 마지막 날이었니라. 부디 홍복사를 일으킬 효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원하며 삼천 배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부처님의 계시가 계셨니라.”

“그 말씀은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의 도리를 다했을 뿐, 소문만큼 효녀도 아닙니다.”

“네가 진정 효녀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네가 정말 홍복사를 부흥시킬 효녀인지 아닌지 말이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행실 가운데 효를 가장 으뜸으로 치셨니라.”

“부처님께서도요?”

“나도 범룡대사께 들은 소리지만, 부처님 생존 시에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발견하셨단다. 집채더미만한 뼈 더미를 보신 부처님께서 다짜고짜 큰 절을 두 번하셨다는구나.”

“무엇 때문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뼈무덤에 절을 하셨을까요?”

홍장이 물었다.

“아난이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절을 드린 연유를 물었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이 한 무더기의 뼈 가운데는 전생의 내 부모가 계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젖을 먹은 어머니도 계실 수도 있을 것이니라. 아난아, 뼈들을 돌로 나누어 보거라. 남자의 뼈라면 무거운 것이고, 여자의 뼈라면 가벼울 것이니라, 하셨다는구나.’

“정말일까요? 대사님. 여자의 뼈가 남자의 뼈보다 가벼울까요?”

홍장의 물음에 성공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난도 너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지. 부처님께서 ‘아난아, 여자가 한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 말 서 되의 피를 흘리며, 한 아이가 자라기까지는 어머니의 젖을 여덟 섬 너 말을 먹어야 한다. 피와 젖은 어머니에게는 진액 중의 진액이 아니더냐? 그 진액을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고스란히 내려주신다. 허니, 뼈가 가벼울 수밖에, 하고 말씀하시자, 아난이 울면서 다시 물었다는구나.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이니라.’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사님. 어무니의 은혜에는 열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아주 어렸을 때 들은 것이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범룡스님 아니면 아버지께 들었을 거예요.”

“네가 그걸 물어볼 수 있겠느냐?”

성공대사가 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홍장을 바라보았다.

“태에 실어 보호하는 은혜, 출산할 때 고통을 참는 은혜, 아기 낳을 때의 고통을 낳자마자 잊는 은혜, 쓴 것은 자신이 삼키고 단 것은 자식에게 먹이는 은혜, 마른자리에는 자식을 누이고 젖은 자리에는 자신이 누는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똥오줌을 마다않고 가려주신 은혜, 자식이 먼 길 가면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애쓰시는 은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홍장아, 네 아버님이 어렸을 때 신동이라고 하더니, 너 역시 신동이었구나. 철 없는 어린 시절에 귀동냥으로 들었을 얘기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구나. 부모님의 은혜 열 가지를 화두삼아 기억하고 있었기에 네가 소문난 효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고 윈 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우고 오른 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수미산을 백 번 천 번 돌다가 가죽이 터져서 뼈가 드러나고 드러난 뼈가 닳아서 골이 흐른다하여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다, 고 하셨다는구나.”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대사님. 어무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으니, 제게 목숨을 주신 것이며, 앞 못 보시는 아버지는 저를 업고 이 집 저 집 다니시며 젖을 얻어 먹여 키우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두 배 세 배 입었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할 은혜도 열배 백배가 되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순순히 나를 따라나서지 않았느냐? 너야말로 효녀가 틀림없다. 네 뜻도 물어보지 않고 너를 내게 시주로 바친 아버님의 뜻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따랐지 않느냐? 홍장아, 여기가 목사마을 이니라.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산의 골자기 골짜기에는 절이며 암자가 열여덟 개가 있느니라. 한 마을의 한 골짜기에 그 많은 절과 암자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복 받은 땅이라는 뜻이니라. 목사마을 쪽으로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인 걸 보니, 저 고개를 넘어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사흘을 걸었을 때였다.

저 멀리 몇 개의 섬이 점점이 떠 있는 포구에 다다랐다.

“대사님, 무슨 방죽이 저리도 크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장의 말에 성공대사가 허허허 웃었다.

“허허허, 방죽이라고?”

“방죽이 아닙니까?”

“바다니라,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끝을 넘어가면 진나라가 나오니라. 내가 범룡대사님과 헤어져 백제국으로 돌아올 때도 저 바다를 건너왔니라. 여기가 두물포니라.”

“배정포구같이 배가 닿는 곳입니까?”

“그렇단다.”

성공대사의 말에 홍장의 뇌리로 문득 낙안포에 산다고 했던 성덕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범열스님께서 주신 목탁을 열심히 치고 있을까?’

홍장이 성덕에 대한 그리움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데 성공대사가 물었다.

“홍장아, 헌데 너는 어찌 나를 만난 이후 한 번도 목탁을 치지 않았느냐?”

“대사님, 제게 목탁이 있다는 것은 어찌 아셨습니까?”

“네 보자기 속에서 목탁소리가 들리길래 알았지.”

“제 귀에는 안 들리는 목탁소리가 어찌 대사님의 귀에는 들리십니까?”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느니라. 나는 네가 마음으로 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느니라.”

말 끝에 성공대사가 홍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제 마음이 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하고 큰 인연이 있는 한 여자아이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대사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성덕이는 낙안포에 산다고 했습니다. 대사님, 낙안포가 여기서 멀니까?”

“멀지 않다. 반나절을 걸어 저 고개를 넘어가면 낙안포니라.”

“성덕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너와 내가 그랬듯이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된다. 오늘은 저기 두물마을에서 묵자구나. 산세를 보니 인정이 넉넉한 마을이구나.”

“예, 대사님.”

둘이 두물마을로 들어섰을 때였다.

마을 들머리 첫 집에서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한 아이가 나오더니, 말했다.

“대사님, 누추합니다만, 저희 집에서 하룻밤 머무시지요.”
그런데 홍장이 보기에 아낙의 얼굴이 눈에 많이 익은 듯싶었다.

“허허, 고맙습니다.”

성공대사가 함장으로 답례를 하고 집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방인데, 어젯밤 꿈이 하도 이상하여 방금
쓸고 닦아 소제를 마쳐놓았습니다.”

“꿈이라니요? 보살님.”

“관음보살님이 오른손에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저 사립을 들어오셨습
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기분은 하늘을 날듯 즐겁고 방안에 연꽃향
기가 진동하는 듯싶었습니다. 하루내 마루에 앉아 귀한 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연꽃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
연입니다.”

성공대사가 함장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데 정작 좋은 인연은 따로 있었다.

밤이 늦어서였다.

홍장이 막 잠에 빠져들려는데, 마당에서 한 여자 아이가 이모, 이모,
하고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홍장의 귀에 익었다.

홍장이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왔다.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서 서 있는 아이는 세 해 전에 대홍암에서 만났던
성덕이 틀림없었다.

“성덕아.”

홍장이 땀발로 마당으로 뛰어 내려갔다.

“언니, 홍장언니.”

성덕이 달려와 품에 안겼다.

8. 황천 건너기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너를 만난 것이 내겐 꿈만 같구나.”

“저도 그래요? 여긴 제 이모님 댁이에요. 제가 오고 싶을 때면 종종 와요. 저녁을 일찍 먹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느닷없이 이모님 댁에 가고 싶지 머예요. 언니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성덕이 홍장을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홍장이 성덕의 볼에 볼을 부여뒀다.

“사실은 나도 해질녘 두볼포구에서 낙안포가 가깝다는 대사님의 말씀 들자마자 네 생각을 했나라. 네 이모님을 뵈는 순간 낮이 많이 익다고 생각했었지.”

둘이서 재회의 정을 나누고 있는데, 마루에서 성덕의 이모가 말했다.

“그러다 마당에서 밤을 새웠구나?”

“이모, 안녕하셨어라? 성덕이가 왔구만이라.”

성덕이 홍장의 품에서 빠져나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나라. 성덕이 너, 해가 진 다음에는 낙고개를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 고개가 높지는 않아도 기러기도 쉬어 넘는 고개라고 하지 않더냐? 어디 그 뿐이냐? 밤길에 넘던 사람들이 술허게 호환을 당헌 고개니라. 호랭이가 덩씩 물어 가면 어찌려고 어린 것이 겁도 없이 혼자 넘어와?”

길으로는 꾸짖는체 하지만, 그 속에는 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고개를 넘어오서 목탁을 침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험서 온께 하나도 안 무섭든디요.”

“흐, 썩을 년. 목탁만 믿고 겁 없는 짓얼 허다간 큰 일얼 당헌다이. 너 이번에도 엄니 몰래 왔제?”

“하루내 뵈에서 조개를 잡으신 통에 피곤해서 일찍 주무셨구만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없으면 낙고개를 넘어 간지 아실 것이구만요.”

“다음에 니 엄니를 만나면 내가 회초리를 때리라고 해야겠다. 사람얼 놀래키는 것도 한 두 번이제, 밤에 니가 오면 내 가심이 별령별령한당께. 얼렁 들어오니라. 아무리 미워도 잠언 재와 쥐야제.”

방으로 들자마자 이모가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 먼저 누웠다.

“그 쪽에서들 자그라. 나는 하루내 뵈를 파느라 고단허구나.”

“낙지 잡았어? 이모.”

성덕의 물음에 이모가 하품을 쉬어 대답했다.

“그것이라도 잡아야 묵고살제.”

성덕의 이모가 이내 잠에 골아 떨어졌다.

“언니, 여그꺼정 어쩐 일이래요?”

성덕이 홍장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여기까지 왜 오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대사님의 발길이 닿는대로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홍장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사님? 스님과 함께 왔어?”

“응, 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아버지가 나를 홍복사 불사에 시주로 바치셨다.”

“언니를 시주로 바쳐요?”

“그렇단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홍복사 성공스님께 매인 몸이다. 관음보살님이 알려주시겠지.”

“언니, 목탁은 많이 치셨어요?”

“많이 쳤지. 관음보살님을 입으로 외면서도 치고, 관음보살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도 치고, 틈날 때마다 쳤다. 치고 나면 온 몸이 환희심에 젖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치고 나면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청명하고, 치고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관음보살님으로 보이더구나.”

“언니는 관음보살님이 다 되었네. 나는 어머니가 조개를 많이 잡게 해 돌라고 빌면서 쳤고, 내가 아프면 어머니가 조개도 못 잡고 걱정을 허시닝께, 내가 아프지 말라고 빌면서 쳤구만. 가끔 홍장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구면.”

성덕이 부끄러운지 히히 웃으며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관음보살님께서 니 소원을 들어 주셨는갑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니.”

홍장의 말에 이모가 잠짓처럼 증얼거렸다.

“씩을 년덜, 새살도 많구나.”

그러나 성덕의 이모는 이내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며 코를 드르릉 골았다.

다음날이었다.

성덕의 이모가 정성으로 차려준 아침 공양을 마치고 떠나려하자 성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홍장의 손을 잡았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성덕이 물었다.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모른다. 성공대사님께서 이끄시는대로 따라가면 된다.”

홍장이 대답했다.

“언제 또 만날까요?”

“어제 밤처럼 또 만나지 않겠느냐?”

“홍복사라고 했지요? 제가 찾아갈게요, 언니.”

“내가 너를 찾아 낙안으로 갈지도 모르지.”

홍장이 성덕을 꼭 안아 주었다.

“가자, 홍장아.”

“예, 대사님.”

홍장이 성공대사를 따라 나섰다.

사립까지 따라 나온 성덕이 여전히 눈물어린 눈으로 배웅했다.

두물포구가 멀리 보일 때였다. 거기 바닷가의 소나무 아래 바위에 성공대사가 바람을 내려놓고 걸터앉았다.

홍장도 보따리를 내려놓고 대사 곁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반발 남
짓 떠오른 해가 바다를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갑자기 온 몸에서 환희심이 끊어올랐다.

섬진강에 뜨고 지는 해는 몇 번 보았지만, 바다에서 뜨는 해는 처음
이었다.

얼마를 그렇게 앉아있었을까?

성공대사가 중얼거렸다.

“저기 오는구나.”

홍장이 물었다.

“누가 오는가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저기 햇살 속에 검은 점 하나가 보이지 않
느냐?”

홍장이 뚫어져라 바라보자 검은 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제 눈에도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 배인지는 몰라도 저 배를 타야겠구나.”

“배를 타면 무섭지 않나요?”

홍장이 어깨를 움찔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네 마음이 무서워하면 무서울 것이고, 네 마음
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무섭지 않을 것이다. 작아도 진나라의 배같구
나.”

“진나라라면 범룡스님이 계신 곳이 아닌가요?”

“맞다.”

“하오면 진나라에 가실건가요?”

홍장의 물음에 성공대사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배를 타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
지 않았느니라. 가자. 배를 타자.”

성공대사가 바람을 짚어지고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배에 오르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백제국 사람들과 다른 옷차림에 다른 머리 모양의 낯선 사내들이 흘
끔거릴 뿐이었다.

성공대사가 홍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낯선 뱃사공에게 묻고는
홍장에게 말했다.

“소량포로 가는 심대인의 배라는구나. 풍랑이 일면 염불에 목탁을 쳐
주기로 하고 허락을 받았다.”

성공대사가 선심이라도 쓰는 듯 알려주었다.

심대인이라면 홍장도 들은 기억이 났다. 송정마을 뒷산에서 철을 캐
가지고 진나라로 가져 갔다는 곤대인은 심대인의 아랫사람이라고 했
다. 곤대인은 자신이 세상에 나올 때 미역과 쌀을 가져다 준 고마운 사
람이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허나 네 어머니는 곤대인이 가져다 준 쌀로 지은 하얀 쌀밥도, 미역으
로 끓인 고소한 미역국도 실상 너를 낳아놓고는 딱 한 그릇 밖에 먹지
못했니라.”

가끔 어머니가 그리울 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 홍장은 가슴
이 쑥쑥 아렸었다.

두물포에서 두어 가지 짐 보따리를 실고 배는 이내 돛을 올렸다.

돛이 바람을 잘 받고 열 명의 노꾼이 땀을 흘리며 노를 저었는데도

두물포에서 소량포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다.

“여기가 소량포구나. 진나라에서 백제나 신라로 오는 배는 모두 이곳을 거치게 되어 있다. 물이며 먹을거리를 싣기도 하고, 저센 바람에 파도가 높으면 들어와 쉬었다 가는 곳이기도 하지. 일단은 내리자.”

성공대사가 앞장을 섰다.

배에서 내리자 울렁거리던 속이 갈아 앉았다.

다음날이었다.

성공대사가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아침공양을 마치자마자 소량포구로 흥장을 이끌었다.

포구에서 한참을 앉아있을 때였다.

“흥장아, 저기 보이느냐? 큰 배가 들어오고 있구나. 어쩌면 심대인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한번은 백제국에 온다고 하더니, 정말 오는지도 모르겠구나.”

성공대사가 중얼거리며 눈길을 바다 멀리로 보냈다.

“대사님께서도 심대인을 아세요? 심대인은 진나라에서도 제일 부자라고 했어요. 황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기도 하고,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경비도 상단 가운데 제일 많이 낸다고도 했구요.”

“그 뿐만이 아니니라. 심대인은 진나라 여러 제후국 가운데 회계국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다.”

“왕이요?”

“백제로 치면 그렇다는 말이니라. 진나라는 워낙 땅이 넓은 대국이라 황제 혼자서는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을 쪼개어 제후국으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지. 심대인이 제후가 된 것은 막강한 재력 때문일 것이니

라. 심대인은 보타섬을 비롯한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주산군도의 실질적인 왕이자 주인이니라.”

“그런 심대인이 백제처럼 작은 나라에 뭐 하러 오겠어요?”

“나라가 작다고 사람까지 작은 것은 아니니라. 저기를 보거라. 배가 두 척이 오고 있잖느냐? 큰 배는 바다 멀리 수심이 깊은 곳에 멈추어 있고, 작은 배가 다가오고 있잖느냐?”

성공대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큰 배 한 척이 바다 멀리에 멈추어 있고, 돛은 올렸다고 하지만, 한 눈에 보기에 노꾼이 열 명 남짓 되는 작은 배가 소량포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 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셨어요?”

배가 포구에 도착하여 돛을 내리는데도 꿈쩍을 않는 성공대사를 돌아보며 흥장이 물었다.

“기다려 보거라. 저기 비단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잖느냐?”

성공대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어제 타고 온 배의 뱃사공과는 달리 비단옷을 입은 남자와 뱃사람차림의 남자들 다섯 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저 사람은 삼국대인이 분명하구나. 뒤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곧무갑이라는 사람도 있구나.”

“곧대인도 와요?”

“그렇구나. 심대인이 이번에는 마음먹고 백제행을 택했구나. 장사를 한바탕 크게 할 모양이구나.”

성공대사가 중얼거리는데, 가까이 다가온 삼국이 넘죽 엮드려 큰 절

을 했다.

“아니, 성공대사님이 아니십니까? 백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도 없이 안 보이셔서 섭섭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큰 배려에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왔습니다. 헌데, 제후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냥 대인이라고 부르십시오. 혜황제가 회계국을 다스리라며 제후 자리를 줬지만, 재물이 욕심나서겠지요. 제가 왜 백제국에 왔는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모르다니요?”

“곤무감이 백제국에 간다고 하길래 저도 백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불현 듯 들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여기에 무슨 일이십니까? 흥복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아니요. 흥복사는 육지에 있습니다. 범룡대사께 들은 모양이구려? 내가 흥복사의 대불사를 하기 위해 돌아온 것을.”

“들었습니다. 범룡스님께서 저한테 어떻게든 흥복사 불사를 도와라고 하셨습니다. 이 처자는 누구입니까? 어젯밤 제 꿈속에서 되었던 관음보살님을 닮으셨습니다.”

심국이 흥장을 찬찬히 살폈다.

“원흥장이라하오.”

“원흥장이라고요?”

한참을 뚫어져라 살피던 심국이 다시 넙죽 절을 했다.

“심대인. 무슨 절을 두 번이나 하시오?”

성공대사가 고개를 가우똥 했다.

“이번 절은 원흥장 낭자에게 드리는 절입니다. 원흥장 낭자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시주로 받은 처자요.”

“시주로 받았다고요?”

심국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을 때였다.

흥장을 가만히 살펴보던 곤무감이 넙죽 절을 했다.

“원흥장이라면 꼭나 송정마을 원대인의 따님이 맞으시군요. 보면 볼수록 어머니 정씨부인을 닮으셨습니다. 제가 꼭나 송정마을에 있을 때 그 분께 신세를 많이 졌었지요.”

“저도 아버지께 곤대인의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주산군도 보타산 보타사에 계시는 범룡스님께 원낭자의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백제국을 떠나온지 십 년이 가까워지니까, 원흥장님도 많이 늙으셨겠군요. 이번 상행은 원래 신라국을 목표로 삼았습지만,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어쩐지 백제국엘 꼭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후께 말씀드렸더니, 제후께서도 함께 가시겠다면서 따라나서시지 않습니까? 헌데, 성공대사님, 원흥장낭자를 시주로 받았다는 말씀은 어찌된 일입니까? 백제국에서 십 수 년을 살았습시다만 사람을 시주로 바쳤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곤무감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심국대인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소승도 잘 모릅니다.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하다보니까, 흥장이 내 바랑 속에 들어있더이다.”

“원흥장낭자가 바랑 속에 들어있었다구요? 대사께서 농도 잘 하시는

군요. 정말 어찌 된 일입니까?”

곤무갑이 안달을 하자 성공대사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허나, 이 아이가 어찌 홍복사를 증진하는 대불사를 돕겠소? 부처님의 계시라서 데리고 다니기는 합시다만, 나한테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성공대사의 말에 심국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원홍장낭자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심대인께서 이 아이를 가져다가 무엇에 쓰시렵니까? 설마 험한 바다를 만나면 바다속에 던져 넣으려는 것은 아니지요?”

성공대사의 얼굴에 노여움이 드러나고 있었다.

심국대인이 손을 뉘뉘 내저었다.

“아닙니다. 인신공양에 쓸 제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꿈 때문입니다.”

“심대인도 꿈을 꾸었소?”

“예, 대사님. 어젯밤이었습니다. 모처럼 잔잔한 바다에 배는 미동도 없이 항해를 하였지요. 보름 남짓 배를 타는 동안 그렇게 편안한 잠은 처음이었습니다. 잠결인 듯 꿈결인 듯 백제국의 어떤 포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포구에서 황금빛 햇살이 부채살처럼 퍼지는 가운데 관음보살님이 연꽃 같은 웃음을 지으시며 저를 향해 손짓을 하더군요. 온 몸이 환희심에 젖었다가 꿈을 깨고 보니, 멀리 포구가 보이더군요. 곤무갑에게 저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별량포라고 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꿈에 본 포구가 아니었습니다.”

“허허, 그래서요?”

성공대사가 이미 다 짐작하고 있는 얘기라는 듯이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저기는 아니구나, 더 가자, 고 하여 얼마를 더 오는데, 큰 바람이 일더니 배가 저절로 방향을 조금 틀어 이 포구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곤무갑에게 저 포구는 이름이 무엇이나? 하고 물었더니, 소량포라고 하는데, 꿈에 본 그 포구였습니다. 그리고 꿈에 본 관음보살이 연꽃처럼 앉아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을만큼 왔을 때 곤무갑이 그러더군요. 저기 성공대사님과 함께 있는 남자가 낮이 익는다고요. 백제국 송정마을에 있을 때 관음보살님을 닮은 정씨부인이 있었는데, 영락없이 정씨부인을 닮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가슴에서는 환희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사님, 원홍장낭자를 제게 주십시오. 홍복사의 중창불사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금음보화를 잔뜩 신고 왔습니다. 진국으로 돌아가는 대로 솜씨 좋은 목수들이며 석공을 보내겠습니다.”

“솜씨 좋은 석공이며 목수는 백제국에도 많습니다. 허나, 비록 내가 시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홍장을 내 마음대로 심대인에게 드릴 수는 없소이다. 무엇보다 홍장의 뜻이 소중하지요. 홍장아, 네가 심대인을 따라 가겠느냐?”

성공대사의 물음에 홍장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여차피 홍복사의 중창 대불사를 위하여 시주로 바쳐진 몸입니다. 이제 심대인의 도움으로 불사를 완수할 수 있다면 저를 시주로 바친 아버지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대인을 따르겠

습니다.”

“허허, 시원시원해서 좋구나. 하면 너는 심대인을 따라 진나라로 가거라. 네 아버지는 내가 종종 찾아가 보마. 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날마다 빌마.”

“고맙습니다, 대사님. 만나자마자 이별이네요.”

홍장이 섬섬한 표정을 짓자 성공대사가 고개를 내저었다.

“이번의 만남은 잠시였지만, 전생에서는 오랜 업을 쌓았느니라. 내가 비록 네 어무니를 만난 적은 없다만, 곤대인의 말을 들어보면 네 어무니를 닮았다는 네 얼굴은 진정 관음보살님을 닮은 모양이구나. 더구나 심대인도 꿈에 관음보살을 만났는데, 너를 멀리서 보고도 한 눈에 알아 보았다고 하지 않으시냐? 사람의 삶이란 결국 운명 지워진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느니라. 부처님의 섭리 안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나라. 가거라. 심대인을 따라 진나라로 가거라. 보타산 아래 심가촌에 가면 백제국은 물론 신라와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롭지는 않을 것이니라. 더구나 보타사에는 범룡스님이 계시지 않느냐? 심대인,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오.”

성공대사가 어서 데려가라는 듯 몸을 일으켰다.

심국대인이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

“곤무갑을 남겨 홍복사 불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서는 원량대인의 눈 뜨기를 바라는 기도에 정진하시지요. 가자꾸나, 홍장아.”

심국대인이 성공대사에게 함장으로 인사를 하고 배를 향해 돌아섰다.

홍장이 ‘소녀,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불사를 이루시오소서’ 하고 읊조

리며 성공대사를 향해 함장을 했다.

“천하의 귀한 보물을 얻었으니, 이번 장사는 여기에서 접는다. 배를 돌리거라.”

큰 배에 싣고 왔던 진귀한 보물들을 작은 배에 싣어 곤무갑을 팔려 보낸 심국대인이 영을 내렸다.

심국의 큰 배에는 노를 짓는 노꾼들만 백명이 넘었다. 바람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배가 진나라를 향해 움직였다. 다행히 바람이 제 방향으로 불어주면 노꾼이 노를 짓지 않아도 배가 제 갈 길로 잘 갔다.

그렇게 이레를 달리고 난 다음이었다.

홍장이 배안에 마련되어있는 측간에 가려는데, 안에서 한 처녀가 나왔다.

뱃멀미라도 했는지, 얼굴은 헬쓱하게 질려있었고, 눈동자는 초점도 없이 흐릿했다.

그동안에는 배 안에 여자는 홍장 자신만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처녀를 만나자 홍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제 나이 또래나 되어 보이는 처녀를 향해 홍장이 물었다.

“너는 무슨 일로 이 배를 탔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나?”

반히 바라보다가 처녀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점분이고, 아버지가 이 배 주인에게 나를 팔았단다.”

“팔려 왔다구?”

홍장이 묻자 점분이가 되물었다.

“너도 팔려온 것이 아니었나? 뱃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소

량포구에서 심대인이 수십만금을 들여 처녀 하나를 샀다고 하더니, 그 것이 너였구나?”

“심대인이 나를 샀다고?”

그제서야 홍장은 자신의 처지나 점분이의 처지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백금을 들여서 샀건, 수천금, 수십만금을 들여서 샀건 심대인의 처지에서 보면 재물을 주고 처녀를 산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꿈에 관음보살을 만났느니, 연꽃을 닦았느니, 하는 소리는 어쩌면 자신을 사들이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에라도 심국대인을 찾아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샀느냐고 따져 묻고 싶은 걸 꼭 참으며 홍장이 점분이에게 물었다.

“이 배 안에 너같은 처녀들이 또 있느냐?”

“나 말고 둘이 더 있다. 그 아이들도 팔려왔다고 하더라.”

“밥을 굶지는 않느냐? 뱃사람들이 밥은 잘 주느냐?”

“밥은 잘 준다. 어떻게든 살려놓아야 필요할 때 써 먹을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바다가 화를 내고 집채더미만한 파도가 배를 부수려 덤빌 때 바다에 바치려면 어떻게든 살려놓아야 한다고 글드라.”

“인신공양으로 바치기 위하여 너희들을 사서 배안에 숨겨놓았다는 말이나?”

홍장의 가슴 안에서 문득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성공대사님은 내가 인신공양에 제물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면서도 나를 심대인에게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 흥복사의 중창불사를 위하여 나를 판 것이 아닌가?’

당장에라도 성공대사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배는 바다 한 가운데 있었고, 자신은 배 안에 갇힌 몸이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다가 얕전하기를 바랄 뿐이야. 바다에 바쳐지지만 않으면 진나라에 가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봐야 벼슬아치나 부자들의 첩이 되든지, 아니면 종이 되는 수밖에 없겠지만.”

점분이의 말대로 홍장이 바다가 얕전하기만을 기도하며 사흘을 더 갔을 때였다.

선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고 있는데, 배가 한 쪽으로 기우똥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뱃전을 두드리는 파도소리가 천둥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다.

뱃사람들이 허둥거리는 소란스러움이 한참을 이어졌다.

그 동안 배 아랫 쪽에 뽕뽕 숨겨놓았던 처녀 세 명이 뱃사람의 손에 이끌려 갑판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저 처녀들을 바다에 바칠 모양이구나. 뱃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빠뜨릴 모양이구나.’

그리 짐작한 홍장이 보따리 속에 지니고 온 목탁을 들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홍장아, 너는 나올 것이 없다. 선실로 내려가 있거라.”

심국대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낫빛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대인. 저도 제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홍장의 말투에서 강한 고집을 읽은 심국대인이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앉거라.”

벧머리에는 점분이를 비롯한 세 처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집채더미 같은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때마다 배가 절반이나 기울어 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제단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있던 심국대인을 비롯한 사람들도 바닥에 나뒹굴었다가 겨우 일어나 앉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 했을까?

벧사공 가운데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대인, 바다 용왕님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심대인이 고개를 주억거리자 벧사공이 다른 벧사공에게 눈짓을 했다.

벧사공 둘이 점분이에게 다가가 번쩍 들어올렸다.

그 순간 홍장이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발 멈추세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점분이를 바다로 던지기 위하여 하나 둘 요 람을 태우던 벧사람들은 동작을 멈추었고, 심국대인이 뜨악한 눈빛으로 홍장을 돌아보았다.

“대인, 인신공양을 멈추어 주시지요. 제가, 제가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목탁을 치며 바다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홍장이 안간힘을 다하여 말했다.

“아니다, 홍장아. 기도로 분노를 멈출 바다가 아니니라. 저 바다는 지

금 인신공양을 원하고 있다. 인신공양만이 저 바다를 달랠 수가 있다. 괜히 나서지 말거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니라.”

심국대인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바뀌었다.

홍장이 소리를 질렀다.

“꼭 인신공양을 해야한다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먼 소리냐? 나는 너를 인신공양의 제물로 쓰기위하여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 뜻을 거두거라.”

“아닙니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홍장이 벌떡 일어섰다.

“안된다. 홍장아. 앉거라. 앉거라, 어서.”

심국대인이 홍장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다시 집채더미만한 파도가 몰려와 배의 옆구리를 쳤다. 배가 기우뚱 절반남아 기울어졌다가 겨우 바로 섰다. 사람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가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런 파도가 한번만 더 밀려온다면 배가 뒤집히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홍장의 뇌리를 스쳐갔다.

홍장이 심국대인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대인, 제가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탁을 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는 목탁소리에 맞추어 벧사람 모두 관음보살을 염송하도록 해주십시오. 관음보살님은 중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관음보살님을 찾으면 바다는 잔잔해지고 대인의 배는 편한 항해를 할 것입니다.”

“홍장아, 부질없는 짓이니라.”

“제 기도가 부질없는 것이 되면 제가 바다에 뛰어들겠습니다.”

“정 그래야 되겠느냐?”

“어서 명령을 내려주시지요. 점분이 처녀를 제 자리에 앉히고 제가 치는 목탁소리에 맞추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라 하십시오.”

홍장의 눈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눈빛에 쏘인 심국대인이 영을 내렸다.

“모두들 듣거라. 홍장의 목탁소리에 맞추어 관음보살을 외우거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이 들어 우리 배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거라.”

심국대인의 명령에 따라 뱃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허리 굽혀 절하며 관음보살을 찾기 시작했다.

홍장이 치는 목탁소리는 바람 속에서도 청명한 소리를 냈다.

“관음보살, 관음보살, 관음보살.”

처음에는 시늉을 내느라 작은 소리로 시작된 염송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갑판을 덮고 바람을 뚫더니, 바다로,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염송을 했을까?

사람들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흐르고 귀는 거센 바람소리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뱃머리에서 사공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대인어르신,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파도가 죽고 있습니다.”

그소리에 홍장이 눈을 떴다.

찢어질 듯 필력이던 돛이 팽팽한 바람을 받고 있을 뿐, 필력은 소리는 내지 않았다.

“홍장아, 바다가 노여움을 풀었구나. 관음보살님께 올린 네 기도가 효험을 발휘했구나. 네 정성이 관음보살님을 감동시켰구나.”

“아닙니다, 대인어르신. 이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빌면 관음보살님께서 응해 주신다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허허, 그렇느냐? 홍복사불사에 바친 수십만금이 아깝지 않구나. 너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니라.” “대인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절강성 보타산 아래 심가촌에 당도할 때까지 바다의 분노는 없을 것입니다.”

“나도 네 말을 믿는다. 아까 관음보살님을 에타게 부르던 네 이마에서 한 줄기 섬광이 뿜어져 나왔니라. 그 빛 속에서 언뜻 관음보살님의 형상을 본 듯도 싶구나.”

심국대인이 한없는 신뢰의 눈빛을 홍장에게 보내다가 입을 열었다.

“대국에서 백제국이나 신라국, 그리고 고구려국을 오고갈 때에 꼭 건너야하는 이 바다를 뱃사람들은 황천이라 부른다.”

“황천이라구요? 사람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하는 그 황천 인가요?”

“그 황천이니라. 이 거친 바다에서 술한 사람들이 죽어 갔니라. 오죽 했으면 인신공양을 했겠느냐? 허나 앞으로는 내 상단에서 부리는 배에서 인신공양은 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동안 술하게 인신공양을 했지

만,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절반은 무사했고, 절반은 험한 꼴을 당했니라.”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신공양이 라는 걸 시작했겠지만, 꼭 효험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네 말이 맞다. 인신공양은 아까운 목숨만 희생시키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심국대인의 말에 홍장이 정색을 하고 물었다.

“대인어르신, 성공대사님께 수십만금을 들여 저를 사신 까닭이 무엇 입니까?”

“나는 너를 사지 않았다. 성공대사가 너를 귀찮다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저에게 주십시오, 했을 뿐이니라.”

“결국은 홍복사 불사경비로 대인어르신께서 수십만금이나 되는 금 은보석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되었다.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너를 달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니라. 그것이 너를 사겠다는 소린 줄을 그때는 생각도 못 했다. 너를 데려다가 어떻게 할지 요량도 없이 말을 내뱉고 보니, 네가 내 배에 타고 있더구나. 내가 천하의 장사꾼이니라. 장사꾼은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너로하여 나는 큰 이문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제발 그리하십시오.”

홍장이 함장을 했다.

심국대인이 마주 함장을 한 다음에 모든 뱃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듣거라. 앞으로 우리 배가 심가촌에 무사히 정박할 때까지 우

리 배에서는 아침저녁으로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는 예불을 드릴 것이다. 아침에는 먼동이 채 뜨기 전에 예불을 드릴 것이고, 저녁에는 예불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예불을 드릴 때에는 노꾼은 노젓기를 멈추고 갑판으로 나올 것이며,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갑판으로 나와 예불에 참석해야할 것이니라. 인신공양으로 쓸 목적으로 태운 세 처녀도 이젠 제물이 아니다. 배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좋다.”

“그 아이들은 제가 쓸 일이 있습니다, 대인어르신.”

홍장의 말에 심국대인이 물었다.

“네가 어디에?”

“이 배안에 여자가 셋입니다. 앞으로는 하루 세끼의 밥을 저희들이 짓겠습니다. 취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네가 구태여 그런 수고까지 할 필요는 없니라.”

“맘값은 해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홍장의 말에 심국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볼수록 네가 참 귀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그동안 술 하게 많은 여자를 만나고 상대해 보았지만, 너처럼 총명한 아이는 없었구나. 홍장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겠느냐?”

홍장이 대답했다.

“저는 어차피 대인어른께 매인 몸입니다. 어찌 대인어르신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까?”

“네가 그리 시원하게 대답해주니, 내 마음이 한결 편쿠나. 너 내 딸이

되는 것이 어머니냐?”

“예? 제가 어찌 대인어르신께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제게는 엄연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친아버지는 친아버지로 모시고 내 수양딸이 되는 것이 어머니냐? 너로 하여금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도록 해주마.”

그러나 홍장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성공대사에게 수십만금을 주고 데려 왔으니, 심국대인한테 매인 몸이기는 했지만, 수양딸이 되어달라는 말에는 넘죽 좋습니다, 할 수가 없었다. 바다에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들 수도 있고, 여종이 되라하면 여종이 될 수는 있어도 수양딸이 되라는 말에는 망설임이 앞섰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인어르신.”

홍장의 말에 심국대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또 생각도 없이 서둘렀구나. 네가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나도 모르게 나온 소리니라. 너를 만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꼭 꿈속을 헤매는 듯 내가 심국이 아닌 듯 싶구나.”

“송구스럽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를 내 수양딸을 삼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 욕심일 뿐, 결정은 네가 하거라.”

그러나 홍장은 배가 절강성 보타포구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국대인의 수양딸이 되는 일이 백제국에 남아 계신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 같아 마음이 깨름칙 했다.

심국대인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홍장은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배에서 내렸다. 백제국 소량포구를 떠난 지 열 이레만이였다.

포구에는 심국대인을 태우고 갈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였다.

“홍장아, 너는 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자. 어서 타거라.”

“예, 대인어르신.”

홍장이 막 마차에 오를 때였다.

한 떼의 사람들이 달음박질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황후가 죽었다. 천하에 악독한 가남풍이 죽었다.”

9. 원홍장, 심황후가 되다

심가촌 심국의 집에는 뜻밖에도 범룡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장의 가슴이 사정없이 뛰는 참인데, 심국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합장을 했다.
“아니, 범룡대사님, 어인 일로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까?”
심국이 물었다.
“귀한 분을 모시고 올 것같아 내려왔습니다.”
범룡스님이 대답했다.
“귀한 분이러니요?”
심국이 홍장을 돌아보았다.
“홍장처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범룡이 성큼성큼 다가와 홍장에게 합장으로 인사를 했다.
홍장이 합장을 하며 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지께 범룡대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고는 처

음 뵙는데도 어제 뵈듯 낮이 익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곤대인을 통하여 네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니라. 심대인, 후원정자에서 차나 한 잔 하실까요? 백제국
소식도 듣고 싶고, 홍장처자와 함께 오신 내력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십시다. 차를 준비시키겠으니, 두 분이 먼저 후원으로 가지시
요.”

심국의 말에 범룡스님이 ‘가자, 홍장이’하면서 앞장을 섰다.

진나라의 거상이며 회계국 제후의 집답게 심국의 집은 으리으리했
다. 기암괴석 사이사이 나무들마다 꽃을 피우고 있었고, 꽃이 진 자리에
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한참을 걸어 정자에 도착하자 정자
아래의 큰 연못에서는 색색가지의 잉어 수십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
다.

“이놈들아, 잘 있었느냐?”

범룡스님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노란색의 잉어 일곱 마리가 물가로 나와 입을 삐꺼머렸다.

“스님, 잉어들이 스님께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잉어만 스
님께 아는 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장의 말에 범룡스님이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듯이 노
란 잉어들을 향해 손으로 몇 번 쓰다듬는 시늉을 했다.

범룡스님이 말했다.

“일곱 마리의 노란 잉어는 심대인의 아들들이니라.”

“예? 잉어가 어찌 심대인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심대인이 전생에 저지른 사람을 죽인 악행으로 인하여 잉어로 태어

나게 되었니라.”

“살인악행을요?”

“그것도 일곱 명을 죽였니라.”

“심대인도 노란 잉어 일곱 마리가 당신의 아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장의 물음에 범룡스님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다. 일부러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걸 알면 심대인이 괜한 집착을 하게 된다. 잉어로 태어난 자기 자식들을 날마다 보는 심정이 어떻게겠느냐?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그때 심국이 차를 들린 하녀를 앞세우고 다가왔다.

그러자 노란 잉어 일곱 마리가 서둘러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오르십시다. 마침 운남성에서 올해 생산된 햇차를 구해다 놓았군요.”

“별써 운남성 햇차가 나왔답니까? 입안에서 군침이 돕니다, 그려.”

“수일 내로 몇 단지 올려 보내겠습니다.”

“큰 시주이십니다.”

범룡스님이 드러나게 좋아했다.

“저야말로 이번에 큰 시주를 받아왔습니다.”

“큰 시주라니요? 홍법사 대불사를 할 만큼 큰 시주입니까?” “그렇다 마다요. 홍장낭자를 시주로 받았으니, 세상에 이보다 큰 시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홍장낭자 덕분에 황천을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범룡스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신공양을 하지 않고도 성난 바다를 잠재우고 황천을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홍장처자 덕분이라니요?”

범룡스님이 물었다.

심국이 홍장을 만나게 된 연유와 홍장의 기도로 바다가 잠잠해진 일을 신이 나서 털어놓았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요. 홍장은 연꽃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심대인께서 백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에 소송도 연꽃꿈을 꾸었습니다. 홍장처자의 어머니 정씨부인이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와 소송의 손에 쥐어 주더군요. 곧대인에게 백제국에 가면 꼭나 송정마을에 들러 원치사와 홍장의 소식을 알아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내려갔더니, 심대인께서 백제국에 가셨다길래 귀한 분을 모시고 올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연꽃꿈을 꾸었는데, 저 연꽃 한 가운데에 연꽃을 다 덮을만큼 큰 연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쯤 심대인이 오실 것 같아 미리 내려와 있었지요. 정말 귀하디귀한 연꽃 한 송이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려.”

“허허, 저도 이제 홍장낭자가 연꽃이라는 것도 믿겠고, 홍장낭자가 보살이라는 것도 믿겠습니다. 헌데, 스님. 황후 가남풍이 죽었는데, 앞으로 황실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어진 황후가 들어와 혜황제를 잘 보필한다면 진나라가 십 수 년은 더 가겠지요.”

“가남풍이 독배를 들고 죽었다는데, 진나라를 비롯한 대국의 역사상 가씨만한 악녀는 없었지요?”

“그래요. 가남풍은 자기를 황후의 자리에 앉혀준 태후와 그 일족을 배반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자신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서 사구라는 후비와 무황제 사이에서 낳은 황태자 사마흘을 죽이려고 호시탐

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나중에는 여동생이 낳은 아들을 자신이 낳은 것처럼 꾸며 황태자를 삼으려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마홀에게 약을 먹여 죽이려 했으나 죽지 않자 절구공이로 때려 기어코 죽이고 말았답니다. 그 일이 발각이 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유배 길의 가남풍에게 백성들이 돌을 던졌대지요.”

“허허허. 명색이 제후인 저보다 산속의 범룡대사님께서 황실 돌아가는 일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듣는 귀가 있으니까요. 보타사 관음보살님께 빌면 소원성취를 한다는 소문이 크게 나서 진나라의 전국 곳곳에서 불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다보면 세상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심대인, 어떻습니까? 보면 볼수록 원홍장처자가 보타사의 관음보살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왜 아니랍니까? 제가 꿈에 만났던 관음보살님과 똑 같았습니다.”

“모두가 인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원홍장처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도 연꽃꿈이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연꽃은 고귀한 꽃입니다. 세상의 어떤 꽃도 따라오지 못할 기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야 이를 말씀입니까?”

“두 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홍장이 몸을 일으키자 범룡스님이 올려다 보며 말했다.

“홍장아, 보타사에 네가 꼭 친견해야하는 분이 계시다. 언제 오겠느냐?”

홍장이 대답대신에 심국의 눈치를 보았다.

“안 그래도 노둑이나 풀리면 보내려고 했습니다.”

심국의 말을 범룡대사가 받았다.

“보아하니, 노둑을 풀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홍장낭자는 자그마치 스무날 가까이 배를 타습니다. 한번 출항을 했다가 돌아오면 어지간한 장정들도 사나흘은 앉아 놓기 십상입니다.”

“허나 보십시오. 홍장처자의 눈빛은 맑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배를 타고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룡스님의 말에 심국이 새삼 홍장의 안색을 찬찬히 살폈다.

“두려움이 없이 배를 타고 왔대구요?”

“그렇지요. 홍장처자는 거센 파도에 바다가 요동을 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는 대로 자기 몸을 흔들어 주며 황천을 건너오면서도 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았겠지요. 안 그러냐? 홍장아.”

“범룡대사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는 관음보살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리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여 녹초가 된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이제 보니, 심대인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덜 해 보입니다. 전에는 출항에서 돌아오시면 하루 이틀씩 문밖 출입을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늘 공포에 떨었지요. 그나마 이번에는 처음부터 배를 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관음보살님께 예불을 드리면서부터는 마음이 항상 편안했습니다. 모두가 홍장낭자 덕분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법륜스님이 다시 한 번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띠우고는 정자를 내려 갔다.

“허, 이놈들이 끝내 얼굴을 내밀지 않는구나.”

법륜스님이 연못 속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자 심국이 말했다.

“노란잉어들은 아직도 제가 낚이 선 모양입니다. 아까부터 유심히 보 있습니다만, 물 깊이 숨어 나오지를 않는군요.”

“잉어라고 어찌 낚가림이 없겠습니까? 자주 나오셔서 먹이도 주시고,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고 하시지요.”

“그런다고 잉어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세상 만물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길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압니다.”

“허허, 그래요? 대사님 말씀대로 노란잉어와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차는 내일이라도 바로 올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더욱 고마운 일입니다.”

법륜대사가 심국에게 합장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홍장을 돌아보았다.

“참 좋은 인연이구나. 관음보살님께서 아름다운 인연을 접지해 주셨구나.”

법륜대사의 참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말이 어쩐지 홍장의 귀에는 꿈속의 말처럼 아리송하기만 했다.

홍장이 심국을 향해 말했다.

“대인어르신, 모레 보타사에 다녀오겠습니다. 차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거라. 차단지는 머슴에게 지워보낼 터이니, 널랑은 점분이를 데리고 가거라.”

“점분이를요?”

“앞으로 점분이를 네 하녀로 부리거라. 아니,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집의 누구라도 네가 부리고 싶은대로 부리거라.”

심국의 말에 홍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에 대한 배려는 고맙게 받겠습니다만, 점분이와 함께 온 두 처녀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용케 살아나면 벼슬아치나 부자의 첩으로 팔리거나, 계집종이 되어야한다고 하던데, 파실건가요?”

“아니다. 바다를 달래느라 어쩔 수 없이 처녀를 사다가 인신공양을 했다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한테 이미 약조했지 않느냐? 점분이랑 그 아이들은 내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기회가 닿으면 짝을 맺어줄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대인어르신.”

“내가 너한테 고맙지. 네 덕분에 살아왔지 않느냐?”

“아닙니다. 관음보살을 함께 불러준 모두의 정성입니다.”

홍장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내저었다.

홍장과 심국의 얘기를 듣고 있던 법륜대사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입을 열었다.

“건업으로는 언제 가실겁니까? 심대인.”

“황후의 죽음으로 황실이 어수선했는데, 당분간은 여기 심가촌에 머물겠습니다.”

“건업이 어딘가요?”

홍장이 심국에게 물었다.

“해황제가 있는 곳이니라. 응천성이라고도 부르다가 하늘이 낸 황제가 머무는 곳이라하여 천경성이라고도 불린단다. 건업의 동쪽에 지금 색의 종산이 있는데,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빼어난 경관의 산이다. 그 산 중에는 절이 수십개가 있어 밤낮으로 목탁소리가 그치지 않고,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향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란다. 내가 다음에 건업에 갈 때 함께 가자꾸나.”

심국의 눈빛이 유난히 다정해 보였다.

그 모습에 범룡스님이 입가에 살짝 웃음빛을 띠며 걸음을 옮겼다.

“소승,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홍장이 뒤를 따르는데, 몇 걸음 걸어가던 범룡대사가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참 좋은 인연이구나. 아름다운 인연이구나.”

그러나 홍장은 범룡대사의 좋은 인연이라는 말이 여전히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그 좋은 인연이라는 것이 자신과 심국의 인연을 이르는 것은 알겠는데, 왜 좋은 인연이라는 것인지,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것은 사흘 후에 점봉이를 데리고 보타사를 찾았을 때였다.

보타사 관음전 앞에 서 있는 관음보살께 백팔 배를 올리고 주지 방에

서 차를 마실 때였다.

“심국대인이 너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구나.”

범룡스님이 유심히 홍장의 눈치를 살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심대인이 너한테 따로 하신 말씀이 없으시더냐?”

홍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를 수양딸로 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구나. 우선은 수양딸로 운을 뷔구나. 허나 속내는 수양딸이 아닐 것이다.”

“수양딸이 아니면요?”

“심대인이 삼 년 전에 상처를 하고 아직 혼자 살고 있다. 회계국의 제후에다 진나라에서도 내노라하는 부자이니라. 명문가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혼담이 들어온다. 그걸 모두 마다했던 심대인이 하루는 나한테 말하더구나. 백제국 여자가 심성도 곱고 예쁘다던데, 중매를 설 뜻이 없느냐고 말이니라.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네 어머니 정씨부인이었느니라.”

“예? 제 어무니가요?”

홍장이 놀라 물었다.

“네 어머니를 닮은 너라면 제후국의 왕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백제국 곁에 들르는 상단행수에게 네 소식을 알아보라고 한 까닭이 거기에 있었니라. 이번에 심대인이 백제국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인연이 닿는다면 너를 데리고 올 줄 알았니라. 사람과 사람

의 만남이란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 너와 심대인의 만남이 그렇니라. 그래, 어찌할 셈이냐? 만약에 심대인이 격식을 갖추어 청혼을 한다면 받아들일겠느냐?”

“수양딸이 되어달라는 청에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자리라면 더욱 대답하기 어렵지요.”

“그럴 것이다. 심대인은 좋은 사람이다. 인신공양 때문에 나하고 종종 말다툼을 했다만, 이번에 백제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가 많았을 것이니라. 인신공양 대신에 배안에 관음보살님을 뒀을 것이니라.”

“심대인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까?”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리될 것이다. 너를 바라보는 심대인의 눈빛에는 너를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니라. 그것은 단지 너를 수양딸을 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너를 한 여자로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남자를 남자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심대인이 저한테 청혼을 해 오신다면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그것은 나도 모른다. 네가 결정할 문제니라. 어차피 인연 따라 흘러갈 것이 아니더냐? 네가 심대인의 수양딸 인연이면 수양딸이 될 것이고, 심대인의 부인이 될 인연이라면 부인이 될 것이 아니더냐? 기다려 보자꾸나. 네가 무엇이 될지.”

법륜대사가 그렇게 말을 맺었다.

홍장이 수양딸이 되어달라는 심국의 청을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한 눈에 보기에든 기운이 장사일 것 같은 머슴 두 명과 하녀 세 명이 수레에다 큰 가마솥 세 개를

싣고 집을 나서고 있었다.

하녀들 중에는 이번에 함께 배를 타고 들어 온 순님이라는 처녀도 있었다.

홍장이 물었다.

“어디 가니? 순님아.”

순님이 대답했다.

“죽공양 나간다.”

“죽공양?”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얘인데, 대인어른께서 날마다 죽을 세 술단지씩 끓여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하면 나도 함께 가야겠구나.”

홍장이 기쁜 마음으로 나서자 멍치가 우람한 머슴이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홍장 아가씨는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홍장이 고집을 부렸다.

“아니예요, 나도 갈래요.”

“홍장아가씨를 모시고 가면 저희들이 대인어른께 꾸중을 듣습니다.”

“왜요? 나도 함께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꾸중을 듣습니까?”

“아가씨는 이 집의 하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대인께서 영을 내리셨습니다. 홍장 아가씨는 귀한 분이니까, 집안의 허드렛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홍장과 머슴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수레를 타고 나들이를 나가던 심국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

“대인 어르신, 홍장 아가씨께서 죽공양에 함께 하시겠다지 겁니까요?”

머슴이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하는 눈빛으로 심국을 올려다보았다.

“홍장아, 네가 그 험한 자리에 왜 가려하느냐? 널랑은 집에 있거라.”

심국의 말에 홍장이 바로 대꾸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죽을 나누어주는 일이 어찌 험한 일입니까? 대인 어르신의 적선이 골고루 미치는 자리가 아닙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제 손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죽을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허허, 네 고집을 누가 말리겠느냐? 다녀 오너라. 허나 죽을 나누어주다 보면 불량배를 만날 수도 있다. 웅아, 네가 아가씨를 각별히 보호하거라.”

“예, 대인어르신. 주처라는 놈만 나타나지 않으면 별 탈은 없을 것입니다요.”

웅이 허리를 굽신거렸다.

심국이 떨어진 다음이었다.

죽을 실은 수레를 밀며 홍장이 웅이에게 물었다.

“주처가 누구야?”

“천하에 소문난 불량배입니다. 원래 양흙 사람이라는데, 기운이 천하장사입니다. 진나라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천하의 빌어먹을 놈이지요. 며칠 전부터 심가촌 주변을 맴돌다가 죽 공양 때가 되면 나타나 행패를 부립니다.”

“원래 본성이 악한 사람은 없다고 했어.”

“주처는 태생이 악한 놈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죽고 나자 천

하를 떠돌면서 세상의 나쁜 짓은 다 배웠다고 하지요. 아무튼 그 놈이 나타나면 홍장 아가씨는 얼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놈은 저희들이 상대할테니까요.”

“웅이의 듩직한 체구를 보니, 설령 주처같은 사람이 행패를 부려도 쉽게 제압을 하겠는걸 뭐.”

홍장이 웃으면서 말하자 웅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 놈이 글썽 세상을 떠돌며 어찌나 싸움을 많이 했던지, 싸움에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웅이도 주처와 싸워봤어?”

“2년 전엔가 딱 한번 맞서 봤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혼자 죽술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쳐 먹고 있더군요. 요즘은 그 놈이 나타나 죽을 술채로 달라고 하면 그냥 내줍니다. 어차피 혼자서 죽 한 술은 다 쳐먹지 못하니까요. 그 놈이 남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말끝에 웅이가 싱긋 웃었다.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는 선한 웃음이었다.

홍장의 뇌리로 문득 점분이의 짝으로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스쳐 갔다.

오래 전부터 죽공양을 해왔는지, 심가촌 넓은 광장에는 백여 명의 혈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바가지를 들고 줄을 서 있었다.

죽술이 왔는데도 서로 먼저 타먹겠다고 다투는 일도 없이 차례대로 다가와 바자기를 내밀었다.

홍장이 국자를 들고 관음보살을 염송하면서 한 국자씩 나누어 주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줄이 흠으러지면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주치가 나타났다. 주치가 나타났다.”

홍장이 무슨 일인가 고개를 들었다.

저만큼 앞에서 웅이보다 체구가 한 배 반은 될 듯한 사내가 씩씩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웅이가 주먹을 꽉 움켜쥐고 싸울 태세를 취했다.

“웅이, 저 사람이 먼저 주먹질을 하기 전에는 싸우면 안 돼.”

“저런 놈한테는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구요.”

“안 돼. 그러지 말어. 오면서 주치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주치라는 사람하고도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네.”

홍장이 평온한 마음으로 죽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가까이 온 주치가 바가지도 없이 소리를 질렀다.

“나도 죽줘.”

홍장이 주치의 눈을 들여다 보며 말했다.

“바가지를 안 가져오셨네요, 순님아, 바가지 있지? 이 분은 바가지가 없으니, 우리 것을 빌려드려야겠구나.”

“응, 여기.”

순님이 바가지를 내밀 때였다.

주치가 바가지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툭 밟아 깨뜨리고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술째 줘. 내가 한술단지 다 먹을 거야.”

“바가지를 깨뜨린 댁에게는 죽을 나누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가지가 댁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댁이 죽을 받아 먹어야 할 귀한 바

가지입니다.”

“뭐야? 나한테는 죽을 못 주겠다고?”

주치가 주먹을 움켜쥐고 한 걸음 다가섰다.

웅이가 앞을 막아섰다.

“웅이, 뒤로 물러나 있어. 이보세요, 댁은 기운이 천하장사라면서요? 그 좋은 기운을 겨우 죽 바가지 하나 깨뜨리는데 쓴대서야, 어디 사내 대장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큰 주먹으로 나를 한 대 칠건가요?”

“내가 못 칠 줄 알고?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 까불고 있어.”

차마 주먹질은 못하고 웅이가 씩씩 거렸다.

“댁은 죽 한 술단지를 달라고 때를 쓰는데, 댁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다면 드리지요. 보세요, 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댁을 붙잡힌 사람이라고 동정하고 있잖아요, 천하장사라면서 왜 동정을 받고 살아요. 다같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왜 가난한 사람 앞에서 행패를 부리세요?”

홍장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관음보살을 부르면서 조곤조곤 말했다.

어느 순간 주치의 눈빛에서 오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바가지를 깨뜨리지 않고 죽을 먹었다면 새 바가지에 죽을 드리겠어요. 어찌실래요? 그냥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바가지의 죽을 드실래요?”

“죽을 먹겠소. 한 바가지만 먹겠소. 죽을 주시오.”

주치가 기가 죽어 사정했다.

새 바가지에 죽을 가득 담아 주면서 홍장이 말했다.

“이 죽 한바가지가 댁을 새사람으로 만들어 줄거예요. 댁이 마음먹기

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거예요. 닥한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천하장사라는 힘이 있잖아요.”

주치가 말없이 죽 바가지를 받아다가 한 쪽에 쭈그리고 앉아 맛있게 먹고는 죽 바가지를 돌려주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떠나갔다.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다. 한 눈에 보기에 여염의 사내는 아닌, 비단 옷으로 치장한 사내였다. 주치가 자리를 뜬 다음에 비단옷의 사내도 말없이 자리를 떴다.

그런데 죽공양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심국의 마차가 빠른 속력으로 달려왔다.

“응아, 황제폐하를 못 뵈었느냐?”

심국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주치라는 놈이 행패를 부리는 통에 못 뵈었습니다.”

“주치가 나타났었다구? 죽 한 솥은 버렸겠구나.”

심국이 혀를 끝끝 찀다.

“아닙니다. 홍장 아가씨의 설득에 죽 한 바가지만 먹고 얌전히 돌아갔습니다.”

“허허, 그것은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래, 황제폐하는 못 뵈었다는 말이지?”

심국의 말에 순남이가 나섰다.

“아까 홍장아가씨가 주치라는 사람을 설득하고 있을 때 비단옷을 입은 남자가 유심히 보다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 분인지도 모르겠구나. 황제폐하께서 보타섬에 오셨으면 틀림없

이 내 집에 들르실 것인데, 서둘러 가 봐야겠구나.”

심국이 허둥지둥 마차를 타고 떠난 다음에 죽 공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다.

웅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홍장 아가씨, 주치라는 놈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 무서웠어.”

“대인어르신께서 말씀하신대로 귀하신 분이 맞으시군요. 힘께나 쓴 다하는 저도 그 놈 앞에만 서면 가슴이 떨리는데요.”

“오늘 보니까, 주치라는 사람이 의외로 선한 구석이 있더군. 앞으로는 죽을 솥단지째 먹겠다고 때를 쓰지 않을거야.”

홍장이 웅이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점분이 다가와 말했다.

“홍장 아가씨, 대인어른께서 사랑으로 차를 내오시랍니다.”

“다모가 따로 있잖느냐?”

홍장이 말했다.

“다모가 차를 내갔는데 또 홍장 아가씨더러 다시 내오라십니다.”

“알겠구나. 차는 준비되어 있겠지?”

“예, 어서 차를 내가십시오. 우리 대인어른께서 찢찢 매시는 걸 보니까, 대인어른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봅니다.”

점분의 말에 홍장의 뇌리로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혹시 사랑에 와 계시는 손님이 황제폐하가 아닐까?’

홍장이 차를 들고 사랑으로 들어가자 비단옷의 사내가 뚫어져라 올려다 보았다.

눈길을 아래로 내리깔고 조심조심 다가가 두 사람 앞에 차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비단옷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아까, 죽 공양을 하던 남자구려. 주치라는 불한당을 꼼짝 못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소이다. 이 남자는 누구니까? 심제후의 집에서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소신의 딸입니다, 폐하.”

심국의 대답에 황제가 허허 웃었다.

“짐이 심제후에게 자식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구려. 없던 딸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불쑥 솟았습니까?”

“수양딸입니다. 백제국 꼭나출신으로 소신하고 인연이 닿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백제국이라면 진나라에서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심공, 저 남자를 짐에게 주시오.”

황제가 갑자기 심국에게 매달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황실의 궁녀로 달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후비를 삼으시렵니까?”

“황후를 삼겠소. 천하의 악녀 가남풍이 죽고 지금은 황후전이 비어있지 않소?”

“폐하, 아무리 폐하시라고 해도 이걸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소신, 당혹스럽습니다.”

심국이 당황한 표정으로 홍장을 돌아보았다.

홍장이 밖으로 나올 수도,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을 수도 없어 엉거주춤 서 있는데, 황제가 심국의 손을 덥씩 잡았다.

“심제후, 내가 오늘 심제후의 집에 온 연유가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가남풍이 사약을 먹고 죽은 다음에 내내 잠자리가 편치를 앓았소. 입에 피를 문 가남풍이 찾아오는가하면 가남풍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소. 헌데 그 저께 밤이었소. 한 여인이 나타나 회계국왕 심제후가 동국에서 귀한 보물을 얻어왔으니, 그 보물을 취하거라.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소.”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태후마마는 아니셨습니까?”

“아니요. 어마마마는 아니었소. 헌데, 어제밤에 객관에서 잠을 자는데 심제후가 연못에 핀 한 송이의 연꽃을 꺾어 짐한테 바치더이다.”

“소신이 폐하께 연꽃을 바쳤다고요?”

“그렇소. 잠을 깨고 나서도 몸이 구름 속을 나는 듯 환희심에 젖었는데, 문득 꿈에 나타났던 여인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더이다. 헌데 오늘 그 여인을 만났소이다.”

황제가 흥장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다.

“그 여인을 만났다고요? 어디서 말입니까?”

“심제후가 베푸는 죽공양 자리에서 만났소이다. 바로 홍장이라는 저 남자였소. 심제후, 홍장을 짐에게 주시오. 홍장이라면 가남풍으로 하여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아 줄 것 같았소.”

심국이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황제가 엄포를 놓았다.

“심제후, 어쩌면 홍장남자는 처음부터 짐의 여인이었을지도 모르오.”

“예?”

이건 또 무슨 엉뚱한 고집인가 싶었는데, 심국이 어이없다는 표정의

로 황제를 바라보았다.

“안 그러면 두 번이나 그런 꿈을 꾸었을 리가 없소. 꿈에 나타난 여인이 심제후가 동국에서 얻어 온 귀한 보물을 집더러 취하라고 한 까닭이 뭐겠소? 그 보물의 주인이 짐이라는 뜻이 아니겠소? 비록 꿈일망정 심제후는 이미 그 보물을 짐에게 주었소.”

“폐하, 그건 억지입니다. 소신이야 폐하께서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습니다만, 홍장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홍장의 뜻이 제일 소중합니다. 홍장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황후가 되어 폐하를 모시겠느냐?”

심국이 슬픈 표정으로 홍장을 올려다보았다.

기왕에 황제 앞에서 자신의 수양딸이라고 밝힌 심국이였다.

“소녀, 아버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홍장이 처음으로 심국을 아버지라 불러주었다. 그것은 심국의 수양딸이 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홍장아, 폐하의 뜻에 따르거라. 네가 황후가 되어 갈갈이 찢긴 진나라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 주거라. 관음보살을 향한 네 신심이라면, 네 착한 심성이라면 충분히 그리고도 남을 것이다.”

“하오나, 아버님. 무턱대고 황제폐하를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홍장의 말에 황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하면 무슨 조건이라도 있다는 말이더냐?”

“소녀, 황후가 되더라도 황실에만 얽매어 살지는 않겠습니다. 소녀가 듣기로 황도 건업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 백성은 회계국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창고를 열어 구휼미를 풀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소녀, 황후가 되어 폐하를 모시게 되면 우선 심가촌에서처럼 거리에 나가 죽공양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황제폐하께서 계시는 황도에 서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것이야말로 짐의 선정을 빛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더냐? 황실 재정을 털어 네 죽공양을 돕도록 하마. 또 있느냐?”

황제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홍장을 올려다보았다.

“한 달에 한번은 제가 보타산 보타사에 출행하여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허나, 홍장아. 건업에서 보타산까지는 왕복 이레가 걸리는 먼 곳이니라. 건업의 종산에도 절은 많으니라. 구태여 이 먼 곳까지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보타사의 관음보살님만이 제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진나라의 화평과 폐하의 강녕을 기원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좋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마. 황후가 되겠느냐?”

황제의 물음에 홍장이 심국을 바라보았다.

심국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 폐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홍장이 황제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다음날이였다.

황제가 건업으로 돌아간 다음에 심국이 홍장을 불러 들었다.

“홍장아, 내가 그 멀고 먼 백제국까지 가서 너를 데리고 온 것이 험황제를 위해서였구나. 동국의 여인을 황후로 삼으라는 꿈이나, 내가 당신

한테 연꽃을 바쳤다는 말은 거짓은 아닐 것이다. 황제가 글읽기를 게을리하여 학문의 수준은 낮고, 어리석기까지 한 사람이지만, 본성은 착하나라. 홍장아.”

“예, 아부님.”

“너는 이제 나 심국의 성을 따라 심가가 되었니라. 심가 성에 원래 이름인 홍장을 붙여주고 싶었다만, 그것은 네 친부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따로 청(淸)이라고 붙였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심청이니라.”

말을 마친 심국이 별떡 몸을 일으키더니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았다.

“심황후마마, 소신 심국의 절을 받으시오소서.”

10. 허수아버황제와 자애로운 황후

황궁이 이수라장이라는 길 깨닫기까지는 채 이레가 걸리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입에서 귀로 건너 다녔다.

그 죽음의 시작은 악녀 가남풍이었다.

혜황제의 계모인 황태후가 자신의 친족을 황실에 들여 권력을 잡고 나자 혜황제는 허수아버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가남풍은 작달막한 키에 얼굴이 못 생겼는데도 황태후 양씨가 우겨서 태자비가 되었고, 진나라의 초대황제 무가 죽고 혜가 황위를 잇자 황후가 되었다.

그런데 황태후의 욕심이 너무 컸다. 사사건건 황후 가남풍을 무시하고 나왔다.

독이 잔뜩 오른 가남풍이 음모를 꾸며 황태후의 오라버니인 양준과 친척들을 3천 명이나 죽인 다음에 황태후를 냉궁에 유폐시켜 굶어 죽게 만들었다.

가남풍의 악행이 비로소 시작된 셈이었다. 가남풍은 친위대장 사마위를 끌어들여 사마량을 제거하고, 사마량이 죽고 나자 이번에는 황제의 칙령을 위조하여 사마량을 죽였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사마위를 처형당하게 만들었다.

사마량은 혜제의 숙부로 황실에서 피바람을 일으켜 사마씨의 씨를 말리려드는 가남풍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혜제의 사촌 아우인 사마경과 공모하여 칙서를 위조한 다음에 황태자 살해혐의로 가남풍을 체포하여 처형하고 가남풍 일족을 몰살 시켰다.

심황후가 황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마씨들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혜황제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죽고 죽이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가 권력의 중심이었다.

황제의 칙령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이었다.

혜황제가 심황후를 데리고 화림원 뜰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못에서 개구리가 그악스레 울어대고 있었다.

혜황제가 뒤를 따르는 신하에게 물었다.

“저 놈의 개구리들은 공적으로 우는 것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우는 것이냐?”

신하가 대답했다.

“나라 땅에서 우는 놈은 공적으로 우는 것이고, 개인 땅에서 우는 놈은 사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하찮은 개구리도 공과 사를 구별해서 우는데, 황실

의 벼슬아치들은 개구리만도 못하구나. 귀족이라는 자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여 공을 사적으로 탐하고 사치와 방탕 속을 헤엄치는구나.”

혜황제의 탄식에 심황후가 말했다.

“귀족들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황상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권위를 바로 세우소서.”

“짐이 위엄을 바로 세우려고 해도 힘이 없소이다. 명색이 팔왕이라하는 자들 가운데 벌써 절반이 죽었소. 짐이 죽인 것이 아니요 자기들끼리 음모와 모략으로 죽이고 죽었소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황제는 안중에도 없소. 사실 짐에게는 그것이 편하기도 하오.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라,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 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하오.”

혜황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오나 폐하, 백성들은 오직 폐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폐하가 흔들리시면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집니다.”

“무슨 걱정이요. 황후가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지 않소. 그나마 짐이 황제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순전히 황후덕분이요. 황후가 황실의 안주인이 된 삼 년 동안 황도의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하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귀족들이 황실의 내탕금을 가지고는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황후의 말대로 내탕금의 대부분을 백성을 구휼하는데 써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소.”

“그것이 폐하를 돕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맙소. 황후는 지난 삼 년 동안 오직 백성들을 위해 살아왔소. 자신

은 백성들과 똑같은 밥을 먹는다면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죽 아니면 한두 가지의 산채반찬으로 하루 세끼를 때운 것을 알고 있소. 짐이 황후의 공에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황후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혜황제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소첩의 소원이라면 다만 한 가지 폐하의 강녕하심과 진나라의 화평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보시오. 진정으로 황후 자신을 위한 소원을 말해보란 말이요.”

“정 그러시다면 소첩에게 관음보살상을 한 분만 내려주시지요.”

심황후가 진즉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바람 하나를 꺼내어 놓았다.

“관음보살상이요?”

“예, 폐하.”

“황후야말로 관음보살이 아니요? 관음보살한테 무슨 관음보살이 필요하오?”

혜황제가 웃지도 않고 말했다.

“폐하, 소첩을 놀리시면 싫습니다.”

심황후가 얼굴을 붉혔다.

“짐이 어찌 황후를 놀리겠소? 짐이 황궁에만 틀어박혀있는 듯해도 세상의 소문은 다 듣고 있소. 백성들 사이에서 황후를 관음보살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소. 짐을 향해 쏟아지던 욕은 다 사라지고 황후를 관음보살이라고 칭송한다하니, 얼마나 다행이요.”

“소첩은 다만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염원하며 관음보살을 염송하면

서 죽 공양을 할 뿐입니다. 백성들은 단순하여 황제나 왕이 조금만 잘 해 주면 만세를 부른다고 합니다. 죽 공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여 언젠가는 폐하를 향해 만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욱 고마운 말씀이요. 짐이 황위에 오른 지 강산이 한번 바뀌었소만,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짐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린 적이 없소. 황태후마마가 짐의 자리를 대신했고, 나중에는 황후 가남풍이 짐 대신에 백성을 다스렸고, 가남풍이 죽은 다음에는 팔왕이라는 왕족들이 황제의 칙서를 위조하여 마음대로 죽이고 죽였소. 실상 짐은 이름만 황제일 뿐이지 속내는 황제가 아니요. 허니, 백성들은 황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할 것이요. 황후가 죽 공양을 시작하면서부터 겨우 아, 황궁에는 황제라는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지요.”

“폐하,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고달퍼서 그렇지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히 황제폐하가 계십니다. 소첩이 죽 공양을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짐도 알고 있소. 이 죽은 황제폐하께서 내리시는 죽입니다. 한다지요. 그 또한 참으로 고맙소. 그나마 백성들이 짐을 사람취급을 해주는 구실이 되지 않겠소. 좋소이다. 짐이 황후에게 관음보살상을 선물하리다.”

“고맙습니다, 폐하.”

“헌데 관음보살상을 어디에 쓰시려는 것이요? 황후전에 모시고 기도를 드릴 참이요? 아니면 어느 사찰에 봉안을 할 생각이시요?”

“백제국으로 보낼 참입니다.”

“백제국으로 말이요?”

혜황제가 눈을 꿈벅거렸다.

“예, 폐하. 백제국 대방주 곡나 땅에는 소첩의 앞 못 보시는 아버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성심을 다하여 빌고는 있습니다만, 관음보살상을 백제국으로 보내 아버지의 광명천지를 빌고 또 빌게 할 예정입니다.”

“알았소. 짐이 황후에게 만금을 내어주겠소.”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더욱 더 죽공양에 성심을 다하여 폐하의 선정이 세상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심황후가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귀족들의 수챗구멍에서는 기름진 고기가 썩어가도 백성들은 하루 한 끼 나물죽을 끓여 먹기도 힘들었다. 귀족들의 수챗구멍에서 썩은 고기를 주워 먹은 백성들이 토사곽란을 일으켜 죽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렸다.

어느 날이었다.

심황후가 궁녀들과 함께 황도 거리에 나가 죽 공양을 하던 날이었다. 이날도 역시 죽을 받지 못한 십여 명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난 다음이었다.

“황후마마, 모자라지 않게 나눌다고 나누어도 꼭 죽을 못 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일은 조금 더 끓이도록 하자꾸나.”

심황후의 말에 다른 궁녀가 나섰다.

“아무리 더 끓여도 모자라기는 마찬가집니다. 뒤늦게 온 사람도 있

고, 앞에서 받아먹은 사람이 뒤로 돌아가 다시 줄을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궁녀가 나섰다.

“승상이라는 사람은 한 끼에 일만 전짜리 밥을 먹는다는데, 일만 전이면 죽 공양을 석 달은 할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어디서 들었느냐? 승상이 한 끼에 일만 전짜리 밥을 먹다니? 정말 그렇다면 천벌을 받을 소행이구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백성들 사이에는 버라벌 소문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죽은 황태후의 친척은 술을 데울 때 사람의 핏을 이용하였다 하고, 왕개라는 귀족은 사람의 젖을 먹여 키운 돼지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한번은 지금의 황제폐하가 황태자로 계실 때 어떤 귀족에게 물었답니다.”

“뭐라고 말이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밥은 굶지 않고 사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백성들의 삶은 늘 고단합니다.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는 백성은 부지기수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황태자마마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참으로 웃기셨습니다.”

“무어라고 하셨는데?”

심황후가 흥미를 가지고 물었다.

“황태자마마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백성들이 참으로 명청하구나. 쌀이 없어 밥을 못해 먹으면 고기를 삶아 먹으면 될 것이 아니더냐? 하고 말입니다. 쌀이 없는 집에 어찌 고기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명청이

라는 소리를 듣던 황태자마마를 귀족들이 더욱 업신여기고 깔보게 되었답니다.”

말끝에 궁녀가 웃음을 매달았다.

‘이 아이도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웃음거리로 보고 있구나. 자신은 궁녀로 있으면서 녹봉을 받아 끼니는 걱정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힘든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구나.’

심황후가 말했다.

“아닐 것이다. 폐하의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니라. 온갖 사치로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드는 귀족들을 크게 나무라는 말씀이셨니라.”

“정말 그럴까요?”

궁녀가 고개를 가우뚱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황후마마, 죽을 끓일 쌀과 보리와 옥수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해야 사흘이면 바닥이 납니다.”

심황후도 짐작하고 있는 일이었다. 며칠 전에는 후비들을 황후전으로 불러 후비전의 실림살이를 줄이고, 남은 곡식이며 재물을 백성구휼 하는데 내놓는 것이 어떠냐고 조심스레 의견을 물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열 명이 넘는 후비들 가운데 누구도 선뜻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서지는 자는 없었다. 벌레라도 씹은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돌아가 버렸다.

다른 궁녀가 말했다.

“황후마마, 이제 죽 공양을 그만 두시지요. 후비마마들 가운데 누구도 황후마마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황후마마 혼자 죽공

양을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정귀비전에는 쌀이 열 수레나 들어갔답니다.”

“설마 뜨거운 불 앞에 앉아 죽을 끓이기 싫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요?”

심황후가 궁녀들의 속내를 떠보았다.

“저희들이 그런다면 천벌을 받습니다. 바가지에 죽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백성들을 보면 저희들도 한량없이 기쁩니다. 죽 공양 때문에 애달아하시는 황후마마 뵈기가 송구스럽고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날 밤이었다.

혜황제가 말했다.

“그동안 죽공양을 하느라 심가촌에도 자주 못 내려갔소이다, 그려. 짐이 했던 한 달에 한번은 보타사 관음보살을 친견하게 해주겠다는 약조를 지키지 못했소이다.”

“아닙니다, 폐하. 그래도 일 년에 한 번씩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소첩이 어디에 있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음보살님은 소첩에게 오십니다. 소첩, 하루도 빠짐없이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황후의 마음을 짐이 어찌 모르겠소. 내일은 심가촌에 내려갔다 오시 구려. 짐이 호위 병사 몇 명과 함께 일만금을 내어드리리다.”

안 그래도 흥장이 기다리던 참이었다.

혜황제가 일만금을 내려주면 심가촌으로 내려가 법륜스님에게 관음보살상의 조성을 의논할 참이었다. 그런데 혜황제가 막상 일만금을 내려주겠다고 하자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일만금을 받아 관음보살상을 조성하여

백제국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가, 하는 망설임도 생겨났다.

심황후가 속내를 숨기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황은이 참으로 크시웁니다, 폐하.”

“아니요. 황후가 짐을 위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시오. 심제후께 안부도 전해주시오. 그럴 것 없이 짐도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소?”

“그것은 아니될 일입니다. 폐하께서는 황궁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직도 살아남은 팔왕 가운데는 폐하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황후가 간절하게 말했다.

황제가 얼굴에 그늘을 짓고 심황후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황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짐은 황제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소. 욕심내는 자들에게 던져주고 황후와 함께 심가촌에 내려가 살고 싶소.”

“폐하, 보위는 하늘이 낸 자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가진다고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을 굳건히 잡수십시오. 나라가 안정이 되고 황위가 튼튼해지면 그때에 소첩이 폐하를 모시고 심가촌에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심제후께 안부나 전해주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아부님께 황제폐하의 황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폐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말씀해 보시오.”

“소첩에게 내려주시기로 한 일만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심황후의 말에 혜황제의 눈 밑이 썩룩거렸다.

기분이 안 좋다던지, 상대방의 눈치를 살필 때에 황제가 드러내는 버릇이었다.

“일만금이 부족해서 그렇소? 짐이 요량하기는 일만금이면 작은 관음 보살상은 충분히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일만금을 죽 공양을 하는데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황제가 눈치를 채고 물었다.

“죽 공양에 드는 곡식이 부족하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닥이 낮습니다. 폐하의 내탕금도 충분치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첩, 그동안 폐하께서 사흘거리로 벌이시던 황궁의 연회를 줄여가면서 죽 공양에 쓸 곡식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참으로 옳은 것 같소. 너무 심려하지 마시오. 황후 혼자서 애달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요. 귀족들의 창고에서 썩어가는 곡식만 내놓아도 굶어 죽는 백성은 없을텐데 말이요. 귀족들의 창고 문을 열게 할 힘이 짐에게는 없구려. 후비들은 어떻게? 짐이 황후의 죽 공양을 도우라고 누차 일렀소만.”

“잘 돕고 있습니다.”

심황후가 대답했다.

“황후가 짐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려. 황후답지 않소. 내가 후비들을 잘 아는데, 후비들 중 누구도 자비심을 가진 자는 없소. 좋소이다. 짐이

후비들로 하여금 죽공양에 필요한 곡식을 내놓도록 하겠소.”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지 혜황제의 눈이 반짝였다.

“어떻게 하시려구요?”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겠소. 황제가 찾지 않는 후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죽은 꽃이나 마찬가지로. 황후는 아무 걱정말고 심가촌에 잘 다녀오시오.”

“그래도 소첩, 폐하께서 내려주시는 일만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관음보살님께서도 원하실 것입니다. 관음보살상을 제작하여 모시는 일보다 그 경비로 백성들의 죽공양에 쓰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알았소. 황후의 뜻에 따르리다.”

다음날 황궁호위병사 열 명이 호위하는 가운데 심황후의 꽃수레가 심가촌을 향해 출발했다. 백성들이 알아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다.

심황후가 수레에서 내려 백성들에게 말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황궁에서 죽 공양을 나올 것입니다.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소원 하나를 가지고 관음보살님을 지성으로 부르십시오. 관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심황후는 험빛고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제국 곡나 사람들은 어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네가 어렸을 때 너한테 서로 먼저 젓을 먹이겠다고 아줌나들이 말다툼을 할 정도였니라. 그것이 다 네 어머니가 뿌리고 간 인정의 씨앗이 자란 것이었다만, 그때 생각만 하면 내 가슴은 아직도 눈물에 젖는다.”

심황후가 다섯 살 때인가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씨앗을 어떻게 뿌렸는데요? 아버지.”

“너를 낳기 며칠 전이었니라. 곤대인의 선물이라면서 범룡스님이 미역을 한 뭇 가져다 주셨고, 곤대인이 쌀을 한 가마 보내왔더구나. 그때 너 말고도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기들이 스무 명 가까이 되었니라. 네 어머니가 그러더구나. 쌀과 미역을 출산을 앞둔 집에 골고루 나누어 주자고 말이니라. 내가 그걸 돌리느라 이레가 걸렸구나. 그리고 그날 밤 네가 태어났니라.”

아버지의 말에 딸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뿌려놓은 인정의 씨앗 덕분에 어린 시절 배불리 젓을 먹을 수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원량과 심황후는 이웃의 배려로 삶을 지탱해 온 셈이었다. 어떻게든 그 은혜는 갚아야한다고 가슴에 꼭꼭 새겨놓은 심황후였다.

관음보살상을 백제국 곡나에 보내 작은 암자라도 지어 안치할 수 있다면 삶이 고달플 때마다 기도를 올리면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라도 고향사람들에게 보은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향사람을 위한다고 진나라 백성을 나몰라라할 수는 없었다.

황제의 하사금 일만금이 아니더라도 관음보살상을 제작할 길은 있을 것이다.

심황후는 그렇게 믿었다.

황도에서 심가촌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심황후의 행차에 집안의 노복들은 물론 심국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황후마마, 어서 오시오소서. 먼 길에 애로가 많으셨습니다.”

“아부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소신이야 늘 잘 있습니다만 세상이 난세라 하루도 황후마마의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심국이 심황후가 오면 내어주려고 새로 꽃단장을 해놓은 방으로 안 내했다.

방으로 들어 심황후가 말했다.

“아부님, 좌정하시지요. 소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신이 어찌 황후마마의 절을 받겠습니까? 좌정하시지요. 소신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둘이 서로 절을 하겠다고 다투다가 맞절을 마친 다음이었다.

문 밖에서 사내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인 어르신, 소인 무갑입니다.”

곤무갑이었다.

심황후가 벌떡 일어서려는 몸을 겨우 앉히고 심국을 바라보았다.

“곤무갑이 엇그제 백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황후마마께서 오신 줄 알고 찾아온 모양입니다.”

“들리하시지요. 곤대인에게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심황후의 청에 심국이 밖을 향해 나직히 말했다.

“무갑이는 들어오너라.”

방으로 들어 온 곤무갑이 두 손을 모으고 넘죽 절을 했다.

“소인 곤무갑이 황후마마께 인사를 올립니다.”

“먼 길 다녀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꼭나에는 다녀오셨는지요?”

“이번에도 황후마마의 부친을 두 번 뵈고 왔습니다. 도착해서는 원대 인께 쌀가마니를 들여주기 위해 갔었고, 떠나오면서 다시 들러 원대인님을 뵈고 평안하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부지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던가요?”

“삼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원대인은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해라니요? 무슨.”

“우리 대인어르신께서 황후마마를 인신공양을 하려고 사갔다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우시다가 성공대사를 때려죽이겠다고 나서시는 걸 서운 어머니라는 분이 겨우겨우 말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꼭나 사람들은 효녀 원홍장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수십만금에 팔려가 황천에 빠져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소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소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곧 백제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는 황후마마께서 서찰이라도 한 통 써 주십시오. 무엇보다 원대인의 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혼장님의 따님이 진나라의 황후가 되셨다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지요. 아버지와 저만이 아는 얘기를 서찰에 써서 보내면 믿으시겠지요. 흥복사불사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번에 소인이 들어온 것은 흥복사에 봉안할 부처님을 뵈셔가기 위해섭니다.”

“부디 정성으로 뵈셔 주세요.”

“그럼요 여부가 있습니까?”

곤무갑이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렸다.

다음날이었다.

점분이와 응이를 데리고 심황후가 보타사를 찾아갔다.

관음전 앞 관음보살 앞에서 백팔 배를 올리는데 문득 삼 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을 쏟고 있다는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와 헤어진 이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폭포수 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무리 관음보살을 염송하면서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백팔배를 마치고나서 엎드려 있는데도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만 울거라, 흥장아. 네 눈물 때문에 관음보살님의 마음도 엷짱으 시겠구나.”

언제 왔는지 범룡대사가 나직이 말했다.

심황후가 몸을 일으켜 범룡대사를 향해 돌아섰다.

“대사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흥장이, 아니, 청이가 울 보가 다 된 모양입니다.”

“내 앞에서는 그냥 흥장으로 나서거라. 네가 심청이, 심황후가 되었다만 내게는 여전히 원흥장이니라. 들어가자. 찻물이 끓겠구나.”

범룡대사가 돌아서 주지방으로 갔다.

심황후가 따라가 무릎을 꿇고 앉자 범룡대사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편히 앉거라. 운남성의 차는 여전히 맛있구나. 천년이 넘은 차나무에서 탄 찻잎이라는데, 차 맛이 기쁨이 있구나. 너 오면 함께 마시려고

아껴 두었니라.”

“고맙습니다. 차향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쓸어가는 듯합니다.”

“올 때마다 네 얼굴이 수척해 있구나. 수척해진 만큼 수심은 깊어 가고. 살기가 그리 고달프냐?”

범룡대사가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심황후의 안색을 살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필왕들한테 휘둘려 황제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황제 때문이나? 아니면 밤마다 다른 후비들을 찾아다니는 황제를 향한 질투 때문이나?”

“아닙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심황후의 말에 범룡대사가 눈을 크게 떴다.

“백제국 사람인 네가 무엇 때문에 진나라백성을 걱정하느냐?”

“황제폐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관음보살님께는 모두가 불쌍한 중생이 아니겠습니까? 황제폐하께 불쌍한 백성이면 제게도 불쌍한 백성이고, 관음보살님께 가여운 중생이면 제게도 가여운 중생입니다.”

“흥장아, 네가 죽 공양으로 참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보타사를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네 소문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듣고 있니라. 너를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더구나. 허나 너 혼자 다하려고 욕심내지 말거라. 아무리 보살행을 실천한다고 해도 욕심은 화를 부르느니라.”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타깝다는 그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더냐? 욕심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린다. 늘 평정심을 유지하거라.”

“사실은 대사님, 제가 황제폐하께 관음보살상을 하사해 달라고 졸랐

습니다.”

“관음보살상을 말이나? 어디에 모시려고?”

“백제국 꼭나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러겠다고 하더냐?”

“예, 일만금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심가촌으로 내려오기 전에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 왜?”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진나라 백성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관음보살상을 제작할 일만금의 재물을 진나라 백성들한테 죽 공양을 하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이구나. 네가 끝까지 관음보살상에 집착을 했다면 관음보살님의 마음도 편치를 았으셨을 것이니라. 홍장아, 아무리 명칭한 사람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이 옳은 방향을 두고 그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탈이니라. 너는 옳은 방향을 택했니라. 앞으로도 쪽 그 길로 가거라.”

“예, 대사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심황후가 합장을 했다.

법륜대사가 따라 합장했다.

“홍장아, 홍복사에 모실 부처님을 친견하겠느냐? 따라오너라.”

법륜대사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심황후가 따라 일어섰다.

홍복사에 안치할 부처님은 보타사 대웅전 곁의 동굴에 모셔져 있었다. 점안까지 끝낸 온전한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며 심황후를 내려다보

았다.

어디에 모셔져 있건 부처님은 부처님이었다.

심황후가 백팔배를 시작했다.

일배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며 올렸고, 이배는 꼭나 사람들의 평안한 삶을 빌며 올렸고, 삼배는 혜황제의 건강과 진나라의 화평을 빌며 올렸다. 그렇게 백여덟 가지의 소원을 빌며 백팔배를 올리고 나자 심황후의 가슴에서 환희심이 솟아올랐다. 방금 자신이 빌었던 백여덟 가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질 것 같았다.

“홍장아, 해가 지고 땅거미가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어찌겠느냐? 심가촌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니면 요사채의 네 방에서 자고 가겠느냐?”

“오랜만에 보타사 관음전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싶습니다.”

“하면 그러거라. 기도할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법륜대사가 주지방으로 돌아갔다.

저녁공양을 마친 심황후가 목욕재계하고 관음전으로 들어가 관음보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점분이와 응이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잡자리로 돌아갔다.

“아부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꼭나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해주십시오.”

관음보살을 염송하면서 한 가지씩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문득 ‘욕심을 버리거라’하던 법륜대사의 말이 벼락처럼 온 몸을 후려쳤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이 되었던, 관음보살님이 되었던, 허다못해 뒷산의 거대한 바위가 되었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관음보살님께서 얼마나 귀찮아 하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가면서 관음보살을 뵈기가 부끄러워졌다.

그런 마음으로 심황후가 관음보살을 우러리보자 관음보살은 여전히 웃으며 ‘괜찮다. 괜찮다’하고 있었다.

‘남쪽 바닷가의 광명산에 머무시는 관음보살님은 대자대비경을 염송 하시면서 널리 중생을 일깨워주시다가도 대중이 정성을 다해 부르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한 달음에 달려와 대중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관음보살님께 소원을 비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돌린 심황후가 일백 가지, 아니 일천 가지의 소원을 빌고 있는데, 대응전 앞뜰에서 범룡대사가 도량석을 도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심황후가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범룡대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염송하며 관음보살상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있었다.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치는 목탁소리가 새벽을 일깨우고 있었다.

심황후가 진나라로 오기 전에 성공대사와 소량포로 가는 도중에 작은 암자에서 머물던 새벽이었다.

성공대사가 흥장의 잠을 깨우고는 말했다.

“흥장아, 도량석을 돌 시각이구나. 어서 일어나 소세를 하거라.”

“도량석이 무엇인데요?”

흥장이 물었다.

“도량은 모든 불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곳을 이르는데, 쉽게 말하면

절을 가리키느니라. 절이 무엇이나? 스님과 불자들은 물론 중생들이 부처가 되겠다고 수행하는 곳이 아니더냐. 도량석은 절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으로 새벽에 도량 주변을 돌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다던지, 아니면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이나 ‘도량찬’과 ‘참회계’를 염송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도량석을 돌면 어둠속에서 제 세상인 양 판을 치던 잡귀가 물러가고, 도량을 맑게 할 뿐더러, 대중들의 마음 또한 청량하게 만들어 준단다.”

심황후가 범룡대사를 따라 도량석을 돌까하다가 아직 소세전인 것을 깨닫고는 요사채로 내려가자 점분이가 함지박에 물을 담아놓고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

그동안 몇 차례 보타사행에 동행했던 점분이는 그 시각쯤이면 심황후가 관음전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맙구나. 어제밤에 좋은 꿈은 꾸었느냐?”

심황후가 웃으며 물었다.

“제 꿈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황후마마처럼 연꽃 꿈을 꾸려고 해도 잘 안 꾸어집니다.”

“네가 지성으로 바라면 연꽃이 꿈에 너를 찾아올 것이다. 늘 관음보살님을 마음 안에 되시고 살거라. 언젠가는 연꽃꿈도 꾸고 네가 간절히 바라는 자식도 얻게 될 것이다.”

“황후마마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요.”

점분이가 얼굴을 붉혔다.

점분이와 웅이가 혼례를 치른 것은 재작년이었다.

황후가 되고 첫 번째 심가촌을 찾았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점분이와

옹이의 눈빛에 서로의 마음을 짐작한 심황후가 심국에게 말하여 혼인을 시켰다.

심황후는 점분이와 옹이가 보타사에 올 때마다 관음보살 앞에서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비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공양주보살님이 아침 공양 짓는 걸 돕겠습니다. 공양주보살님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아니 왜?”

“황후마마께서 오셨는데, 변변한 찬거리가 없다고요.”

“내가 언제는 반찬을 가리더냐? 아무 걱정을 말라고 말씀드리거라.”

심황후가 점분이에게 이르고 돌아설 때였다. 저 만큼 아래에서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백팔계단 아래 광장에 말이 멈추고 누군가 계단을 급히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 새벽에 누굴까?’

심황후가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막 도량석을 마친 범룡대사가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심대인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아부님께서 오신다구요?”

“달려오는 소리와 멈추면서 우는 울음소리가 심대인의 말이더구나.”

어쩐지 범룡대사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다.

단숨에 백팔계단을 올라 온 심국이 다급하게 말했다.

“황후마마, 황궁에서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11. 관음보살이시여, 인연의 땅으로 가소서

“황제폐하는 어찌 되셨습니까? 무사하시답니까?”

심황후가 털썩 주저앉으며 큰 소리로 물었다.

심국이 심황후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아뢰었다.

“일어나십시오. 범룡스님의 방으로 드십시오. 여기에 서서 아뢴 말씀이 아닙니다.”

심국의 말에 범룡대사가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하며 앞장을 섰다.

차붙이 끊자 범룡대사가 차를 석 잔 내놓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심국이 입을 열었다.

“황제폐하는 무시하십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사마씨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싸움놀음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황제폐하께 위해를 가하다니요?”

“허수아빌망정 황제의 자리는 막강합니다. 무제의 숙부, 그러

니까 혜황제의 조부뻘이 되는 사마륜이 반란을 일으켜 혜황제를 별궁에 유폐를 시키고 스스로 황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부님, 저는 지금 바로 황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심약하신 황제폐하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저를 얼마나 찾으셨을까요? 지금 황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심황후가 서둘렀다.

“황후마마, 아니 됩니다. 황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황궁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황후마마는 더구나 백제국 출신입니다. 진나라 사람에게서는 이국인입니다. 반란의 무리들에게 참변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소신이 황도에 사람을 보내 정확한 정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황궁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습니다.”

심국이 간절하게 말렸지만, 심황후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아부님,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건 황제폐하는 제 한 분뿐인 지아버십니다. 지아버가 곤궁에 처했다는데, 지어미가 어찌 모른 채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 길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심황후가 벌떡 몸을 일으키자 법룡대사가 큰 소리로 나무랐다.

“홍장아,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앉지 못하겠느냐?”

심황후가 흠칫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 가면 네 목숨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네가 그 아수라장에서 죽고나면 나하고의 약조는 어찌할 셈이나? 천하의 뛰어난 석공들로 하여금 삼천 탑을 조성하여 이웃의 여러 나라에 안치하고, 오십삼불과 오백성중과 십육나한상을 조성하여 노도 없고 돛도 없는 배에 실어 인연 있는 곳으로 흘러보내 중생의 삶에 위안이 되게 하자고 철썩같이 약조

하지 않았느냐? 네가 황후가 되어 황도로 갔다가 처음으로 심가촌에 내려왔을 때 운남성의 천년묵은 차나무에서 탄 차잎을 우려 낸 차를 마시면서 보타사의 관음보살님 앞에서 약조를 하지 않았느냐? 그 약조는 어찌할 셈이나? 나는 너와의 약조를 믿고 진나라는 물론 백제며 신라국에 서까지 이름난 석공을 모아 이미 석탑조성에 착수하였으며, 오십삼불과 오백성중과 십육나한상도 절반이나 조성되고 있느니라.”

법룡대사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송구합니다, 대사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니라. 네 것이라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네 목숨이니라.”

법룡대사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들자 심국이 나섰다.

“가지 말거라, 홍장아. 너는 진나라의 황후지만, 내 딸이기도 하다. 너도 알다시피 내 재산은 모두가 무남독녀 외딸인 네가 주인이다. 진나라는 어차피 희망이 없느니라. 여러 나라를 합병하여 한 나라로 통일하였지만, 황제건 귀족이건 백성은 나몰라하고 자신들의 사치에만 몰두했느니라. 어디 그 뿐이더냐? 팔왕이라는 사마씨족속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느라 정사는 돌보지 않았다. 황제 또한 그런 사마씨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라. 네가 연연할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니라. 황도는 잊고 나랑 함께 네가 대원으로 삼은 불사에 정진하면서 살자.”

“아닙니다, 아부님. 저는 가이편합니다. 황제폐하께서 저를 에타게 찾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법룡대사님과의 약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 일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네 대원은 이루

어주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부님. 후생에는 온전한 아부님의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심황후가 심국과 범룡대사에게 큰 절로 작별을 고하고 보타사를 떠나왔다.

가는 길에는 사흘이 걸렸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이틀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황후 일행이 들어서는데도 황궁문을 지키던 수비병 가운데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황궁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다. 환관이며 궁녀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어찌다 눈에 띄는 벼슬아치들은 종종 걸음을 쳤다.

황제전으로 가는 길에 혜황제를 모시던 시종 하나를 만났다. 성이 양씨였다.

“황제폐하는 어디에 계신가요?”

심황후가 묻자 양시종이 화들짝 놀라 심황후를 구석 쪽으로 끌었다.

“아니, 황후마마, 멀리 도망을 쳐도 모자랄 판에 사지로 돌아오시다니요? 어서 황궁 밖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새 황제가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칫 독사 같은 호위병사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으십니다.”

양시종이 주위를 흘끔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 목숨은 걱정하지 말고 폐하가 계신 곳으로 안내하십시오.”

심황후가 엄한 표정을 짓자 양시종이 마지못한 듯 앞장을 섰다.

혜황제는 황궁에서도 제일 구석진 음침한 별궁에 갇혀 있었다.

“저깁니다.”

양시종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삼십육계 줄행랑을 쳤다.

심황후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별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출입문을 지키던 수비병 두 명이 앞을 막아섰다.

“내가 심황후니라. 폐하와 함께 있겠다.”

심황후의 말에 수병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길을 터주면서 말했다.

“들여보내주는 합니다만, 한번 들어가시면 다시는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다. 황제폐하와 함께가 아니라면 다시 나올 일도 없을 것이니라.”

심황후가 들어가자 혜황제가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황후, 여긴 어인 일이요?”

“폐하께서 계신 곳이기에 왔습니다.”

“괜한 짓을 했구려. 사마룬 대부가 황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짐이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오?”

“소첩이 어찌 폐하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황후가 황궁에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소. 관음보살님의 도음이라고 믿었소. 헌데, 죽을 자리를 찾아온단 말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도망을 치시오.”

“도망을 칠수 있다면 소첩이 왔겠습니까? 황궁에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한 시라도 빨리 폐하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밖에 없었습니

다.”

“아니 되오. 돌아가시오. 언제 사마륵의 부하에게 끌려 나가 목이 잘릴지 모르오. 짐이 비록 황제의 자리에 있었지만, 저들한테 해꼬지를 한 적이 없는데, 짐에게 이런 치욕을 안겨주다니, 더구나 황후까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니, 짐은 참으로 못한 사내요. 어서 물러가시오. 짐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심가촌으로 돌아가란 말이요.”

혜황제가 울먹였다.

그런 혜황제의 몸에서는 피 냄새가 났다. 자신이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화살을 맞은 것도 아닌데 짙은 피 냄새가 났다.

심황후가 그제서야 황제의 몸을 찬찬히 살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 황제의 용포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폐하, 용포에 어인 핏자국입니까? 혹시 어디 다치셨습니까?”

“내가 다친 것이 아니요. 나를 보호하려던 시종 혜소가 칼을 맞고 흘린 피요.”

“벗어 주십시오. 소첩이 깨끗이 빨아오겠습니다.”

“아니되오. 짐을 끝까지 보호하려던 충신의 피요. 어찌 함부로 빨아 흔적을 없앨 수가 있겠소.”

혜황제의 눈에서 빛살 한 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세 해를 함께 지냈지만 황제의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황제폐하,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소첩이 알기로 팔왕 사마씨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마륵이 사마경과 공모하여 가남풍을 죽이고 이제는 폐하를 별궁에 유폐까지 하였습니다만, 또 다

른 사마씨가 사마륵의 횡포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싸움은 벌써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요. 마음을 굳고 편하게 가지십시오.”

심황후의 말에 혜황제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왔다.

다행이 죽이기로 작정하지는 않았는지, 별궁에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수라가 들어왔다.

수라상을 들고 온 궁녀에게 황제가 물었다.

“바깥 사정은 어떠하나? 나라는 평안하나?”

가만히 심황후의 안색을 살피던 궁녀가 대답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새 황제가 모든 권력을 쥐고 황실을 쥐락펴락하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귀족들에게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떤 귀족은 재물을 몽땅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느니라. 다른 소식은 없느냐?”

“귀족들이며 벼슬아치들이 끼리끼리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면 폐하의 동생이신 장시왕께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애가? 역시 핏줄 밖에 없구나.”

별궁에 유폐되기 전부터 심황후에게 유난히 호의적이었던 궁녀는 시킬꼴한 소문까지 잘 물어다 나불나불 풀어 놓았다. 별궁 밖과의 통로는 수라상을 들고 오는 궁녀가 유일했다.

그렇게 두어 달 지났을 때였다.

황제전 쪽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한참동안 계속되더니, 거친 발소리가 별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황후, 저 병풍 뒤로 숨으시오. 저 놈들이 짐을 죽이러 오는 모양이요.

어쩌면 저 놈들은 황후가 나와 함께 있는 줄은 모를 것이요. 어서 숨으시오. 내가 죽고 황후 혼자 살아남거든 반듯이 백제국으로 돌아가시오. 여기 진나라는 황후처럼 심성고운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요. 알겠소? 짐의 말을 허투로 듣지 마시오. 어서 숨으시오.”

혜황제가 심황후의 손을 잡고 끌어다가 병풍 뒤에 숨기려고 설쳤다.

그 손을 가만히 빼내면서 심황후가 말했다.

“아닙니다. 소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폐하가 저들의 칼에 돌아가신다면 소첩도 저들의 칼에 죽겠습니다. 소첩 혼자 살겠다고 병풍 뒤로 숨지는 않겠습니다.”

둘이 ‘숨거라, 못 숨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별궁의 문이 벌럭 열리면서 갑옷 차림의 사내 세 명이 들어닥쳤다.

황제가 그들을 올려다보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장사왕이 무슨 일이나? 성도왕과 하간왕도 함께 오셨구려. 황궁에 다시 변란이라도 일어난 것이요?”

세 사내는 사마씨 가운데 팔왕이라 불리는 사마애와 사마영, 그리고 사마용이었다.

“변란은 변란입니다, 폐하. 방금 역적 사마륜을 죽였습니다. 폐하, 어서 대전으로 납시시오. 황위는 이제 폐하의 것입니다. 진나라의 백성은 모두 폐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주동을 하였소?”

“사마경전하이십니다. 폐하.”

혜황제의 친동생인 사마애가 대답했다.

“제왕이 주동했다는 말이나?”

황제의 미간이 저절로 일그러졌다.

제왕 사마경이라면 사마륜보다 욕심이 많은 자였다.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세 사마씨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혜황제의 예상은 틀림없었다.

일단 사마륜을 몰아낸 사마경은 사마륜의 재산을 몽땅 몰수하여 자신이 차지하여 버렸다.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세 명의 사마씨들한테는 쌀 한 가마니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황제의 칙서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벼슬을 팔아 치부를 하였으며, 혜황제에게 아들이 없음을 이유로 황태자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였다.

다른 사마씨들이 사마경의 독단을 두고 불리가 없었다.

“죽 썬서 개준다고 하더니, 사마경만 좋은 일을 시킬 순 없지 않은가?”

“맞소. 사마경은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하여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였소.”

“최소한 황태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와 상의를 해야 했소. 황태자를 혼자 결정한 걸로 사마경은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소.”

“사마경을 그대로 둘 수가 없소.”

“사마경을 처단합시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사마경 썬 못 잡을 까닭이 없소.”

결국 사마애와 사마영, 그리고 사마용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경을 죽였다.

사마씨들이 하나하나 죽어간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심황후는

관음보살'만 찾았다. 혜황제가 황위를 되찾기는 했지만, 실권은 없었다. 황제의 권위가 없으니, 황후의 권위도 있을 리가 없었다.

황도거리에 나가 죽 공양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황궁 밖의 출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사흘거리로 종산에 올라 절이며 암자를 찾아 다녔다. 부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장을 하면 코끝에서 진동하던 피 냄새도 사라졌다.

황제는 틈만 나면 심황후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오. 미안하오' 하면서 어쩔 줄 몰라했다. 심황후가 바라는 것이 죽공양을 할 수 있는 양식인데, 그걸 내 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다. 그래도 황후인데, 귀족이며 벼슬아치의 부인들이 황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참 답했다.

황제에게는 벼슬아치를 임명할 권한도 없었고, 부릴래야 부릴 군사도 없었다. 유일하게 황제의 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황실 호위군사 오십여 명인데, 그들조차도 황제의 편은 아니었다. 호위군사라는 이름으로 녹봉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지난번 사마륜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처럼 황궁에 변란이 생기면 제 목숨 살자고 먼저 도망칠 놈들뿐이었다.

자신의 그런 한심한 처지에 혜황제는 심황후 앞에서 낫을 들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혜황제가 말했다.

“황후, 차라리 심가촌에 내려가 있는 것이 어떻겠소? 황후를 볼 낫이 없어서 그러오.”

“황제폐하, 소첩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지어미가 지아비를 두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심황후가 고집을 부렸다.

“정 안 되겠소? 짐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소? 황후 걱정만 않고 살아도 내가 숨을 쉴 수 있겠소.”

“폐하의 소첩을 아끼시는 마음은 뼈에 새기고 피에 새기겠습니다만, 소첩더러 황궁을 떠나라는 말씀은 말아주십시오. 소첩은 지금까지처럼 폐하와 진나라를 위하여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황후는 정말 못 말릴 사람이구려. 진나라 여인 같았으면 짐이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진즉에 떠났을 것이요.”

“폐하, 황궁이 답답하시면 소첩이랑 종산에도 종종 오르시고, 소첩과 함께 심가촌에 내려가 며칠 머무시다 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산은 몰라도 심가촌까지는 가기 싫소. 심제후를 볼 낫이 없소.”

고개를 내젓는 혜황제는 많이 아위어 있었다.

‘불쌍한 사람, 대국의 황제인들 무엇하는가? 꼭나 촌구석의 필부만도 못한 삶인 걸.’

심황후는 허수아비 같은 황제의 처지가 안타깝고 불쌍하였다.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심황후가 종산의 작은 암자 보리암에 들러 백팔배를 드리고 황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덮고 있는 으스스한 길을 지날 때였다.

예닐곱 명의 거친 사내들이 숲속에서 뛰어나와 가마 앞을 가로 막았다.

“가마의 화려함으로 보아 황궁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구나.”

우두머리인 듯 한 사내의 큰 소리에 심황후가 가마문을 열고 기웃이 내다보았다.

“그렇소, 나는 황궁의 황후요. 헌데 그대들은 누구신지요?”

“종산의 주인이요. 목숨을 살리고 싶거든 지니고 있는 패물을 다 내놓으시오.”

“나는 몸에 패물을 지니고 다니지 않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소.”

심황후가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것이 우두머리 사내를 화나게 한 모양이었다.

“뭐야? 명색이 황후라는 여자가 패물이 없다고? 패물만 내놓으면 좋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애들아, 맛을 보여주거라.”

우두머리 사내가 소리를 지르자 부하들이 칼을 겨누며 다가왔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또 다른 사내들이 열 명 남짓 후다닥 뛰어 나와 칼로 도둑들의 목을 겨누었다.

처음에는 은밀히 호위를 하고 있던 황궁호위병들인 줄 알았다.

‘역시 황궁을 지키는 호위병들의 무예는 뛰어나구나.’

심황후가 생각할 때였다.

도둑들과 호위병들 사이에 칼싸움이 벌어졌다.

그대로 두면 최소한 피를 보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판이었다.

심황후가 고함을 질렀다.

“그만, 그만 칼을 멈추시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던지 이내 칼싸움이 멈추었다.

심황후가 말했다.

“무슨 연유로 도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보아하니, 모두가 기운케 나 쓸 것 같은데 도둑질이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은 있을 것이요. 어찌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아까운 삶을 낭비한단 말이요.”

심황후의 말에 우두머리 사내가 여전히 불통스레 대꾸했다.

“제 한 몸이라면 무슨 짓을 하던 먹고 살지요. 잡히면 단 칼에 목이 달아나는 도둑이 되었겠습니까? 노부모에 자식이 일곱이요. 어떻게든 먹여살려야 할 것이 아니요. 그전에는 심황후 마마께서 날마다 죽이라도 꿇여 주시어 식구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습시다만, 죽공양이 끊어진지 일 년 만에 자식놈 셋이 부항 들어 죽었소.”

우두머리 사내가 비직비직 울음을 쏟아냈다.

아직도 칼끝을 도둑들의 목을 겨냥하고 있던 사내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이놈아, 이분이 바로 죽 공양으로 네 가족을 살리신 심황후마마시니라.”

“예? 이분이 심황후마마시라구요? 아이구, 황후마마, 몰라 뵈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황후마마께서 내려주시는 죽을 받아 먹은 적이 없어 몰라 뵈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꾸벅꾸벅 허리를 조아리자 다른 도둑들도 따라서 꾸벅거렸다.

심황후가 말했다.

“오죽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도둑이 되었겠소. 자식 셋이 죽었다하니, 참으로 안타깝소. 황제폐하께서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보살피어야

는데, 지금 황제폐하께서는 그럴 힘이 없소. 종산에서 도둑질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여기 있는 일곱 명이 전부입니다.”

“하면 내가 살 방도를 알려줄 것이니 따르겠소?”

순간 도둑들이 살 방도를 찾아낸 심황후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관음보살님이신 황후마마의 말씀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보타산을 아시오?”

“절강성 남쪽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긴 회계국이 아닙니까?”

“맞소. 보타산 아래에 심가촌이라고 심씨 집성촌이 있소. 거기를 찾아가 내가 보냈다고 하면 그대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살 방도가 생길 것이요.”

“정말이십니까?”

“회계국 심가촌의 심대인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오. 그대들이 살 방도를 틀림없이 찾아주실 것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목숨을 거는 도둑노릇은 당장에 그만 두겠습니다.”

말끝에 우두머리 사내가 호위병사를 올려다보았다.

호위병사 중에서도 상급자인 듯 한 사내가 칼을 거두자 나머지 병사들도 칼을 거두었다.

우두머리 사내가 호위병사에게 물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황후마마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시지 않느냐? 돌아가거라. 황후마마 말씀대로 절강성 보타산 아래 심가촌으로 가거라.”

“예, 예. 고맙습니다. 황후마마, 만수무강 하십시오.”

도둑 사내들이 몸을 일으켜 후다닥 도망을 쳤다.

“고맙소. 그대들이 아니었으면 자칫 봉변을 당할뻔 하였구려.”

심황후의 말에 호위병사 가운데 우두머리 사내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황후마마, 저희들은 황궁호위병사가 아닙니다.”

“하면?”

“전하께서 보내신 호위무사입니다.”

“아부님께서? 언제부터 나를 호위하고 있었느냐?”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황후마마께서 황궁에 드신지 얼마 후에 바로 상단의 호위무사 가운데 가장 무예에 뛰어난 자들만 일백 명을 골라 절반은 황후마마께서 나들이를 하실 때 호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황궁의 요소요소에서 황후마마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부님이 그러셨구나. 이 딸이 걱정이 되어 나도 모르게 그러셨구나.”

심황후의 눈 밑이 뜨뜻해지는데, 사내가 말을 이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궁녀들 중에서도 대인어르신께서 보낸 여자들이 스무 명이 넘습니다. 각 전각에 박혀 궁 안의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게 황후마마를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수라간 궁녀를 통하여 전하께서는 황후마마께서 무사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라간 궁녀라면 별궁 밖의 소식을 날마다 물어다 주던 연심이라는 궁녀가 틀림없었다.

“헌데 나는 어찌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황후마마께서는 비밀을 지키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헌데, 오늘은 어찌 정체를 드러냈느냐?”

“황후마마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황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러 나라에 삼천 탑을 조성하는 일은 뛰어난 석공 일백 명을 보내 차질 없이 완성하였으며, 오십삼불과 오백성종과 십육나한상은 백제국 감로사에 봉안을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고마우신 일이구나. 참으로 고마우신 일이구나. 걱정만 끼쳐드리는 이 못난 딸의 대원을 그렇게 이루어주시는구나.”

문득 심황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사내가 말을 이었다.

“또한 법륜대사께서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법륜대사께서?”

“예, 황후마마의 가장 큰 대원이신 관음보살상의 조성이 점안만 남기고 완성되었으니, 보타사에 한번 다녀가셨으면 하셨습니다. 법륜대사께서 점안을 해도 되지만, 관음보살님만은 황후마마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마. 그래야겠구나. 나의 대원을 담은 관음보살님이시니라. 내가 직접 점안을 하고말고, 황제폐하께 말씀 올리고 내일 바로 출발해야겠구나.”

심황후답지 않게 서두르고 나왔다.

“하오면 저희들은 황후마마를 모시고 갈 만반의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백성들이 번거로워하면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황후마마의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긴 4년 동안이나 나를 지켜주었다는데도 까맣게 모를 정도로 빈틈이 없는 너희들이라면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그날 밤 황후전을 찾은 혜황제한테 심황후가 말했다.

“폐하, 소첩 내일은 심가촌에 내려가 볼까 합니다.”

“심가촌에는 무슨 일이요?”

혜황제가 물었다.

“소첩의 대원인 관음보살상이 완성되어 점안만 하면 된다합니다. 소첩이 내려가 점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녀오시구려. 될 수 있으면 오래 머물다 오시구려.”

“아닙니다. 점안식만 끝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심황후가 혜황제 앞에 허리를 조아렸다.

다음날 이었다.

황궁호위병사 열 명의 호위를 받으며 심황후가 황도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체격이 우람한 사내 하나가 가마 앞을 가로 막으며 넘죽 일으켰다.

무슨 일인가 싶어 심황후가 가마 문을 들추고 보니, 낮이 익은 사내였다.

“아니, 너는 주치가 아니냐?”

“예, 소인 주치입니다. 황후마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천하의 불량배 주치입니다.”

주치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악의가 없었다.

“어떻게 살았느냐?”

심황후가 온화한 낯빛으로 물었다.

“황산에 들어가 무에도 익히고, 고승을 만나 불목하니 노릇을 하면서 부처님과도 친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주처가 말끝에 싱긋 웃었다.

그 웃음에 기분이 좋아진 심황후가 따라서 빙그레 웃었다.

“헌데, 여기는 무슨 일이냐?”

“고승께서 하산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맘 때에 황도의 큰 길목을 지키다보면 은인을 만날 것이라며 그 은인에게 소인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황후마마야말로 소인의 은인이십니다. 소인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기가 어디건 소인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절강성 보타산 아래 심가촌으로 가고 있는데, 따르겠느냐?”

“따르겠습니다.”

“하면 따라오너라.”

심황후가 아무런 작정도 없이 주처를 데리고 심가촌에 도착하자 웅이가 먼저 알아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니, 네 놈은 천하의 불한당 주처란 놈이 아니더냐? 네 놈이 여긴 무슨 일이냐?”

웅이의 호통에 주철이 흐흐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흐흐, 웅이 형. 너무 그러지 말어. 황후마마를 수행하고 온 몸이구먼.”

그렇지 않느냐는 눈빛으로 주처가 심황후를 돌아보았다.

“웅아, 주처가 개과천선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구나. 피를 나눈 형

제처럼 친하게 지내도록하거라.”

“예, 황후마마. 분부대로 주처 놈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웅이 주처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모습을 함께 웃으며 바라보던 심황후가 물었다.

“아부님은 어디 계시느냐?”

“오늘 황후마마께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보타사에 오르셨습니다. 황후마마께서 도착하시면 소인더러 바로 되시고 오라하셨습니다. 법륜대사께서 오늘 자정이 점안식을 거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각이라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이 아니면 한 달은 기다려야 좋은 날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알겠구나. 바로 보타사로 가자꾸나.”

심황후가 서두른다고 서둘렀어도, 보타사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다 되어 있었다. 심가촌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지, 계단 아래에서도 우렁찬 염불소리가 들렸다. 숨이 가쁘지도 모르고 백팔계단을 오른 심황후가 관음보살 앞으로 다가갔다. 심황후를 알아본 대중들이 길을 터 주었다.

“나무관세음보살. 어서 오십시오, 황후마마. 때맞추어 오셨습니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황후마마께서 점안만 하시면 됩니다.”

법륜대사가 먹물을 찍은 붓을 넘겨주었다.

“점안하십시오.”

“예, 법륜대사님.”

심황후가 먹물 묻힌 붓을 받아들고 눈을 감았다. 잠시 친견한 관음보

살님을 머리 속 가득히 떠올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관음보살님이시여, 고통 받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 심황후의 뇌리에는 눈 먼 아버지도, 허수아비 같은 황제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건 심가촌에 오면서 보았던 험 벗고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의 모습이였다.

심황후가 눈을 뜨고 관음보살의 두 눈에 점안하였다.

대중들의 염불소리와 스님들이 치는 목탁소리가 보타산 능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심황후가 눈물을 비 오듯 쏟으며 백팔 배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대중 가운데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관음보살님이요. 관음보살님께서 보타산 정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오.”

그 소리에 심황후는 물론 범룡대사와 심국, 그리고 대중들의 눈길이 일제히 하늘을 향했다.

거기에 관음보살이 있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관음보살이 연꽃 같은 웃음을 띠고 내려다 보고 있었다.

“관음보살님. 관음보살님.”

대중들이 엎드려 꾸벅꾸벅 절하며 울부짖었다.

보타산 너머에서 붉은 빛줄기가 솟아오르면서 점안식이 끝났다.

“황후마마, 이제 관음보살님을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주지방에서 차를 나누면서 범룡대사가 물었다.

“처음에는 백제국에 모시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광명과 꼭나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그리 하려고 했었습니다.”

심황후의 말에 심국이 물었다.

“관음보살님을 백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렵니까?”

“관음보살님께서 인연을 찾아 머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심황후의 말에 범룡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심국은 심황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허나, 황후마마께서 어디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피실 수가 있습니다.”

심국이 그렇지 않느냐는 눈빛으로 범룡대사를 바라보았다.

“심대인, 인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옷깃을 스치는 인연을 맺기 위해서도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억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범룡대사가 심국을 향해 물었다.

심국이 말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황후마마는 아시겠습니까?”

범룡대사가 말머리를 심황후에게 돌렸다.

“종산 보리암의 고승께 들었습니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고 높은 옥산에 옥우물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다지요. 그 선녀가 옷을 벗어 걸쳐놓는 한 아름의 옥바위가 있는데, 옷깃에 스친 옥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를 한 겁이라고 한답니다.”

“하니, 억겁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소승은 인연이 있는 곳으로 관음보살님을 보내드리자는 황후마마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니다. 황후마마, 가슴에 품으신 방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법륜대사가 심황후를 바라보았다.

“지난번에 오십삼불과 오백성중과 십육나한상을 보낼 때처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심황후의 말에 심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노도 없고, 똯도 없고, 뱃사공도 없는 조각배에 실어 훌훌단신 보내 시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부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시다가 인연 있는 곳에 다다르시면 인연 있는 사람이 거두어 인연 있는 땅에 뗏되지 않겠습니까?”

심황후의 뜻이 단호하다는 걸 알고 심국이 허리를 조아렸다.

“황후마마의 뜻대로 하시지요.”

다음날이었다.

심황후를 비롯한 법륜대사와 심국, 그리고 심가촌 사람들이 관음보살을 조각배에 실어 멀리 보내드리기 위하여 모였다.

심황후가 비단보자기에 싼 관음보살상을 가슴에 안고 배위로 올라가 배 한 가운데 좌정시키고 배에서 내리는데 주철이 넘죽 었드렸다.

“황후마마, 소인이 관음보살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리 연약하신 관음보살님을 어찌 혼자 보낸단 말입니까? 소인이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치가 울면서 애원했다.

심황후가 주치를 달랬다.

“철아, 네 뜻이 가륙하기는 하다면, 관음보살님은 혼자 가셔야 한다.”

“이제 서풍이 거세지는 계절입니다. 날마다 번개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철입니다. 모진 비바람과 거친 파도를 어찌 견디신단 말입니까? 저를 관음보살님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주치가 울면서 매달리자 웅이 나섰다.

“이 멍청한 놈아 저 작은 배 안에 네가 탈 자리가 어딴느냐? 네가 저 배에 탄다면 채 포구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웅이의 말에 비로소 주치가 울음을 거두었다.

법륜대사가 심황후에게 말했다.

“관음보살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백팔 배로 관음보살님을 보내드리십시오.”

“예, 대사님. 어찌 백팔배 뿐이겠습니까? 삼천 배를 올리지요.”

심황후의 말에 모든 대중들이 백팔배를 올리기 시작했다. 일 배를 올리고 눈을 들어보면 관음보살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이 배를 올리고 눈을 들어 봐도 관음보살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

그러나 심황후는 관음보살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꼬박 한 나절이 걸려 삼천 배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의 점으로 가물 가물하던 배가 보이지 않았다.

그 쪽을 향해 심황후가 중얼거렸다.

“관음보살님, 꼭 다시 뱃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승이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다시 뱃기를 원하옵니다.”

12. 참 인연의 아름다운 재회

“황후마마, 기쁜 소식입니다.”

차나 한 잔 마시자는 심황후의 말에 혼자 황후전에 남겨진 수리간 궁녀 연심이 나즉히 고했다.

“기쁜 소식이라니?”

심황후가 벌써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황후마마께서 떠나보내신 관음보살님께서 백제국 낙안포에 무사히 안착하셨다 합니다.”

“낙안포라구? 저긴 성덕이가 사는 곳인데, 관음보살님께서 성덕이를 찾아가셨구나.”

심황후의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맞습니다. 성덕이라는 처녀가 관음보살님을 모셨다 합니다. 처음에는 낙안포에 당도한 배를 보고 포구수비병이 수상한 배라고 붙잡으려고 하자 멀리 도망갔다가 성덕처녀가 혼자 포구 옆 바닷가에 앉아있는

데, 배가 저절로 다가오더랍니다. 성덕처

녀가 보니 비단보자기 안에서 한 줄기 광채가 흘러나와 이상하여 펼쳐보니, 어린 아기만한 관음보살상이 있더랍니다. 성덕처녀가 관음보살님을 등에 업고 모실 곳을 찾다가 태어난 고향인 옥과를 향해 밤길을 걸어갔답니다.”

“아마도 성덕이가 자기 마음으로 걷는 걸음이 아니었을 것이니라. 관음보살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것이니라.”

심황후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궁녀 연심이 신이 나서 조잘거렸다.

“얼마를 걸어갔을까? 길가 개울 옆에 아담한 정자가 있어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대취정이라는 현판이 걸린 두 번째 정자가 나오는데, 잠시 쉬고 있자, 한 노파가 지나가다가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내어주더랍니다. 배가 고평 김에 달게 먹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들어보니, 노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아마도 관음보살님의 현신이셨을 것이다.”

심황후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심이 물었다.

“관음보살님이요?”

“그래, 관음보살님은 어떤 모습으로건 현신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 다음은 어찌 되었느냐?”

“주먹밥의 힘으로 하루를 걸어 또 한 정자에 도착하여 쉬게 되었는데, 현판이 샘정이라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정자 옆 바위에서 맑은 샘물이 솟더랍니다. 그 샘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자 허기가 사라지면서 힘이 솟더랍니다. 그런 식으로 네 번째는 미타정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꿈에 뵈었고, 다섯 번째는 울목정에서 쉬며 주변에 떨어져 있는 밤

몇 톨로 허기를 달래고, 여섯 번째는 부처님께서 쉬어 가셨다는 불후정에서, 일곱 번째는 흥복정에서, 여덟 번째는 현정에서, 아홉 번째는 삽정에서 쉬다가 드디어 열 번째의 정자를 만났습니다. 열 번째 정자에는 구일정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는데, 성덕처녀가 생각하기를 '이 정자가 구일정인 것은 날더러 아흐레 동안 머물다 가라는 뜻이었구나' 짐작고는 날마다 관음보살님께 백팔 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흐레 동안 머물렀습니다. 한데 성덕처녀가 관음보살을 등에 업고 '어디로 갈거나. 동쪽으로 가면 화순 땅의 백아산이 나오고, 서쪽으로 가면 담양 땅의 추월산이 나오고, 이대로 쭉 가면 내 텃자리가 있는 옥과 땅 설산이 나오구나. 하나같이 명산이니, 참으로 난감하구나' 한탄하며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성덕처녀가 화순의 백아산으로 갈 요량으로 관음보살님을 업고 구일정을 출발하였더랍니다.

“존엄하신 관음보살님을 모시는데, 어찌 그런 고난이 없었겠느냐? 허나 성덕이의 신심이라면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니라.”

“아닙니다, 황후마마. 등에 업은 관음보살님이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고 하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합니다. 성덕처녀가 운교마을 앞의 운교정에서 열한 번 쯤 쉬고 가파른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맞닿을 듯 높은 고개라하여 하늘재라는 이름의 고개였다 합니다.”

“하늘재라면 나도 들은 기억이 있구나. 아마 성덕이가 다섯 살 때 대흥암에서 하룻밤을 함께 새울 때였을 것이니라. 성덕이 나한테 하늘재너머 옥과 땅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는구나.”

“황후마마의 말씀이 옳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성덕처녀가 관음보살님을 업고 하늘재를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깃털처럼 가볍던 관음보살

님이 점점 무거워지시더니, 어느 순간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무게가 성덕처녀를 주저앉게 만들었답니다.”

“옳지, 그곳이구나. 관음보살님께서 좌정하실 도량이 그곳이었구나.”
심황후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다.

“성덕처녀 역시 관음보살님을 모실 인연의 땅이 그 곳인 줄 눈치채고 주위를 살펴보니,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는데, 집을 지을만한 터전의 평평한 땅이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성덕처녀가 맨손으로 나무를 꺾어 음막을 지어 아쉬운 대로 관음보살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도량을 창건할 대원을 세우고 나무 열매 풀뿌리를 캐 먹으며 백일 동안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이 나무를 와서는 성덕처녀를 따라 제 각기의 소원을 빌며 기도를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비는 소원마다 안 이루어지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아이가 생기고, 병자가 있는 집에서는 병자의 병이 낫고, 멀리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빌면 떠나갔던 자식이 거짓말처럼 돌아오더랍니다. 성덕산 음막의 관음보살님께 빌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이 꼭나땅을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저마다 소원을 지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지요.”

“성덕산이라고 했느냐?”

심황후가 물었다.

“예, 황후마마. 성덕처녀가 관음보살님을 뵈시고 와 터를 닦았다하여 사람들이 이름도 없던 산에 성덕이라는 이름을 붙여 성덕산이라고 불렀다합니다.”

“꼭나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답지 아니하나? 참으로 아름다운지고.”

심황후가 고개를 끄덕이자 연심이 말을 이었다.

“지금은 관음사창건불사가 한창이라 합니다.”

“관음사?”

“예. 흥복사의 성공대사께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셔서 관음보살님을 모시는 도량이니, 관음사라고 하자하여 그리 부르기로 하였답니다. 성덕산 주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불사경비를 부담하였고, 특히 곡나 오지마을의 송부자라는 사람이 전 재산을 바쳐 불사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께서 망망대해로 떠나신지 딱 2년이 걸렸구나. 성덕산 관음사에 좌정하시기까지 두 해가 걸리셨구나. 망망대해를 일 년하고도 열한 달을 표류하시다가 성덕이의 등에 업혀 한 달을 헤매시다가 성덕산 길지를 찾아 안주하셨구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관음보살님을 뵈고 싶구나, 연심아.”

심황후가 무심코 마음을 털어놓았다.

순간 연심이의 눈이 반짝 빛을 냈다.

“황후마마,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백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뉘라구?”

심황후가 되묻자 연심이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황후마마의 결심만 서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궁 밖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하의 뜻이십니다.”

“아부님의 뜻이라고?”

“예, 마마. 벌써 일곱 해 전이던가요? 상단 호위무시들과 회계국 시녀

들 가운데 영리하고 눈치 빠른 아이들을 골라 십만금을 들여 황궁에 들이면서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궁에 변란이 생겨 황후마마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거들랑 지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황후마마를 심가촌으로 모시라고 말입니다.”

“허나, 폐하를 두고는 내가 황궁을 떠날 수가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것은 안 될 일이다.”

심황후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졌다.

연심으로부터 관음보살상이 성덕산 관음사에 잘 안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계절은 바야흐로 가을이었다. 사람들의 곤궁한 삶과는 달리 곱게 물든 단풍들이 알록달록 곱게 곱게 뿔을 내다가 어느 순간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황제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짹짹이 되어 천하를 주무르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칼을 뽑아들던 사마씨들이 화합을 다짐하는 연회를 연다는 전갈이 황제전에도 왔다.

“사마영 승상의 자비로움으로 열리는 연회입니다. 황제폐하와 황후마마께서도 꼭 참석하시라는 전언이었습니다.”

심부름을 온 승상 사마영의 시종이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말했다.

“알겠다, 저녁에는 승상의 은혜로 사슴고기를 포식하겠구나.”

해황제가 걸으로만 기뻐하며 심황후에게 눈길을 주었다.

해가 지자 연회가 시작되었다.

황제의 오른 쪽에는 사마영과 그 부인 및 자식들이 앉고, 황제의 왼

쪽에는 혜황제의 막내동생인 예장왕 사마치와 동해왕 사마월이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휘황찬란한 등불 아래에서 무희들의 춤사위가 흐늘어질 때였다.

혜황제가 큼지막한 인절미 하나를 들고 말했다.

“짐이 떡을 좋아하는 줄은 어찌 알고 푸짐하게도 놓았구나.”

“폐하, 한 입에 드시기에는 너무 큼니다. 절반으로 나누어 드시지요.”

심황후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다.

“아니요. 이까짓 것은 문제없소. 보시오, 짐의 입이 얼마나 큰지 말아요.”

혜황제가 주먹만한 떡을 억지로 입에 우겨넣고 우물거릴 때였다. 황제 왼쪽에서 사마월과 사마치가 칼을 빼어들고 승상 사마영의 목을 겨누었다.

“네 이놈들, 짐 앞에서 무엇을 하는 짓이냐? 으으으...”

혜황제가 고향을 지르다가 떡에 숨이 막혔는지 객객 거리다가 앞으로 쿵 고꾸라졌다. 어느 사이에 사마영이 사마월의 부하들에게 끌려 나가고 있었다.

“폐, 폐하.”

심황후가 울부짖을 때였다. 휘황한 등불이 꺼지고 천지가 어둠으로 뒤덮이는데, 검은 보자기가 심황후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 떨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심황후의 몸이 누군가에 의해 번쩍 들렸다.

잔치판에서는 태의를 부르는 소리와 폐하께서 승하하셨다는 고함이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다.

‘안 되는데, 폐하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폐하 곁을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

심황후는 자신을 보쌌하여 데리고 나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보쌌꾼이 사마월이나 사마치의 패라면 황후인 자신을 구태여 보쌌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심국이 황궁에 심은 심가촌 사람들이었다.

황궁을 나와 한 식경이나 지났을까?

보쌌꾼이 심황후를 내려놓고 검은 보자기를 벗겨냈다.

심황후가 눈을 떴다.

보쌌꾼을 비롯한 백여 명의 남녀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그 곁에는 심국이 보낸 꽃수레가 놓여 있었다.

“모두 고개를 들라. 연심이가 대답해 보거라. 어찌하여 나를 보쌌하여 왔느냐?”

심황후의 눈길이 연심이 쪽으로 갔다.

“전하의 하명이셨습니다. 황궁에 변란이 일어나면 지체 말고 황후마마를 황궁 밖으로 뺐시라는 지엄한 분부가 계셨습니다.”

“오늘 변란이 있을 줄은 어찌 알았느냐?”

그 대답은 회계국 심국전하의 호위대장이 했다.

“황후마마, 진나라 황궁에는 회계국의 눈과 귀가 백 개도 넘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질 일은 최소한 사나흘 전에는 전하께 아뢰어집니다. 사마영 승상이 잔치를 벌이는 날 사마월과 사마치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걸 귀동냥으로 들었습지요. 관련 사마월과 사마치의 움직임이 심

상치가 없었습니다. 전하께 아뢰었더니, 변란이 일어나면 황제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황후마마를 모시라는 분부를 받았습시다.”

“너희들의 충정은 내가 잘 알겠다면, 나는 심가촌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황궁으로 돌아가야겠다. 폐하 곁을 지켜야겠다.”

“그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황후마마께서 고집을 부리시면 저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황후마마께 무례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쌈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더냐? 정녕 그러느냐?”

“심가촌에 도착하면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심국의 호위대장 역시 만만한 고집이 아니었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황후마마를 수레 안으로 모시거라.”

그러자 부하들 두 명이 심황후 곁으로 다가섰다.

“알겠다. 내 발로 수레에 오르마.”

심황후가 연심이의 부축을 받으며 막 수레에 오를 때였다. 한 떼의 사람들이 달려가며 고향을 질렀다.

“황제폐하께서 승하하셨다. 황제폐하께서 승하하셨다.”

“도척 같은 승상 사마영도 죽었다 한다.”

사람들이 저만큼 멀어졌을 때 심황후가 수레에서 내려왔다.

“황후마마, 어인 일이십니까?”

호위대장이 물었다.

“황제폐하께서 승하하셨다고 하잖느냐? 먼 길 가시는 폐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려야겠구나.”

심황후가 황궁을 향해 큰 절 두 자리를 했다.

“황후마마, 어서 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심국이 큰 절을 했다.

원홍장이 맞절로 인사를 나누고 말했다.

“아부님, 저는 이제 황후가 아닙니다. 아부님의 딸 심청이 되어 심가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로 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황후마마.”

“여전히 황후마마라 부르십니다. 황후라는 이름도, 이 거추장스런 옷도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고 옷이었습니다. 소녀는 아부님의 딸 심청으로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고맙구나, 내 딸 청아.”

“재작년에 조성하여 보낸 관음금불상이 백제국 옥과땅 성덕산에 잘 봉안이 되었다는 소식은 궁녀 연심이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부님의 은덕이십니다. 백제국 꼭나 사람들은 관음보살님의 은혜로 편안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부님.”

“아버가 딸을 위하여 한 일인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썩스럽구나. 네가 내 말대로 아수라장 같은 황궁을 나와 내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는 보값음을 다 하였느니라. 한 가지 더 너에게 전해 줄 기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라니요? 무슨 일인지요?”

“네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니라. 그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느니라.”

심국의 말에 원홍장의 가슴이 쿵 내려 앉았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면 꼭나땅 송정 마을에 계신 아부지의 눈

이 광명을 찾는 것인데, 정녕 아버지께서 눈을 뜨신 것인가?

원홍장이 가만히 심국의 입을 바라보았다.

“네 친부이신 원랑공께서 광명을 찾으셨다는구나.”

“정말이십니까? 아부님.”

“내가 어찌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느냐? 십 년 가까이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던 네 아버지가 옥과 땅 성덕산 관음사의 관음보살님께서 대중들의 크고 작은 소원을 잘 들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서운어미라는 여자의 손을 잡고 더듬더듬 찾아가셨다는구나. 서운어미의 안내로 관음전 앞에 선 네 아버지가 문득 관음보살이라면 진나라 황궁의 황후가 되었다는 딸 홍장을 닮았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고, 느닷없이 고함을 질렀다는구나. 관음보살님, 관음보살님, 진정 내 딸 홍장이 관음보살님을 닮으셨는지요? 정녕 그러하시다면 어디 내 딸 얼굴이나 한번 보십시오, 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는데,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빙그레 웃고 계시는 관음보살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구나.”

심국의 말에 원홍장이 합장을 하고 중얼거렸다.

“관음보살님, 크고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아버지, 눈을 떠 주셔서 고맙습니다.”

빛물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던 원홍장이 벌떡 몸을 일으켜 동쪽을 향하여 큰 절을 올렸다.

다음날 원홍장은 범룡대사를 찾아 보타사에 올라갔다.

천년 묵은 차나무에서 탄 찻잎을 우려낸 차를 따라 주면서 범룡대사가 말했다.

“두 달 전에 백제국을 다녀왔구나. 성공대사가 흥복사를 대가람으로

중건하여 놓았더구나.”

“그러실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허나 나는 아담하지만, 너와 성덕보살의 신심이 깃들어있는 관음사가 훨씬 좋더구나. 성공대사의 원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신심이 모자랐든지, 흥복사에서는 관음사 같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부처님은 관음보살님과 달라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중생 스스로 도를 닦아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네 말이 맞긴 하다면,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를 닦아 부처가 되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부처가 되기보다는 자식을 갖기를 소원하고, 부처가 되기보다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부처가 되기보다는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중생들의 바람이니까.”

“대사님, 소년도 부처가 되기보다는 이웃들의 편안한 삶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관음보살이라는 것이다. 네 얼굴은 관음보살의 얼굴이고, 네 마음은 관음보살의 마음이니까.”

“대사님, 자꾸 저를 놀리시면 싫습니다. 다시는 보타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원홍장이 토라지는 시늉을 하자 범룡대사가 너스레를 떨었다.

“어이쿠, 홍장보살님, 하찮은 땡종이 어찌 관음보살님을 놀리겠습니까? 삼천 대의 죽비를 맞을 일이지요. 부처님의 할을 천 번이나 들을 소리지요.”

회해 손사래를 치던 법륜대사가 몸을 일으켜 벽장에서 노란비단으로 만든 주머니를 하나 꺼내왔다.

“이걸 몸에 지니고 있거라.”

법륜대사가 주머니를 내밀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열어 보거라. 앞으로 원홍장보살을 지켜주실 신물이니라.”

원홍장이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엄지 손가락만한 관음보살상이 나왔다.

“작은 관음보살상이네요?”

“작으나 작은 것이 아니니라. 우주보다 큰 관음보살님이시니라. 백제 국에 갈 때 품 안에 지니고 가거라.”

“백제국에요?”

원홍장이 자신의 속내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왜? 백제국에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았느냐?”

“제가 어찌 법륜대사님을 속이겠습니까? 진나라에 온 이후 단 하루도 백제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색만 하지 않았을 뿐, 밤이나 낮이나 저는 백제국 대방주 곡나땅이 그립습니다.”

“알고 있었느니라. 허나 노심초사하지 말거라. 수일 내로 너는 백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니라.”

“정말입니까?”

“내 말이 틀린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하면 기다려 보거라. 사흘만 여기서 머물거라.”

“사흘이나요?”

“급할 것이 무엇이더냐? 심대인도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랄 것이니라.”

법륜대사의 낯빛은 평안해 보였지만, 원홍장은 자신이 보타사에 사흘 동안 머물러야할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사흘만 머물리는 법륜대사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은 나흘째 나던 날 새벽이었다.

법륜대사를 따라 도량석을 돌고 있는데, 백팔계단 아래에서 말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날쌔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법륜대사가 돌아보며 나직히 말했다.

“너를 데리러 오는 모양이구나.”

“저를 데리러 와요?”

원홍장이 물었을 때였다.

말을 타고 온 사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뢰었다.

“황후마마, 황궁의 호위병사들이 심가촌까지 내려 왔습니다.”

“황궁에서?”

원홍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데, 사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새 황제로 등극한 사마치가 황후마마를 붙잡아 들이라고 엄명을 내렸다합니다. 황후마마는 이 길로 곧바로 배를 타셔야합니다. 포구도 황궁에서 나온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큰 배가 닿지 못하는 작은 포구에 숨겨놓은 조각배를 타셔야합니다. 시종 하나도 없이 황후마마 혼자서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황궁이 잠잠해지면 심가촌으로 돌아오셔도 되고 하셨습니다.”

사내의 말에 범룡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 하나를 내왔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홍장아. 잡곡 몇 가지와 솔잎을 말려 곱게 빻은 선식이니라. 이것 한 줌을 입에 털어 넣고 물 한 금만 마시면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니라.”

“대사님, 먹을 것과 마실 물은 이미 배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지요, 황후마마. 보타사도 위험하니 바로 피신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원홍장이 함장으로 범룡대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사내가 타고 온 말 등에 오르자, 말이 이내 쏜살같이 달려 반 식경도 못 되어 포구 같지 않은 작은 포구에 도착했다. 포구의 바위그늘 아래에 관음보살상을 실어 보냈던 크기의 노도 없고 돛도 없는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홍장이 배 위에 오르자 사내가 말했다.

“바닷물의 드나듦에 따라 배가 바다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되풀이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원홍장이 탄 배를 힘껏 밀어놓고 사내가 꾸벅 절하고 돌아간 다음이었다.

갑자기 바람 한 줄기가 일더니, 배를 먼 바다 쪽으로 밀었다.

원홍장이 편안한 마음으로 관음보살을 염송하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로 반복되기 때문에 배가 멀리 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사내의 말과는 달리 한번 바람을 타기 시작한 배는 한 방향으로만 출창 달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문득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진 원홍장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범룡대사가 건네준 선식가루를 한 주먹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바라보니, 사방은 망망대해였다. 진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포구에 들기 전에 먼 바다에서부터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이 보였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구나.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섬 하나 보이지 않는구나. 그때는 섬이 보이고서도 꼬박 나흘을 달려 배가 포구에 들어섰지 않은가? 여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불안한 것은 아니었다.

원홍장이 관음보살을 염송할수록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고, 파도는 천둥소리를 내며 으르릉 거렸다. 배가 흔들리는데로 몸을 움직여 주면서 원홍장은 관음보살을 염송했다. 그러다가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선식가루를 먹고 물을 마셨다.

해가 몇 번이나 떴다 졌는지도 가늠할 수가 없었다.

‘설마 이 배가 백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일백 명의 노꾼이 노를 젓고, 높이가 서른 자, 폭이 열 자의 돛이 바람을 받고 달려도 꼬박 스무날이 걸리는 뱃길이라고 했다. 사람 하나가 겨우 탈 조각배라면 얼마가 걸릴지 예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이레를 갔을까? 열흘을 갔을까?

갑자기 바람이 사나워지더니, 집채더미만한 파도가 몰려왔다. 배가 엎어질 듯 기울어졌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다. 원홍장의 몸이 풀썩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뱃전에 머리를 부딪친 원홍장이 정신을 잃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 쏘이고 있었다.
 햇살이, 송곳 같은 햇살이 온 몸을 콧속 찌르고 덤볐다.
 원홍장의 뇌리에서 의식이 돌아오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 이 여자 죽었나 봐. 움직이지를 않아. 어른들한테 알리자.”
 “그래, 어른들한테 말리자.”
 두 아이가 후닥닥 뛰어 떨어져 갔다.
 원홍장이 조용히 일어나 앉아 눈을 반만 뜨고 사방을 둘러 보았다.
 앞은 푸른 바다였고, 뒤는 은빛 모래밭이었다.
 ‘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원홍장이 배에서 내려와 모래밭 위로 들어섰을 때였다.
 저만큼에서 한 아낙이 달려오고 있었다.
 “아덜이 죽었다고 허드니, 살아 있었네. 시악씨는 어디서 오는가? 이
 쪼맨헌 배털 타고 어디서 오능겨?”
 원홍장이 되물었다.
 “여기가 어디인지요? 진나라입니까? 백제국입니까?”
 “진나라는 모르것고, 낙안포구면, 낙안포.”
 “낙안포라고 하셨습니까?”
 “근당께, 낙안포랑께.”
 “하면 성덕이라는 처녀를 아시는지요?”
 “성덕이? 가년 내 딸냄인디, 시방언 여그 안 살구만. 썩을 년, 바지락
 열 캐러 간다고 나간 년이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숨었는가, 코빼기도
 안 비친당께. 현디, 시악시가 성덕이럴 알아?”
 아낙의 말에 원홍장의 뇌리로 ‘아, 그렇구나. 성덕 아버지의 사십구제

를 지내려 대홍암에 오셨던 성덕이의 어머니시구나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그렇다고 원홍장은 새삼 성덕의 어머니한테 성덕이를 안다고도, 자
 신이 누구란 것도 밝히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면 인신공양의 제물로
 팔려갔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효녀 원홍장이 어찌어찌 진나라의 황후가
 된 내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성덕이 관음보살님을 모시고 가
 성덕산에 모시고 관음사를 창건하게 되었다는 얘기까지 다 해야 할 판
 이었다.

원홍장이 성덕이를 안다 모른다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혹시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시거든 옥과 땅 관음사에 한번 들려주시
 지요. 거기 관음보살님이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잘 들어준다고 하십
 디다.”

원홍장의 말에 성덕 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나도 그 소문을 쪼깨 듣기는 했지만, 소문을 어떻게 믿는당가? 보아
 하니, 몸이 많이 상헌 것같은디, 내 집에 가서 밥 한 끼 묵고 갈랑가?”

“아닙니다. 말씀만도 고맙습니다.”

“저참, 이상헌 시악씨세. 옷차림도 생전 처음 보는 모십이고. 그나마
 다 찢어져서 젊은 여자의 속살이 흰히 비치는구면. 밥 묵기 싫으면 내
 집이 가서 옷이나 갈아입고 가든지. 새 옷은 없고, 성덕이가 입던 현 옷
 이라도 줄텐께.”

성덕 어머니가 싫다 좋다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원홍장이 따라갔다.

바지락을 캐느라 갯벌 바닥을 호미로 득득 긁던 아낙들이 흘끔흘끔 돌아보다가 큰 소리로 물었다.

“성덕 어매야, 그 치자가 누구당가? 보아하니, 성덕이 동무는 아닌 것 같은디.”

“나도 모르는 사람이여. 옷이 하도 더럽길래 성덕이 입던 것 한 벌 내 줄라고.”

“응, 그려. 직선허능구먼.”

성덕이가 입던 옷으로 갈아입은 원홍장이 바지락국을 시원하게 끓여 줄테니, 밥 한 술 놓아 먹고 가라고 붙잡는 성덕어머니의 호의를 옷음으로 사양하고 성덕이의 집을 나왔다. 마을 앞 삼거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동쪽 길로 들어섰다. 어쩐지 그 길이 성덕이가 관음보살을 업고 갔던 길 같았다.

얼마를 걸어 갔을까? 정자가 하나 나왔는데, 현판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성덕이 처음으로 쉬었던 정자일까?’

정자 난간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이가 절반이나 빠지고 지팡이를 짚은 허리 굽은 노파가 나타나 말없이 주먹밥 하나를 건네주고 가던 길을 갔다.

“고맙습니다, 할무니.”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들어보니, 노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음보살님께서 굶주린 내게 밥 한 덩이를 주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자 원홍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 나왔다.

꼭 그길로 가야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원홍장은 성덕이 걸어갔

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샘정에서 물 한 바가지로 기운을 차리고, 성덕이 부처님 꿈을 꾸었다는 미타정에서 부처님 꿈도 꾸고, 율목정에서는 밤 몇 톨로 허기를 달래면서 스무하루를 걸어 성덕산 관음사 입구에 도착했다. 성덕 어머니한테 얻어 입은 옷은 한테 잠을 자느라 너털너털 구겨졌고, 얼굴에서는 땀국이 흘렀다.

‘이제 두어 시각만 더 걸어가면 관음보살님을 친견하겠구나. 성덕보살을 만나겠구나.’

원홍장이 감회에 젖어 중얼거리는데, 아낙 둘이 지나가다가 아는 체를 했다.

“관음사에 밥 얻어 묵으로 가능갑만. 거기 성덕보살님이 인정이 많으셔서 얻어 묵는 사람얼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허셨으께, 퍼득 가보그라.”

“예, 고맙습니다.”

“흐, 동냥치가 고맙다는 인사도 헐 줄 아네.”

그런데 원홍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여자는 송정마을 아낙들이 분명했다. 남을 비꼬는 듯한 말투는 분녀 어머니였고, 다른 아낙은 칠복이 어머니가 분명했다.

그렇다고 아는 체를 할 수도 없었다.

두 아낙의 뒤를 따르는데, 아낙들이 나누는 얘기가 귓속을 파고 들어왔다.

“나는 원홍장님 속을 알다가도 모르곤텐데.”

분녀 어머니가 말했다.

“왜? 훈장님처럼 점잖은 분이 어디 계신다고.”

“점잖기야 허시제. 서운 어매와 실림을 안 합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혀. 죽은 흥장어매한테 지조를 지키느라 그런담서?”

“사내가 그러기가 쉬운 일인가? 서운어미만 닭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지 만가?”

“원훈장님 따라 관음사 공양주보살로 들어갔으면 됐제, 머. 남녀사이에 꼭 한 이불을 덮어야만 된당가? 가까이서 얼굴 마주힐 수 있으면 반분언 풀리겠제. 헨디, 멧 땀시 원훈장님 속을 모르겠다는겨?”

“아, 관음사 관음보살님께 빌어 눈도 뜨셨겠다, 더구나 흥장이가 진나라 황후람서? 멧이 아쉽다고 불목하니노릇이난 말여. 황후 딸내미 체면이 있제.”

“사람 맘얼 어찌 알겠어? 원훈장님도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겠제. 헨디, 그 소문이 사실이까?”

“뎌 소문?”

“아, 진나라 황후로 있는 흥장이가 만금을 들여 관음보살을 맹글아 배에 태와 보냈다는 것 말여. 어떤 사람은 진나라 황후는 원훈장이 아니라 심청이라고 허등만.”

“아니여. 원훈장이 심청이고, 심청이가 원훈장이라고 허든디. 그렇게, 두 이름이 한 사람인 것이제. 황후인 것언 분명헌 개비여.”

“성덕보살이 헨 말이랑께, 틀림이 없겠제. 암튼지 관음보살님이 영험 허기는 헨 모냥이여. 엇그제는 신라사람덜이 스무 남은 명이나 찾아와 기도덜 허고 갔당만.”

“신라꺼정 소문이 났당가?”

“안 그러면 그 사람덜이 어찌 알고 왔겠어?”

분녀 어머니의 말투에 가시가 박혀 있었다.

땅거미 속을 걸어 관음사 일주문을 들어선 원훈장은 먼저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는 요사채의 부엌으로 갔다. 그 시간에 절간의 불목하니가 할 일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이었고, 관음사 불목하니라는 아버지는 분명 불을 때고 있으리라는 예상이었다.

과연 아버지는 요사채 주지스님의 방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원훈장이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장작 한 개비를 아궁이에 밀어넣던 원량이 고개를 들고 돌아보았다.

가슴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솟아 오른 원훈장이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못하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치자, 추우면 안으로 들어오지. 보아하니, 뎌 길을 온 모양인데, 와서 손도 녹이고 발도 녹이고 몸도 녹이고 그러라고. 헨디, 이상하네. 치자가 눈에 많이 익어. 아, 어서 들어와. 거기서 떨지 말고.”

원량의 재촉에 원훈장이 마지못한 듯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문득 어린 시절부터 줄곧 맡아왔던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원훈장이 속으로만 가만히 ‘아부지’라고 몇 번 불려주고는 부엌을 나와 공양간으로 갔다.

공양간에서는 서운어미가 다섯 명의 보살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것 저 것 분부를 내리는 서운어미를 한 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치자 서운

어미가 말했다.

“행색을 보아하니, 며칠은 굶은 모양인데, 그래도 관음보살님보다 먼저 밥을 줄 수는 없구먼. 찌꺼기만 기둘려. 밥이 뜬이 돌았으께, 관음보살님께 먼저 공양얼 올리고 한 그럭 줄텐께”

“예, 보살님. 고맙습니다.”

원홍장이 합장으로 인사하고 돌아서 마지막으로 관음전 앞으로 갔다.

관음보살님은 처음의 모습 그대로 온화한 얼굴빛으로 ‘너 왔느냐?’하고 물으시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관음보살 앞에서는 성덕보살이 백팔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원홍장이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관음전 토방아래에서 백팔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아무 소원도 빌지 않았다.

그냥 무념무상으로 관음보살을 염송하며 절만 했다.

원홍장이 백팔배를 마치고 마지막 합장을 했을 때였다.

관음보살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오시더니, 원홍장의 몸을 가만히 껴안아 주셨다. 엉겁결에 원홍장이 마주 껴안았다.

그때였다.

관음전 앞에서 저녁공양을 기다리던 대중들 속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관음보살님께서 현신 하셨습니다. 저기 성덕산 꼭대기를 보시오. 관음보살님께서 환한 빛으로 서 계시오.”

원홍장이 돌아보았을 때 한 줄기 빛 속에 관음보살님이 웃고 계셨다. 그것은 찰라보다 짧은 순간이었다.

관음보살님은 이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큰 별 하나가 떠서 반짝이고 있었다.

누군가 선창을 하자 대중들이 후창으로 답했다.

“관음보살 만세. 성덕보살 만세.”

“관음보살 만세. 성덕보살 만세.”

원홍장의 눈에서 다시 환희심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최정주 장편소설집

원홍장전

지은이 | 최정주

펴낸이 | 고광운

펴낸곳 | 곡성문화원

주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전화 | 061) 362-0890

제작처 | 도서출판 문예바다

전화 | 02) 744-2208

메일 | qmyes@naver.com

© 최정주, 2017. Printed in Seoul, Korea

ISBN 979-11-6115-026-0

* 이 책의 판권은 지은이와 곡성문화원에 있습니다.

* 이 책은 2017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